

자광 스님 제2대 군종교구장
"군포교는 밝은 사회
만드는 '씨 뿌리기'"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6월 24일) · 주간

제951호 2013년 7월 31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아함경

타인은 곧 나 자신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 생각하라.
나 아닌 남에게 상처줘서는 안된다.

군포교, "양·질적 성장 함께 이뤄야"

군종교구 3기 출범으로 살펴본 과제와 전망

제3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에 정우 스님이 취임하며 군포교가 일대 변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임군종교구장인 정우 스님은 통도사 주지와 총무원 총무부장, 4선의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한 명실상부한 조계종의 중진으로 수많은 도심포교당을 세운 추진력을 지닌 스님이다. 특히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며 호국 황룡사와 일원사 등 군법당 2곳을 창건할 만큼 군포교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포교 안팎의 거는 기대가 크다.

7월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군종교구 교구장 이취임식에서 정우 스님은 "군포교의 주체는 현장에서 뛰는 현역 군승들"이라며 "군승 법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군포교 최일선에서 뛰는 현역 법사들을 존중하며 지원과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스님의 견해처럼 군포교의 주체는 군승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군승과 현장의 포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포교의 성패를 좌우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무엇보다 군승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일선 군승들의 의견이다. 20년 넘게 군포교에 몸담은 중령급 군승은 "독신 비구 스님들이 늘고 있지만 승려로서의 위상은 아직까지 약하다. 이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포교조직의 활성화도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군종교구는 현장의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군승 교육과 함께 2012년 6월부터 군포교지원단체협의회를 결성해 관리하고 있다. 군포교지원단체협의회에는 그동안 군포교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들로 조계종 포교사단 군포교팀과 군승후원회, 국군불교총신도회, 국군예비역불자회, 심우회, 불교여성개발원 등 13개 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석 전 농협대 교수는 "전체 400여 법당 중 군승의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 스님은 후원체계 확립과 함께 '문화포교'로 군포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기치를 걸었다.현재 군종교구의 연 수계인원은 10만 여 명에 달한다. 일선 군법당 개보수 문제가 있지만 양적인 성장은 궤도에 오른 상태라는 평가가 많다. 이

"군포교 주체는 군승"
정우 스님, 지원 표명

군승 위상 강화 위해
종단 관심 이어져야
포교 콘텐츠 개발 시급

제는 질적 성장이 함께 동반돼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육군의 한 중진급 군법사는 "10만 수계 중 불자로 표기하는 이는 8만 명에 불과하다. 불교 가르침보다 잿밥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개신교에서도 물질을 통해 선교하는 것에 한계가 왔다는 인식이 있다. 근본적으로 신심을 키우는 포교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일선 장병들에게 감동을 주는 포교를 위해서는 다양한 포교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립된 생활을 통해 생기는 인성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올해 국방부 내에서 상담심리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군 내에서도 감성 전력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며 "심리상담, 명상 등 불교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군포교에 문화포교를 전개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군종교구는 7월 25일 제2, 3대 군종교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가운데〉이 3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교구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임하는 자광 스님.

조계종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취임

25일 용산 전쟁기념관서 이취임식

군포교를 책임지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수장으로 정우 스님이 취임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7월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의 이임식과 3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군포교 현장의 주체는 군법사이며 군종교구는 지원팀"이라며 "군법사들의 그늘, 울타리가 되는 군종교구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마치고 모든 일을 내려놓으며 어렵고 힘든 이와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종단에서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기는 것을 보면 군종교구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이임사에서 "신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활동력과 복덕이 많아 군종교구 사업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승들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우 스님은 도심포교를 주도한 선구자로서 종단 최대의 포교조직인 군종교구를 발전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1대 군종교구장을 지낸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과 총무부장 원담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원태호 국군불교총신도연합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우 스님은 1965년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총무부장, 불교방송 이사, 통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 회주로 있다.

노덕현 기자



951호 INDEX

시방세계 A5
부산약사선원 수행 현장

종합 A3 · 4
가산불교 대사림 14호 발간
불교 언론인 모임 '인사클럽' 창립

신행 A6
시각장애인 점자법요집 발간

김상현 교수 추모 A7 · 23

2013여름특집 B1~12





SBS 편파 보도에 성난 佛心

총무원, 본사주지협 등 비판 성명… 항의 방문 이어져

지난 7월 19일 방영된 SBS 시사 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 Y'의 방영 내용에 대해 불교계가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보도였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19일 방영분에서는 오어사 산내암자 자장암 전 주지의 주장으로 시작됐으며, 장주 스님의 폭로기자회견과 인터뷰가 공개됐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조계종 총무원이다. 조계종은 19일 대변인 주경 스님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SBS의 '궁금한이야기 Y'가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부도적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하며 "종단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

조계종은 "인터뷰가 아닌 것으로 하고 카메라 없는 상태에서 종단의 소임자와 나눈 얘기와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방영했다. 더구나 도박 빚 때문에 해외로 도피한 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의 사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의 사진을 버젓이 내보낸 것은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저자거리 폭력배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자격이 안 되는 예비승려를 자장암 감원으로 위촉해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찰의 주지 직을 비롯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무책임한 폭로를 하는 자가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라고 확신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은 7월 22일 방송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의 내용과 취재방식, 편집조작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수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폭로와 관련해 실명을 방영해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과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문)는 7월 26일 경주 불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어 종단을 향한 비방과 폭로에 단호히 맞설 것을 다짐했다. 본사 주지들은 결의문을 통해 "분별한 비방과 폭로 행위는 분열과 불신의 그림자 속에 승단의 화합을 해치고 종도들을 분열시키는 사자충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해종세력에 현혹되어 무분별한 폭로 및 비방행위를 확대시키는 행위는 1000만 불교도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33대 집행부를 비롯해 종단의 제 기구들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해종 척결과 정법 구현에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

조계사 호법위원회(위원장 성진, 이하 호법위)는 7월 23일 SBS를 항의 방문하고 편향적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 대해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도 7월 26일 SBS에 항의 방문하고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 항의했다.

이와 함께 불국사와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SBS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5회 포교대상 공모

포교원,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제25회 포교대상을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24일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사찰의 공로를 치하하고 불법홍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25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은 교구본사 주지와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 등 추천권자가 종단 소속 기관 및 단체, 사찰, 스님, 종단신도등록자로서 5년 이상(대상 후보자는 20년 이상) 해당분야 포교 활동 중인 자 또는 단체다.

포교대상(종정상)과 공로상(총무원장상), 원력상(포교원장상) 등으로 나눠 시상하게 된다.

포교대상 후보 추천자는 구비서류를 오는 8월5일부터 9월9일까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포교원은 10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자각과 공성은

거울의 모습처럼 떼어낼 수 없나니

어떤 것도 생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느니라

마음의 텅 빈 성품은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고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 기능, 우리가 자각 혹은 깨달은 마음이라 부르는 자생적인 명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양면을 보면 공성과 자각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마치 거울과 그 거울에 비치는 물체 같은 것이지요.

생각들은 공성 안에서 형태를 취했다가 거기서 용해됩니다. 마치 얼굴이 거울에 반사 되었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얼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울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지요.

당신이 수행의 길을 나서기 전 아마도 당신은 무명에 이끌려 윤회계의 욕계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서면, '무지와 지혜'가 섞여 있는 상태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길의 끝에는 깨침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남아 있지 않고 오직 자각만이 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약간의 변화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본성 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궁극에 도달했다고 해서 증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정전 60주년 · 전통문화 홍보 · 자비실천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조계종 '잰 걸음'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7~9월동안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잰 걸음을 이어간다.

조계종 한반도평화대회 수석부위원장인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평화대회 상임운영위원장인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7월 27일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 민간대표로 참석했다.

지원 스님과 수불 스님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받아 24일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김정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바마 대통령과 헤이글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국 공식 추모행사로 한국 스님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초청으로 조계종이 정전 60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기념행사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주 상보〉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외 방문도 이어진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 일대를 방문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 · 수불 스님
정전 60주년 추모 위해 방미

총무원 8월 23~30일 호주 방문
사찰음식 · 템플스테이 등 홍보
호주불교 포교 현장 견학도

동행, 아프리카 학교 기공과 함께
9월 6~15일 나눔 투어 진행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은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의 종단 발전 4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2010, 2011년에는 미국과 프랑스를 찾은 바 있다.

이번 호주 방문에서는 주요 행사로는 △템플스테이 홍보 △사찰음식 만찬 △영화 '길 위에서' 상영 △호주불교연합회 주요 인사 만남 및 불교 교육 현장 견학 △이웃종교 시설 방문 △현지 불자들과 법회 △UN 참전용사 위로 등이 진행된다.

또한 호주 붓다넷 창립자이자 만해대상 수상자인 빤야와로 스님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으며, 호주 다문화 장관과도 면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세계화' 4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불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호주를 올해 집중 행사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뉴욕과 파리에 이은 해외 홍보 연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에는 한국불교 첫 아프리카 학교가 기공식에 들어간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9월 9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경제수도 다르에스살람 외곽지역의 학교건립부지에서 학교 기공식을 개최한다.

아름다운동행의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는 오랜 식민통치와 기아, 부족 간 분쟁, 전염병, 높은 문맹률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교육 · 문화 ·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나아가 아프리카인들 스스로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며 빈곤의 고리를 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동행은 기공식과 함께 9월 6~15일 7박 10일간의 나눔투어를 진행한다. 나눔투어단은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 기공식, 지역주민을 위한 우물파주기, 슬럼가 학교방문 등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며,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인근지역 탐방, 국립박물관 견학, 나이바샤호수 및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사파리 등 투어도 함께 진행된다.

나눔투어는 8월5일까지 모집하며 참가비는 항공, 숙식 등 경비를 포함해 599만원이다. 여권사본(여권만료일 6개월 이상)과 신청서, 신청금 100만원을 제출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제자원봉사, 연등회 격 높였다

연등회 활동보고서 발간
참가자 90% 이상 '만족'

내외국인 64명 전 과정 참여
많은 사람 · 등 행렬 관심 높아
방문객들 만족도 역시 '상승'

"연등회 자원 활동가를 한 것은 제 삶의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내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알게 했습니다."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참가자 라노 리에바(카자흐스탄)의 참가 후기〉

올해 첫 시행된 연등회 국제자원봉사에 참가한 내외국인 활동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가 최근 발간한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집계됐다. 실제 참가 활동가 중 한국인 91%, 외국인 96%의 인원이 전반적 만족도 부문에 '매우 만족'과 '만족'을 선택했다. 프로그램 별로는 템플스테이와 연등회 현장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총 103명이 지원했으며, 내국인 33명, 외국인 31명 등 총 64명이 전 과정에 참여해 활동했다.

한국과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연등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높은 호응은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행사 주체로 연등회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 활동가들은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와 교류 △불교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한국 대표 축제의 일원으로 참여 등을 매력 요인으로 꼽았다.

프로그램 진행을 주도한 하영태 대한불교청년회 연수국장은 "처음 시행됐지만 중도 포기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참가율이 좋았다"며 "대부분의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을 들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등회 국제자원봉사는 그들이 행사 주체로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 호응도가 높았다. 추후 인원 확대와 참가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희 연등회보존회 팀장은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종교와 인종을 떠나 연등회 자원봉사를 통해 하나가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연등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연등회 전반의 모니터링 결과도 함께 집계됐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국인 85%, 외국인 100%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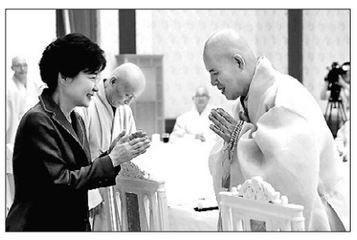
특히 연등행렬과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참가 인원들에 대해 방문객들이 높은 호응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등회 보존회는 "연등회 방문객들이 축제의 콘텐츠와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세세한 측면에서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 축제 공간의 쾌적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올해 첫 시행된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진은 자원봉사 연수 교육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불교지도자 오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불교 지도자 청와대 오찬

박 대통령 25일 협력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5일 낮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은 지난 19일 기독교에 이어 두 번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불교 주요종단 총무원장과 조계종 19개 교구본사 주지 등 28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불교신자 모임인 청불회(靑佛會)의 회장인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를 초청,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신중일 기자



“실버포교, 가족이란 숲을 보라”

김응철 교수, 23일 조계종 포교종책연찬회서 지적

“수십년 동안 사찰에 다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 돼 이웃종교로 개종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불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교계에는 상조, 병환 등에 시달리는 노인들에 대한 포교가 시급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상조와 호스피스 등 불교계가 맞춤형 노인포교 활성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노령화 시대, 실버세대를 위한 포교방안’을 주제로 제53차 포교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에서 사십구재와 천도재 등 임종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임종 전 스님과 신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는 무관심 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철 교수는 “노인 포교의 문제점은 노인불자들이 참여하는 조직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상조모임과 호스피스 등이 사찰에서 연계되면 필요한 경우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불교계에서 이같은 활동이 미흡한 이유로 정상인만을 포교대상으로 삼는 인식의 차이를 들었다.

김 교수는 “호스피스 서비스와 상조가 불교계에서 포교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 이 같은 것들이 봉사의 한 방법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포교가 진행돼 오랫동안 사찰에 나와도 병이 들어 사찰에 나오지 못하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상적이지 않은 당사자여도 결국 가족포교 관점에서 본다면 더 큰 지

“불교계 정상인들만 포교”
힘들 때 외면…개종 이유
사찰부터 상조 · 임종교육
노인포교는 가족 관점서

지와 후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웃종교의 경우 임종 등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이러한 노인포교 선례로 불교계에서는 봉은사에서 진행하는 연화대학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봉은사 연화대학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찰에서 여가생활을 하며 모임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노년기의 생활법률, 영화관람, 웃음치료 등이 진행돼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7월 23일 ‘노령화 시대, 실버세대를 위한 포교방안’을 주제로 제53차 포교연찬회를 개최했다.

김응철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지순례, 기도불공과 함께 상조모임, 임종교육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는 끝으로 △장기 와병 노인에 대한 불교복지적 접근 △임종 염불법 및 호스피스 확대 위한 경전 편찬과 보급 △노인 봉사활동 현장 참여 문호 개방 △임종교육 및 노인 모임 공간 제공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병원 정토마을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이 ‘호스피스 활동을 통한 노인포교 방안’과 오복경 충남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이 ‘사찰에서의 노인포교 활동방안’을 발표했다.

능행 스님은 호스피스에 대해 “노인포교에서 당사자와 가족공동체가 죽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문화를 전수받고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생사교육에 그치지 않고 호스피스 자원 봉사 등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복경 회장은 “우리나라 사찰의 경우 훌륭한 자연환경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며 “불교의 정신수양 중심으로 숲 힐링 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故 지관 스님의 원력담긴 ‘가산불교대사림’ 14권 출간

‘소바라나’에서 ‘심로’까지 항목 수록

연인원 1만여명 투입, 2022년까지 발간 완료



불교 최고의 학승으로 꼽히는 가산 지관 스님의 원력이 서린 〈가산불교대사림〉 제14권이 출간됐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최근 “ ‘소바라나(소부라나)’ 부터 ‘심로(심로)’ 까지 총 8,042 항목이 수록된 ‘가산불교대사림’ 제14권을 출간했다”며 “가산지관대종사님의 영전에, 그리고 사부대중에게 이 모든 공덕을 회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행된 국내외 사전 중 최다인 15만 항목을 담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은 1983년 5월 지관 스님의 발원으로 편찬사업이 시작됐다. 스님은 마지막까지 대사림 원고 집필에 매진했으며 원고를 모두 쓰고 열반에 들었다.

1991년 9년 동안의 표제어 발굴 및 정리작업을 거친데 이어 1994년 한국불교 항목을 포함한 15만여 표제어를 추출해 기초원고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1999년부터 매년 1권씩 출간되고 있다. 대사림 편찬사업은 2019년까지 총 20권이 편찬되며 2022년까지 보유편 · 색인편 2권 등 총 22권으로 마무리 된다. 편찬사업에는 30여 전문연구자들이 상근하며 항목발굴과 구성, 편수와 교열, 윤문 등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인원은 1만여 명에 달한다.

김정배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이번 14권 서두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항목 하나하나마다 갓난아이를 돌보듯 보듬고 살피는 작업은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지 않는다”며 “해마다 성과물로 출간되는 ‘가산불교대사림’은 연구원 식구 전체가 산통을 거쳐 낳은 각고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들은 “지관스님의 원력이 서린 가산대사림 완간은 국불교와 전통문화의 자존을 높임은 물론, 후학의 전범이 될 것”이라며 “스님의 위적을 봉대하고 고군분투하며 공부할 따름”이라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법인등록 시작

24일 공고… 내년 6월까지

조계종이 ‘법인법’에 따른 법인등록을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승려가 재산을 출연한 법인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고 24일자로 공고했다. 법인등록은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법인법’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사찰 또는 승려가 재산을 출연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7월 1일 이전에 법인설립이 완료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법인이다.

등록 대상 법인은 정관 개정을 통해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목적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 · 종풍을 받든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또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이 조계종 승려로 구성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총무원에 통보하고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신중일 기자

갈등 ‘일단락’… 50주년 기념사업 진행키로

대불련, 8월 17일 세종문화회관서 50주년 기념식 개최

동문 간 갈등으로 파행으로 치닫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가 문제를 일단락 짓고 5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대불련은 7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박지연 회장은 “50주년 기념사업회를 준비하는 동안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간 갈등이 있었지만, 원만히 합의하에 해결하고 행사를 치루게 됐다”고 말했다.

대불련 동문의 갈등은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원유자)가 전국동문회(회장 홍종표)로 갈라지면서 불거졌다. 대불련총동문회는 50주년 기념사업회장에 홍종표 동문이 공동추진위원장에 위촉되자 50주년 기념식에 불참을 선언했으나, 7월 23일 제3차 이사회에서 50주년 기념식 동참을 결정했다.

임동주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은 “총동문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간 자격시비로 갈등이 생겨 기념사업의 차질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동문들이 기념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0주년 기념식’은 8월 17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1 ·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50주년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 △감사의 글 낭독 및 감사패 증정 △대불련 50년 사진영상 △대불련 미래비전 선포(대학전법센터) 등이 진행되며, 2부 ‘저녁만찬 및 축하한마당’에서는 △대불련 문화패 축하공연 △역대회장 소개 등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대불련은 8월 17~20일 동국대와 서울일대에서 ‘제4회 영부디스트캠프’를 개최한다. Let’s Go 빛나는 청춘!’을 주제로 법등미션프로그램, 붓다's 커뮤니케이션, 청춘토크파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또한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회는 기념식을 앞두고 오는 8월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 50년사 진리의 벗 · 얼 · 빛(이하 대불련 50년사)〉을 발간한다.

〈대불련 50년사〉는 1963년 창립된 대불련 50년을 네 시기로 나누어 대불련 활동의 흐름과 사건을 사진과 자료로 정리했다. 60년대는 창립과 구도의 열정, 70년대는 대불련의 전국조직으로 성장과 화랑대회,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는 민중불교운동과 한국불교 1600년대회, 90년대 중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통일운동과 남북교류, 그리고 수행학교(템플스테이) 등 각 시대를 대변해 정리했다.

김남수 편찬위원회 편집팀장은 “대불련 조직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했다. 각 시대별로 대불련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대학생 불자의 의식과 대불련 조직의 형태 변화도 담고자 했다”며 “현재 ‘지회-지부-중앙’의 골간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대학생 사회의 변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불련의 조직적 고민들을 사진과 글을 통해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난치병 환아에게 자비 손길 전하다

자승 스님 22일 자비나눔 방문… 치료비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2일 매월 진행하는 자비나눔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브론코기념병원을 찾아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전달했다.

이날 대표로 후원금을 전달받은 어린이는 이보람(3), 우람(2) 형제와 박민수(2) 환아로 보람, 우림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근디스트로피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박민수 어린이는 ‘선천성 대사질환 요소회로(OTC)’를 앓고 있다.

자승 스님은 이들에게 직접 염주를 선물하고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34명의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2일 매월 진행하는 자비나눔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브론코기념병원을 찾아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전달했다.



내 손으로 만드는
불교문화재 (3D입체 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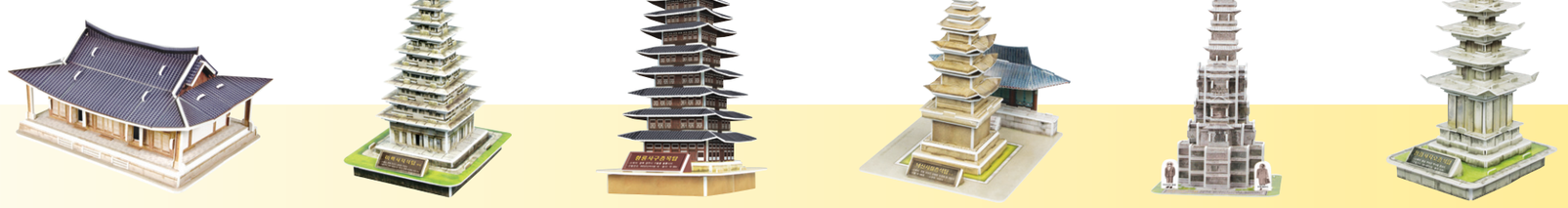
3D 입체 퍼즐은 평면의 퍼즐 조각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교구입니다.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불교학교, 각종 법회에서 다양한 교육 교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되어 유익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풀과 가위 없이 손쉽게 뜯어 만드는 입체 퍼즐입니다.

구입처 : 붓다북 02)953-7181
www.buddhabook.co.kr


◇ 상품명 : 부석사무량수전
◇ 크기 : 120×85×65mm
◇ 조각수 : 23개
◇ 가격 : 3,000원

◇ 상품명 : 미륵사지석탑
◇ 크기 : 104×113×210mm
◇ 조각수 : 55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황룡사구층목탑
◇ 크기 : 83×101×187mm
◇ 조각수 : 35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낙산사칠층석탑
◇ 크기 : 120×136×192mm
◇ 조각수 : 52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경천사십층석탑
◇ 크기 : 115×116×330mm
◇ 조각수 : 58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정림사지오층석탑
◇ 크기 : 84×101×184mm
◇ 조각수 : 51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해인사대장경판
◇ 크기 : 248×154×38mm
◇ 조각수 : 42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금산사미륵전
◇ 크기 : 142×143×115mm
◇ 조각수 : 43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불국사
◇ 크기 : 175×145×80mm
◇ 조각수 : 35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석굴암
◇ 크기 : 200×122×115mm
◇ 조각수 : 22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다보탑
◇ 크기 : 105×110×143mm
◇ 조각수 : 45개
◇ 가격 : 3,000원


◇ 상품명 : 석가탑
◇ 크기 : 85×92×142mm
◇ 조각수 : 21개
◇ 가격 : 3,000원

일 주 문



중복맞아 노인정에 삼계탕 보시

현성정사 회주 현성 스님은 7월 23일 중복을 맞아 탁동 · 신촌 노인정 150명 어르신에게 삼계탕을 보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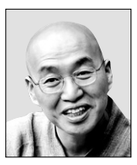
화엄장학회 장학금 전달

화엄장학회 이사장 화응 스님(인천 약사사 주지)는 7월 10일 약사사에서 중 · 고교생 90명에게 2013년 상반기 장학금 2250만원을 지급했다.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02)768-8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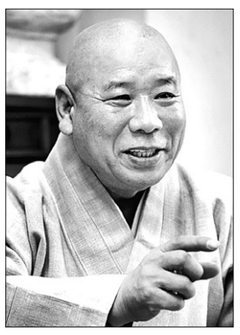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9월 13일까지 영상강좌로 진행되는 가을학기 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68-8524

제2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

예술상에 동성 스님… 학술 박동춘 소장



동성 스님



박동춘 소장

제22회 행원문화상에 예술 부문에 동성 스님, 학술 부문특별상에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 연구소 소장이 선정됐다. 예술상 수상자 동성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화와 달마도를 비롯한 선화창작으로 시대적 가치를 표현해 포교해 왔다. 또한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중국, 몽골, 인도 등 해외에서 수많은 개인전을 개최 한국 선화는 물론 불교를 해외에 널리 알렸다. 대표작으로는 '달마도' '부처님' '미소동자' 등이 있다.

또한 학술부문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은 저서 〈초의선사의 차 문화연구〉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 소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펴낸 이 책은 2011년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박 소장은 초의선사의 차 문화 전반을 연구, 한국 차의 우수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박사논문으로 완성했다. 직접 만든 차를 스님들과 사회각계에 보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도 있다. 현재 동국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예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학술부문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금300만원이 각각 주어지며 시상식은 9월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개최된다. **정혜숙 기자**

"불교계 언론 독립성 확보에 노력"

불교 전 · 현직 언론인 모임 '인사클럽' 창립

불교계 전 · 현직 중진 언론인 모임이 출범했다.

불교 전 · 현직 중진 언론인 모임 '인사클럽(회장 윤청광)'은 7월 22일 동산불교대학 2층 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참가자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불교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의 진정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과 한국불교의 지표를 상정하는 사회적 토론을 위해서도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청광 초대 회장〈사진 아래〉은 인사말을 통해 "인사클럽이 종단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정론직필을 펴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며 "인사클럽이 후배 기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등불이며 후원자가 돼 오욕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한국불교 1600년을 펼 수 있게 밑거름이 돼자"고 강조했다.

불교계 인사들의 격려도 이어졌다.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은 "종단 권력을 비판하고 우리 내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 속의 불교언론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불교언론 1호기자 송재운 교수, 김종규 회장, 정병조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인사클럽은 총회에서 정관을

7월 22일 창립총회 개최

초대 회장에 윤청광 씨

통과시켰으며, 감사에 김형균 불지사 대표와 이준엽 호남불교 대표를 선출했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윤청광, 총무 하춘생, 교무 정성운, 기획 김종만, 섭외 변대용, 편집 이학종으로 구성됐다.

인사클럽은 향후 △월 1회 회보 발간 △시론 · 성명 발표 △주요 인사 초청 토론회 △관련 세미나 개최 △인물 및 유적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인사클럽은 7월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사클럽에는 윤청광 前 불교 · 법보신문 논설위원, 양범수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 최정희 본지 이사, 김형균 불지사 대표, 이학종 미디어붓다 대표,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 변대용 불교TV 총괄국장, 하춘생 우성불교학콘텐츠연구소장, 이준엽 호남불교 대표, 정성운 불교포커스 주간, 신원식 중도기획 대표, 사기순 민족사 편집주간, 김봉래 불교방송 총괄부장, 박관우 불교방송 보도국장, 남선 불교방송 기자, 김윤희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 등 불교계 전 · 현직 언론인 21명의 정회원과 김윤세 씨 등 명예회원 17명, 주영운 행원재단 이사장 등 특별회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제 원력이 불교 발전의 씨앗이 된다면…"

정목 스님, 저서 인세 9000만원 '통큰 기부 릴레이'

'힐링'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유나방송(www.una.or.kr)' 진행자 정목 스님(정각사 주지)'이 최근 불교 발전과 자비 실천을 위한 '통큰 기부'를 이어가 화제다. 스님의 저서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의 인세 9000만원을 전부 불교와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이다.

정목 스님은 7월 22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조계종 교육원에 청년출가 진흥을 위한 승가교육 진흥기금 2000만원을 전했다. 21일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소아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의 수술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동국대에도 장학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런 기부 릴레이를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스님의 포교와 자비 원력에서 비롯됐다. 수 년 전 마음공부 명상CD를 세상에 내놨을 때, 중 · 고등학교 선생님과 의사들이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의 마음공부 명상CD를 수업과 치료에 사용해 본 사람들이었다. 모두 청소년들과 환우들을 위한 명상CD를 제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어떻게 도울까'라는 스님의 고민은 그때부터 이어졌다.

문제는 제작 비용. 부처님을 예경하러 온 신도들에게 보시와 화주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목 스님의 평소 소신이었던 만큼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SNS를 통해 올렸고, 사람들은 스님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소통의 편린들은 곧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활자로 이어졌다. 그렇게 베스트셀러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아프리카 학교 건립부터 출가 진흥 기금까지 쾌척 환우 등 위한 명상CD 제작

않다〉가 탄생했다.

마련된 인세를 의미있게 회향해야 했다. 애초 책을 출간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 환우와 청소년 명상CD 제작 비용을 산출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지는 않았다. 스님은 최소한의 제작 · 배포 비용만을 남기고 전부 인세를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불교는 이제 청년들과 호흡해야 합니다. 이번 2기 출가학교에서 강의를 하니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불교에 있어야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출가진흥기금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실제 스님의 이번 기부는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있다. 아프리카 학교 건립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국의 오지 청소년을 돕기 위함이었다. 17년째 매년 1억여 원씩 지원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 소아암 기금도,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뤄진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불교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불교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 포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생명나눔 제1회 생명존중강좌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7월 23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제1회 생명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장기기증과 자살예방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조원규 교수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의 '내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 △생명나눔 부산본부 박동범 사무국장의 '생명존중사상'의 발표로 이어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용호복지관 장수사진 전달식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7월 20일 지역 저소득층 노인 20여명에게 장수사진(영정사진)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달된 장수사진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 여학생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Mercersburg Academy 9학년(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유정희(17세)양은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봉사활동을 찾던 중 나이가 든 저소득층 노인들이 자신의 영정사진이 없어 안타까워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게 됐다.

유정희 양은 "평소 취미 활동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기뻐하시는 걸 보니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방학 때마다 찾아와서 더 많은 분들에게 사진도 찍어 드리겠다"고 봉사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군포장애인복지관 '사랑의 쌀 나누기'



군포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용철)이 7월 23일 국제로타리클럽3750지구 산본로타리클럽(회장 문성제)으로부터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을 위한 쌀 210kg을 전달받았다. 이는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에 쓰여진다. **정혜숙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신문,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8월 20일

5. 문 의 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 및 사찰 등록 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부산 약사선원은 7월 22일 부산 온천천 물놀이장 일대에서 제1회 티베트 오체투지 야외명상법회를 개최했다.



오체투지는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훌륭한 수행방법 중 하나다.



약사선원 주지 법생 스님



법회를 마치고 회원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다.

한여름 오체 투지… 체내순환·오독 퇴치

부산 약사선원 제1회 티베트 오체투지 야외명상법회

"칭장지역에서는 늘 독실한 목축민들이 고향에서부터 일보일배를 하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온 몸으로 라사까지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사원에서도 티베트인들은 날마다 오체투지를 합니다. 긴 세월동안 오체투지를 해서 두꺼운 나무판자가 움푹 패일 정도입니다. 그 정성은 불가사의합니다. 오체투지는 불교의 가장 공손한 예불방식이며, 그 공덕은 가장 수승하고 불가사의합니다."

부산 온천천의 한여름 밤, 더위를 피해 저녁 운동을 나선 사람들의 발길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귓가를 울리는 음악은 조용하면서도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고, 두 팔을 크게 벌려 하늘에서 합장한 후 서서히 전신을 바닥에 투지하는 모습은 청정함과 자재로움, 온화함이 전해졌다. 혹은 몇 해 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차마고도'의 그 절절한 마음을 담은 듯한 오체투지가 바로 눈앞에서 영상처럼 펼쳐지자 발길을 멈춘다.

부산 약사선원(주지 법생)은 7월 22일 부산 온천천 물놀이장 일대에서 제1회 티베트 오체투지 야외명상법회를 개최했다. 첫째는 시민들을 위해 오체투지 법문을 전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오는 9월 27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정전60주년기념 한반도 평화대회'의 성공기원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오체투지 수행에 앞서 법생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45년간 길 위에서 법을 전하셨다. 우리가 오늘 온천천을 찾은 것은 이곳에 대중들이 있기 때문이고, 바쁜 현대인들이 겪는 심신의 고통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며 "산문을 열고 나와 시중에서 오체투지의 법문을 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을 실천해 부처님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체투지의 다섯가지 공덕에 대해 설명하셨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체투지의 공덕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 오체투지는 훌륭한 건강비법 중 하나다. 하루 30분 수행하면 자제력이 강해져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 치우는 일이 줄어드니 체내 순환을 촉진시킨다. 소화계통, 혈액순환, 기혈순환 중 하나라도 막히면 병이 생긴다. 오체투지는 이런 순환을 촉진시킨다. 또 변비해소, 면역력 향상, 체중감소 등을 가져온다.

오체투지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법으로 엎드렸다 일어나고 또 다시 엎드리다 보면 심장과 뇌가 튼튼해진다. 오체투지는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활력을 증강시킨다. 적절한 운동으로 산소가 발생하고 혈액 속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덕은 심신의 오독이 사라진다. 오독은 탐·진·치, 아만심, 의심을 말한다. 이런 오독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오체투지다.

세 번째는 공덕과 복덕을 쌓게 된다.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과 미래 자손들을 위한 복과 지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성공과 깨달음의 기반을 닦아준다. 네 번째 공덕은 지혜와 자신감을 준다. 오체투지를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고 극도의 청정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심신에 지혜가 깃든다. 다섯 번째는 큰 공경심으로 큰 가피를 받는다는 것이다.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며 찬미, 공경, 또는 참회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처럼 목표와 우상이 없게 되면 사악함을 불러 오게 된다.

티베트 오체투지, 심신 치유
지나던 시민들도 참여 '성황'
매주 월·수·토 저녁 7시30분
부산 온천천, 장산 대천공원서

법문이 끝나자 산스크리트어로 된 반야밀주가 음악과 함께 온천천에 흘러든다. 서울에 청계천의 물길이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면 부산에는 온천천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온천천은 부산의 진산 금정산 고단봉과 계명봉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범어사를 거친 물길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를 관류하여 수영강과 합류, 바다로 흘러 수천 년 동안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를 생성하는 주요 하천이다.

'가떼 가떼 바라가떼 바라승가떼 보디 스와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선율에 따라 진행되는 정성어린 오체투지의 모습은 그대로 한 송이 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숙연함과 경건함이 온천천에 운동을 나온 사람들의 발을 묶는다. 장관이다. 기수급고독원을 향해 걸어오는 천이백오십인의 비구와 석존의 행렬이 이토록 장엄했으리라.

부산인데 부산이 아닌 듯 이 낯설은 이국적 풍경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차마고도에서 오체투지를 보았다 하고,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직접 따라 해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수줍은 듯 망설이기도 했다. 세 살배기 아기의 손을 잡고 온 젊은 엄마, 연신 망설이던 초등학생, 활기찬 중년남성,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네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 둘 구경하던 이들이 이내 수행하는 불자들의 무리에 들어왔다.

김태호(연산동)씨는 "온천천에 저녁 운동을 나왔다가 오체투지 하는 모습을 봤다. 체험해 보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그냥 지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련을 계속하고 있어 용기를 내어 체험을 하게 됐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몸이 이완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듯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 놀라웠다. 앞으로 계속 수행해 보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선재심 불자는 "평소에 티베트 오체투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서 만나게 돼서 반가웠다."며 "TV에서만 보다 직접 체험해보니 마음도 편안하고 다리와 무릎에 전혀 무리가 없어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다. 특히 야외에서 이런 체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서 법을 전하려는 배려와 노력에 감사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씨는 "불교단체에서 나와 이런 좋은 수행법을 가르쳐 줘서 너무 반가웠고 좋았다. 시키는 대로 힘을 빼니까 모든 것이 비워지는 것 같고, 허공 속에 부처님이 있는 것처럼 평온함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인순 씨는 "찌들었던 몸이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다. 누구나 따라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아서 너무 좋았고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시간 여 동안 진행된 짧은 야단법석이 끝나고 온천천 일대에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야외법회는 막을 내렸다.

부산 약사선원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거리포교를 진행한다. 매주 월·수·토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야외에서 티베트 오체투지의 법문을 연다. 월·수요일은 온천천 물놀이장 옆, 토요일은 해운대 장산 대천공원에서 진행한다.

한편, 부산 약사선원은 티베트 밀법을 전하는 사찰로 해운대 신도시에 위치해있다. 지난 6월 송정해수욕장 입구에 10층 규모로 무문관센터를 완공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가수행자들의 집중수행을 위해 개방할 계획이다.

박경수 지사장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생명나눔 · 중앙신도회 홍보제휴 협약



일면 스님(오른쪽)과 이기흥 회장(왼쪽)은 7월 23일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에서 홍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7월 23일 본부 회의실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한국불교 발전과 생명존중운동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일면 스님과 이기흥 회장은 7월 23일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자살예방 사업 등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홍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 실천을 목표로 하는 공통점으로 만나 힘을 합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와 생명나눔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불교가 다른 어떤 일 보다 생명나눔에 앞장서야 한다. 중앙신도회에서 먼저 솔선해야 불자들도 따를 것이라 생각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두 단체는 공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신도회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로의 사업과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이나은 기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고교생 템플스테이

서울노인복지센터 8월 11~13일 여름자원봉사캠프진행

어르신과 중 · 고등학생이 함께 사찰에 머무르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스님)는 8월 11~13일 여름자원봉사캠프 'TOP GOAL 人'을 개최한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진행되는 이번 여름자원봉사캠프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과 중 · 고등학생 40여명이 모여 바쁜 도심을 떠나 사찰에 머무르며 자신을 돌아보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첫째 날인 11일 에는 강원도 삼화사에서 진행된다. 역사에 관한 문화해설과 범종체험 및 저녁예불, 나를 깨우는 108배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추암해변 일출감상을 시작으로,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동해시노인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스님은 "이번 'TOP GOAL 人' 여름자원봉사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산사 체험을 통해 자기와 타인의 존재를 귀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 올바른 역할과 중요성을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며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6911-9512 이나은 기자

중림복지관 여름방학 아동 프로그램 실시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아동 경제 교육, 리더십 교육 등 아동들의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학 동안 어린이 리더십 교육 '나는야 global리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리더십 교육에서는 자기주장훈련학습, 리더십 교육 등이 진행된다.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4회기로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되며 프로그램을 수료한 아동에게는 리더십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준다.

희망어린이경제교육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 교육 '신나는 경제 놀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을 주제로 7월 23일에서 8월 13일까지 4회기를 진행한다. (02)362-3348

이나은 기자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법요집 발간

연화원 해성 스님 제작, 8월 11일 불교방송서 출판기념회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이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점자 법요집〉을 발간했다.

시각장애를 겪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음성으로 전해주어야만 가능했다. 그동안 몇몇 장애인 불자모임에서 점자로 된 불서와 법요집을 간행하기는 했지만, 널리 보급되지 않아 외워서 독경을 하는 등 시각장애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서울 광림사 주지)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법요집과 교리집을 발간해 장애인 포교에 박차를 가한다.

해성 스님은 "수많은 경전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있어도 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 점자법요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성 스님은 3년 전 시각장애인 법회를 열면서 점자 법요집과 교리집을 보급하기를 발원했다.

광림사에서 매주 청각장애인 법회를 열던 스님은 사찰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법회를 보던 한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법회를 볼 장소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청각 · 시각장애인 합동법회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법회를 진행하던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은 슬라이드와 법요집으로 법회가 진행 가능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옆에서 읽어주는 봉사자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부 외워서 독경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또 집에서 따로 독송을 하고 싶다는 신심이 깊은 불자들도 많았구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법요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해성 스님은 법요집 제작을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다. 자료를 찾다보니 점자로 된 법요집과 점자 불서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일반 도서에 비해 점자 도서는 제작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글반야심경〉을 제외한 한글로 된 〈천수경〉 〈관세음보살 보문품〉들의 내용이 통일 되지 않아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주변의 관심있는 불자들과 보덕학회의 재정적 후원과 불교신행 연구원이 법요집과 교리집 발간에 필요한 원고를 제공하는 덕분에 〈점자 법요집〉이 완성될 수 있었다.

〈점자 법요집〉과 교리집은 △예불문(오분향례) △천수경 △한글 천수경 △반야심경 △한글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 관세음보살 보문품 △아미타경 등을 비롯해 △각단 예불문 △무상게 △쾌유발원문 △호스피스(임종) 환자를 위한 기도문 △108참회문 등이 수록돼 있다.

해성 스님은 점자 법요집과 교리집을 700부 인쇄했으며,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인단체, 맹인학교,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법요집이 필요한 불자들에게 배송할 계획이다.

스님은 점자 법요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요집과 불교서적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음성녹음을 통한 불서보급도 준비하고 있다.

"전국에는 점자도서관이 10여개가 있으나, 점자로 된 불교서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맹인학교도 이웃종교계에서 설립한 것이어서 불교서적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지장경〉 〈법화경〉 등 경전과 쉽게 읽을 수 있는 점자 불서를 기회가 되는대로 만들어 배포하고 싶습니다. 또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과 같은 유익한 불서들을 녹음해 배포하고 싶습니다."

한편 해성 스님은 법요집 발간을 기념해 8월 11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시각장애인 점자 불교법요집 및 교리집 출판기념회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스님은 이곳에서 청각장애인가족과 우쿨렐레 연주도 직접 선보인다.

해성 스님은 "점자 법요집과 교리집을 계기로 시각장애인들이 생활속에서 기도를 실천해 소원성취하고 불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핵 없는 세상, 희망의 미래로

합천 평화의 집, 8월 5~6일 '2013 합천비핵평화대회' 개최



'2013 합천비핵평화대회' 포스터

핵과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핵 · 평화대회가 열린다.

합천 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은 8월 5~6일 경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제2회 2013 합천 비핵 · 평화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핵 없는 세상, 희망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와 (사)위드아시아가 주관하고 합천평화의집이 주최한다.

행사에서는 △세계피폭자사진전 △비핵 · 평화 영화상영회 △평화한마당 △원폭특별법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핵없는 세상-청소년이 꿈꾸는 평화제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과 함께 68주기 한국인 원폭희생자 추모제도 열릴 예정이다.

5일 열리는 세계피폭자사진전에서는 일본의 6명의 작가들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일본인 원폭피해자, 비키니섬 피폭자, 체르노빌 핵사고 피해자 이라크 열화우라늄탄 피폭자, 호주 우라늄광산 피폭자 등 전 세계의 핵 피해자들을 촬영, 세계의 피폭 희생자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냈다.

6일에는 '원자폭탄 피해의 실상과 법적 · 사회적 해결을 위해'라는 타이틀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와 정책현황 및 해결과제'(김기진, 부산일보 편집부국장) △방사선 피폭의 장기적인 건강 피해(김익중, 동국대 의과대 교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전은옥,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 추진연대회의 사무국장) △원폭의 기억, 평화교육의 과제(전진성, 부산교대 교수) 등의 주제로 핵과 방사능의 위험성과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합천 평화의 집은 "피폭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있어 국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복지 지원이 미비한 현실에서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피폭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평화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사)대원불교조계종

봉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기원 수륙대재' 행

부처님의 진리를 홍포하여 평화로운 불국정토의 구현이 본 종단의 사명임을 알고 정법구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범종단이 함께하는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기원 수륙대재'를 성대하게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단을 불문하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3년 9월 29일 (음력 8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장 소 : 삼천포 대교 바닷가 야외무대 (경남 사천시 대방동 681-9)
문 의 : 010-3565-2462 총무원장 / 055)364-4747 종정실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한국불교사 개척한 선구자

불교사학자 김상현 교수 별세
7월 21일 동국대 병원서…심근경색 원인



한국 불교사상 연구의 대가인 김상현 동국대 교수가 향년 66세의 나이로 7월 21일 오전 8시 30분 별세했다.

탁월한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퇴임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던 김 교수의 갑작스런 소식에 학계와 불교계에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김 교수는 최근 가슴이 답답해 검사를 위해 17일 동국대 일산병원을 찾았으며 오전 검사 후 병원에 머물던 중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세연을 다했다.

김상현 교수는 1965년 효당 스님의 제자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불교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김 교수는 경상대,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한국불교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국대와 한국교원대 교수를 거쳐 1997년 동국대 사학과 교수로 부임, 올해 2월 말 정년 퇴임할 때까지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삼국유사 연구의 권위자로 김 교수는 신라불교사, 삼국유사, 조선불교사, 사찰연구, 한국 차문화사, 근현대 인물연구 등 고대와 근대를 넘나들며 120여편의 논문과 20여권의 책을 집필하며 학계를 이끌어 왔다.

특히 원효와 의상 연구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 1994년 출간한 〈역사로 읽는 원효〉는 지금까지 원효 연구 성과를 반영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최고의 입문서로 꼽힌다. 또

삼국유사·원효 연구에 큰 업적
원효 관련자료 일본서 발견 공개
고대~근대 논문 120편 저서 20권

2000년 출간한 〈원효연구〉는 '원효학도들의 필독서'로 불릴 정도다. 김상현 교수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원효 관련 자료를 일본 등 외국에서 발견해 국내에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주요 논문과 저서는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1991년), 〈신라의 사상과 문화〉(1999년), 〈역주 삼국유사〉(2003년),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2005년), 〈8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상〉(2011년), 〈화엄경문답을 둘러싼 제문제〉(2012년)가 있으며 다양한 활동에 2000년 뇌허불교학술상, 2001년 차문화학술상, 2006년 일연학술상 등을 받았기도 했다.

올해 2월 정년퇴임한 김상현 교수는 퇴임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해왔으며 한국불교사 집필활동과 논문 발표 등 학술활동을 이어왔다. 가장 최근인 7월 초에는 불이상 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용표 한국불교학회 회장은 "신라불교사 분야에서 사학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등 불교학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였다"며 "학계 원로로서 정년하실 때까지 논문을 쓰시는 등 후배교수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대학 시절 김 교수에게 지도받은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도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이렇게 가셔서 안타깝다"며 "연구과제가 있으면 경주 등 전국을 적극적으로 다니셨다. 불교계와 신라사를 비롯한 학계의 큰 별이 가셨다"고 말했다.

〈추모사 31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만해와 간디, 독립운동 지향점 다르다"

김종인 경희대 교수, 제13회 만해학회 세미나에서

"만해와 간디는 현대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두 사상가의 모습에서 현대화된 한국과 전통문화에 기반한 인도의 현재 모습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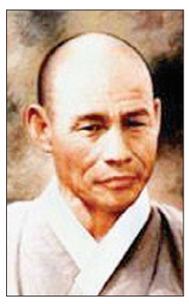
한국과 인도의 독립운동 및 민족 지성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만해 스님과 간디를 비교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7월 26일 서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13회 만해학회세미나에서 '만해와 간디' 주제발표를 통해 두 인물을 비교고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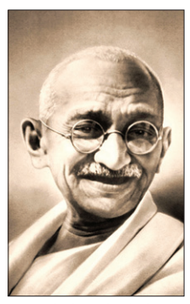
이날 김 교수는 "만해와 간디, 모두 양국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지면 그 내면과 지향점을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차이는 만해와 간디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두 나라의 현재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만해와 간디는 민족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종교사상가였다"며 "특히 두 사상가가 모두 불교정신을 사상에 담았는데 간디는 어릴 때 영향을 받은 자이나교와 힌두교에 사상 근간을 삼았지만 불교사상 또한 아울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만해와 간디가 어려서부터 전통문화 속에 자랐으며 각각 불교와 자이나교에 영향을 받은 유년시절 환경의



만해 한용운



마하트마 간디

만해, 불교·사회 현대화 꿈 꿔
간디, 전통문화 회귀와 종교적 삶

유사성이 근대문명을 접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김 교수는 두 인물이 근대문화를 접하며 수용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각기 다른 사상전개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해는 1903년 시베리아에서 서구문명을 접하고 다시 30세에 현대문명을 배우기 위해 일본 시찰을 떠난다. 간디는 1888년 영국 런던에 유학하며 현대문명을 경험한다"며 "만해는 현대문명을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불교사상과 대중의 인식이 현대화 하기를 바랬지만 간디는 윤리에 기초한 종교진리가 모든 영역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믿었으며 정교분리 조차 부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반된 가치를 부여함에서도 이들은 각각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현대화 사고와 인도인들의 전통에 대한 사고를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해사상, 정신분석 등 다각도 고찰

이에 대해 앞서 '만해 사상과 현대사조'를 발표한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만해가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등의 불교에 대한 기고문을 분석한 결과 만해가 국내불교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불교 동향에도 이해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며 "만해가 각국의 불교사상가, 철학가 등에 영향을 받은 점이 보다 깊에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해학회세미나에서는 이승훈 한양대 명예교수의 '하이데거와 만해',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탈식민주의자로서 만해 한용운의 사상 읽기', 김종주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라깡의 정신분석으로 본 만해', 전형철 서울여대 초빙교수의 '들뢰즈와 만해의 님의 침묵', 백원기 동방대 교수의 '서구 초현실주의 시와 만해의 시'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문화재소식

월정사·한국불교학회 공동 여름워크숍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첫 번째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오대산 적멸보궁과 사리신앙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8월 19~20일 공동 여름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적멸보궁 일대에서 진행되는 여름워크숍은 19일 입재식에 이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탄허스님과 오대산'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고영섭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제1부 세미나가 진행된다. 1부에서는 △자현스님의 '자장과 오대산 개창' △남무희 국민대 교수의 '자장과 한국불교의 보궁' △장미란 동국대 교수의 '한국 사리신앙의 중국적 전래와 특징'이 전개된다.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장성재 동국대 교수의 '한국 보궁의 변천과 사상' △이원재 동국대 교수의 '중대 적멸보궁의 역사' △원혜영 고려대 연구원의 '사리의 정의와 사리숭배'가 발표된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2018 동계올림픽은 인류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자 축제라"라며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 오대산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는 충분한 타당성과 의의를 갖는다"고 의미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이밖에 사물울림, 아침·저녁예불, 불교요가 실수, 108 참회, 전나무 숲 걷기 명상, 적멸보궁 순례, 오대산 사고 순례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종파불교 성립' 국제학술대회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7월 24일 논산 금강대 본관 사이버강의실에서 제6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파불교 성립기의 중국의 불교사상'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중·일 학자들이 5~7세기 중국 종파불교 성립기의 불교사상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사상의 맥락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유진 금강대 교수의 '육조시기의 판교사상', 리스롱(李四?) 북경대 교수의 '지론사와 북방불교', 셩카이(聖?) 청화대 교수의 '지론학파 남북도 신탐', 왕송(王?) 북경대 교수의 '종파의미의 재정립의 필요성', 요시다 에레이(吉田叡禮) 하나조노대 교수의 '선종사상 확립의 태동기로서 바라본 하택신회의 사상', 린쩐궈(林?國)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의 '혜소의 양론', 장규언 금강대 교수의 '원측 무성유정론의 모호성과 해석학적 곤경'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조선 불화 '쌍림열반상' 500년 만에 귀환

군산 동국사, 7월 31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공개

일본에 약탈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불화가 500여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16세기(서기 100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불화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을 7월 31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조선 불화는 부처가 열반에 들자 사리비가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쌍림열반상으로 가로형 탱화로 알려져 있다. 조선 불화는 일본 옥션에서 경매로 입수했으며, 일본세관과 주일 한국대사관, JAL 항공사의 도움으로 비즈니스 특별석에 안치해 25일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동국사는 조선 불화 함께 와다나베 카잔의 조선통신사 가옥수리도와 이인문 산수도, 김옥균 행서 칠언절구, 의친왕 이강 행서 칠언절구 등 4점도 공개한다.

한편, 전북 군산시 금광동에 소재한 동국사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지어져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2003년 대웅전이 등록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한국선학〉 제35호 원고 모집

한국선학회는 오는 8월 31일 출간될 〈한국선학〉 제35호에 수록될 원고를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선 관련 수행사상 역사 문학 어학 문화 예술 관련 논문이다. 신청자는 한글(영문) 성명과 소속 직위 연락처 주소 등을 ananda@yonsei.ac.kr로 접수. 한글요약 우선 접수도 가능하다. (02)2123-2400

노덕현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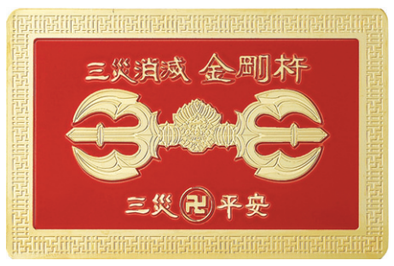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여름, 산사로 가자…청소년 프로그램 다채”

‘청소년 마음등불’ 명상캠프 여름 생태학교 눈길


지난해 백양사에서 진행된 숲환경캠프에서 해설자의 설명을 듣는 아이들

백양사, 8월 2~4일 캠프
금산사, 8월 12~14일 여름학교
불교환경, 여름생태학교 진행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광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명상캠프와 생태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이 지난 6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마음등불’ 불교명상캠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명상캠프가 8월 2~4일까지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개최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교원이 진행하는 명상캠프는 그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광주 연화사에 위치한 **광주비로자나명상센터**(센터장 정명)에서 주최하는 이번 명상캠프에는 한국명상상담학회 전문 강사들에 의해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명상을 통한 소통과 대화방법들이 제시된다.

특히 이번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에니어그램 검사, 성격유형별 특징 이해하기, 안전한 공간만들기, 바디 스캔, 마음 작동 모델 설명, 불편한 경험탐색하기, 명상과 호흡, 오감명상, 수식관, 영상관법, 소통의 대화법,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호흡과 마음의 안정을 체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감정과 생각의 변화들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행사를 준비하는 있는 정명 스님은 “이번 명상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명상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자신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비로자나명상센터는 매월 4주 토·일요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치료사 3급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꾸준한 관심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들이 자연도 느끼고 전통문화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2~4일 지리산 화엄사에서 ‘지리산 숲속 친구들아 안녕!’ 이란 주제로 제12회 어린이여름생태학교를 개최한다.

환경부, 광주광역시가 후원하고 청소년 공동체 나무숲에서 주관하는 이번 생태학교에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행사에는 화엄사 알기, 지리산 숲길걷기,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체험, 예불(108배 절명상), 공동체놀이, 기후변화 알기, 부모은중경 독송, 만들기(향주머니, 머리띠), 노래와 율동, 계곡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답게 숲길걷기, 체험, 기후변화 알기, 자연식 먹거리 제공 등 다양한 환경관련 프로그램이진행된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임수연 사무처장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우리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특히 생태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하고 기후변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태학교에는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게임기와 휴대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탄산음료·과자 등을 대신해 떡·과일·옥수수 등 건강한 먹거리를 간식으로 제공한다. 참가한 아이들은 전원 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또한 8월 12~14일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여름불교학교는 맨발걷기 명상, 별자리 탐험, 색모래 만다라, 한글 주련쓰기 등의 색다른 체험활동과 스님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부모은중경 사경과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 놀이와 체험이 함께 접목된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북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는 7월 28~29일 진안 마이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여름캠프를 개최했으며 **전주 참좋은 우리절**(주지 회일)도 26~29일까지 ‘어린이 여름불교문화캠프’를 개최했다.

참가학생들은 전통문화유산반, 생명평화 먹거리반, 생명평화대화반, 대체에너지반, 평화통일반등의 분반활동을 통해 먹거리와 생명평화의 관계,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쌓고 진정한 생명평화에 대한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남곡당 윤명대선사 30주기 추모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7월 25일 선운사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에는 남곡 스님의 문손 재곤, 재석, 재정, 재진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100여 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남곡문도를 대표해 재곤 스님은 추모재에 참석한 대중들에 감사를 표하고 “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곡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은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남곡 스님은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1966년 초대 선운사 주지를 맡아 선운사와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납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한편, 선운사는 25일 지장보궁에서 35차 교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종단의 현안과 관련해 총림설치와 교구별 원로위원추천에 관해 토의했다. 또 교구 현안과 관련해 고창군 뉴타운 불사 진행보고, 승려노후수행마을 추진현황, 고창복지관 운영현황, 불학승가대학원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선운사 녹차밭 관리와 내장사 대웅전 복원 진행에 대해 토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광태 백양사 신도회장 취임

“서옹 큰스님께서 주창하신 참사람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7월 22일 김광태 신도회장(한진레미콘 대표이사, 53·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백양사 신도 대중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도량이었던 백양사의 가풍을 이어가 많은 대중들이 수행할 수 있는 중심사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자”고 다짐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취임한 김 신도회장은 “우리의 지혜와 원력을 하나로 모아 10년 후의 백양사, 100년 후의 백양사의 미래상을 그려놓고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신도회장은 “백양사 신도회가 지혜와 광명, 자비실천의 밝은 등불을 높이 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지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백양사는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많은 총림 대중들이 마음과 실천을 통해 수행도량의 가풍을 이어가고 있다”며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에서 적극적인 마음을 모아 불법을 실천하는 백양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조선대 부속고와 제주대를 졸업했으며 전남대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KBC광주방송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며 국제로타리 3710지구 차기총재(2014~2015)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증심사 명사초청법회 강연 높은 호응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7월 22일 증심사 취백루에서 강남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을 강사로 명사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진화 스님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자’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신앙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했다.

봉은사 주지 이후 첫 외부강연을 한 진화 스님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야 그동안 발버둥 쳤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며 “진정한 자신의 것이란, 평생에 했던 공부와 남에게 배풀면 살아온 삶이 진정한 자신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수처작주(隨處作主)가 곧 그대로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는 말처럼, 어는 곳에서나 주인으로 살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삶을 주체적·창의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진화 스님, 연광 스님, 지용현 광주전남신도회장, 강기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증심사는 진화 스님 강연에 이어 8월 30일 진오 스님(구미 대둔사 주지), 9월 28일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10월 19일 방송인 김혜옥 씨, 11월 각묵 스님(초기불전 연구원) 등이 강사로 참여해 법회를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문화연구원, 전주 연꽃문화제 개최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시민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전주 연꽃문화제가 7월 20~21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개최됐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원행, 금산사 주지)가 주최하고 전북사암승가회가 후원한 연꽃문화제는 연 향기 가득한 특설무대에서의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연꽃문화제에서는 가족단위의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불교 O X 퀴즈, 즉석노래자랑 에버그린 오케스트라 공연, 퓨전국악 난타공연과 가수 낭궁옥분의 공연이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전회 스님들은 용왕제를 봉행하며 전북도민들과 전주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또 각 체험부스에서는 투호, 굴렁쇠 돌리기등의 민속놀이 한마당과 연꽃 만들기, 다도체험, 사경, 풍선아트, 염주만들기, 소원지 작성 등의 불교문화와 다양한 우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금산사 부주지 성우 스님 등 전북사암승가회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진호 도의장, 송하진 전주시장, 이상직 민주당국회의원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연꽃문화제 개막을 축하했다.



전북사암승가회장 원행 스님은 “연꽃은 항상 청정하여 중도를 지킨다는 꽃중의 군자다”며 “전북도민들과 국민모두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워지고 상생과 화합이 어우러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연꽃문화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둘째날에는 특설무대에서 연꽃가요제와 버블매직쇼, 무형문화재 법우스님의 특별공연과 밸리댄스공연등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 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불교-가톨릭 만나 새 지역문화 펼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성장 템플스테이'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한바탕 벌어진 물놀이로 신이난 청소년들의 표정들이 마냥 해맑다. 흐뭇한 웃음으로 쳐다보는 대정 스님, 윤희동 신부, 김엠마누엘 수녀의 모습은 낯선 듯 낯설지 않게 한 폭의 그림을 만들었다.

불교와 가톨릭이 손을 잡고 부산,경남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두 함께 Grow-Up 성장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25일~26일 홍법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연 것이다.

한화 S&C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불교와 가톨릭이 종교간 벽을 허물고, 사회통합과 공동선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입시경쟁, 학교폭력, 스마트폰, 게임중독 등에서 벗어나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은 물론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며 "불교, 가톨릭 혹은 기업, 지역사찰이 함께해 종교간 문화의 벽을 넘어 화합과 사회통합이라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김지인 학생은 " '아빠 어디가'에서 템플스테이 하는 것을 봤어요. 무척 궁금했는데 해보니 낯설지만 재밌어요. 발우공양은 좀 지저분하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가톨릭 시설 공부방 어린이
홍법사 1박 2일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체험 등 '흥미진진'
내원정사 · 범어사도 진행

며 소감을 전했다.

빛둘레 지역아동센타장 김엠마누엘 수녀는 "아이들의 가장 큰 숙제는 발우공양과 108배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행히 108배가 없고, 발우공양 체험을 의외로 진지하고도 흥미롭게 도전해 보는 눈빛들을 보니 기특했다"며 함박웃음을 머금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25일~26일 홍법사에서 부산경남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두 함께 Grow-Up 성장 템플스테이 행사를 진행했다.

'모두함께 Grow-Up' 템플스테이는 부산 홍법사를 시작으로 △내원정사 8월5일~6일, 8월7일~8일 총 2회 △범어사 8월13일~14일 등 연속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가톨릭 복지시설의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 12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지역사찰이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진행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나눔통로… 함께 행복"

7월 25일 삼광사 힐링광장 출범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는 7월 25일 지관전에서 찾아가는 자비나눔 봉사단체인 '힐링광장'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무원 스님을 비롯, 이헌승 신도회장 김석조 시의회의장, 이영활 부시장 등 시민불자 1천여명이 함께 했다.

힐링광장 상임대표로 추대 된 무원 스님은 "말과 행과 마음으로 각자가 가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어려운 이들을 찾아 돕고, 꿈과 희망을 나눈다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라며 "힐링광장이 앞장서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이헌승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힐링광장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도움과 나눔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광사는 2013년 2월 1일부로 힐링사찰을 선포 다문화 가족돕기, 세계종교평화운동, 무료급식지원, 힐링색소폰합주단, 시민들을 위한 문화특강 등 대사회 운동을 펼쳐왔다.

각 계의 요청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 단위가 바로 '힐링광장'이다. 새로이 출범한 힐링광장은 각 분야별로 도움을 주는 순수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문화, 예술, 법률, 다문화, 실버,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국제, 긴급구호 활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집단과 일반 회원들이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 삼광사는 7월 25일 자비나눔 봉사단체 '힐링광장' 출범식을 개최했다.

"평화와 상생 이끄는 감동의 행사 만들자"

한반도평화대회 행사개요 발표

9월 27일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의 본대회 윤곽이 드러났다.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봉행위원장 자승, 상임운영위원장 수불)는 지난 7월 23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한반도평화대회 본대회 행사개요를 브리핑했다. 본대회는 정전60주년이라는 시의성을 특화시켜 한국전쟁 참전 21개국을 상징하는 21개의 천으로 그라운드를 장식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이라는 대회의 취지와 불교의 세계관을 형상화한 18M의 대형 연꽃원형무대를 중심으로 총 63m의 대형무대로 장엄한다. 본대회 주행사장인 아시아드 경기장과 식전행사가 진행 될 UN기념공원을 생중계를 통해 공간적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출연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 성악가 폴 포츠, 인순이, 바비킴, 김건모 등이 참여하고 사회는 박칼린, 총감독은 국악인 김영동 씨가 맡았다.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은 "스님 불자들이 하나 되어 한반도 평화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반도 위기를 평화와 상생으로 이끄는 감동을 주는 대회로 이끌어 내자"고 전했다.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는 7월23일 범어사에서 본대회 행사개요를 브리핑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의 전선 지중화가 시급하다

사찰의 경관을 헤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얼기설기 얽혀있는 전선이나 통신선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든 전신주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상에 노출된 변압기나 고압개폐기는 태풍이 오면 문제를 일으켜 정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때문에 문화재를 보유한 많은 사찰에서는 이미 전선과 통신선 그리고 변압기나 고압개폐기 등을 지중화해서 지금은 경관적으로도, 정전이나 화재의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찰에서는 이러한 전기와 통신설비에 대한 지중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스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기나 통신설비에 대한 지중화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를 50%씩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문화재 보유사찰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관심은 있어도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해사찰에서 이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많은 예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전선과 통신선 그리고 전신주 등을 지중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중화작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어 전 국토가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고 다양한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중화를 위한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동안 생각만 가졌던 숙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선정하고 문화융성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한국문화의 융성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의 융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문화를 잘 지키려는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수많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사찰을 다양한 재해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문화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문화융성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올해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태풍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모든 사찰의 전선, 통신선의 지중화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의 전선, 통신선 및 전신주는 경관향상이나 재해예방차원에서 반드시 지중화해야 한다. 경상북도 ○사찰

碧巖錄
전 5권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신국판 | 145,000원(세트)



석지현 역주 해설본 《벽암록》의 특징
① 국내 최초 《벽암록》 완역 해설본!
② 수시 · 본칙 · 착어 · 평창 · 송 · 송착어 · 송평창을 모두 번역하고 해설한 책!
③ 벽암록 전문(全文)의 원문 수록과 현토 작업 완료!
④ 벽암록 네 개의 이본(異本) 대조!
⑤ 벽암록 100칙 공안 하나하나마다 활구(活句, 참구할 부분)와 사구(死句, 이해할 부분)를 일일이 구분하여 제시한 책!
⑥ 장장 10년에 걸친 역주 작업, 출판기간 3년!
⑦ 벽암록 속어 낱말사전 완성!

8월 초 출간 예정!
무비 스님의
《서장-이것이 간화선이다》
《벽암록》과 함께 간화선 교과서의 쌍벽이라 할 수 있는 《서장》, 무비 스님의 강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월 초 출간 예정! 예약판매 중.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더운 여름,
마음의 휴식을 주는 책을 선물하세요.



탄허 허공을 삼키다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 자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과 함께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스님의 친절한 해설
■ 보경 스님 지음 | 376쪽 | 15,000원 | 무선(신국판)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지혜와 자비를 열어준다.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 닿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불교경전 《숫타니파타》. 《숫타니파타》 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보경 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
■ 정승석 지음 | 232쪽 | 10,800원 | 무선(4×6판)
행복의 법칙! 무아 · 무심 · 하심, 나를 버리면 정말 행복해질까?
우리는 무지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바라는 강도가 셀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도 간단하다. 바라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다양한 실례를 들어 일깨워 주고 있다.

Tel. 02)732-2403~4 민족사

불교와 미학

동아시아 사찰 건축

열린 공간, 사찰 건물 배치의 묘미





불국사 회랑에서 극락전으로 넘어가는 길〈사진 왼쪽〉. 이렇게 사찰 건축은 안팎을 나누는 것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중 구성원이 모여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 큰방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다.〈사진 오른쪽〉

건축물은 나무나 돌, 시멘트,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물성을 갖는 사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부에 빈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텅 빈 공간에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건축물은 원래 하나였던 공간을 구분하여 안과 밖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내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 구조화한다.

서양의 건축물들은 그 견고한 물성으로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안전하고 항구적인 내부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과시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처럼 견고한 요새와 같이 자연의 위협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의 거주자를 보호하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건축물에서는 무엇보다 그 물성이 강조된다.

반면 동아시아의 건축물은 자신의 물성을 과시하기보다 안과 밖을 소통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춘다. 건축물은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내부의 거주자를 보호하는 시설물이기보다 안과 밖을 다시 연결시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준다. 사찰의 마당이나 누정은 안과 밖을 중첩시키고 소통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건축물은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보적인 존재로 화해시킨다.

일반적으로 종교건축의 형식은 종교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상징성을 강조한다. 내부 뿐 아니라 외형도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 기독교 교회 건축과 비잔틴 성당, 이슬람 모스크는 첨탑이나 돔과 같은 종교적 상징성을 갖는 구조물이 건축의 형식을 결정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종교적 상징성이 넘치는 장식물들이 건물 외벽을 장식한다. 주 건물과 달리 성직자들이 거주하는 부속건물은 소박하게 일반적인 건축물 양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성소인 주 건물과 성소가 아닌 부속건물은 확연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찰건축은 일반 건축과 마찬가지로 기둥, 보, 도리의 구조로 건축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종교적 상징성도 개입하지 않는다. 천장과 처마에 집중되는 장식적인 요소들 역시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지 않는 까닭에 외형적으로 일반 건축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세속 건축물인 궁전건축과 유사하다. 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승려들이 머무는 승방도 건축 형식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동아시아의 사찰 건축물의 기능과 위계는 그 건물의 위치와 다른 건물과의 관계, 그리고 내부 공간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대개 진입부에는 문, 창고, 객사 같은 부속건물이 위치하고 중간 구역에는 승려들이 생활하는 승방이 자리 잡는다. 최정상부는 불전과 기타 전각들이 있으며 사찰의 성격에 따라 선방이나 조사실, 산신각이 불전 뒤편에 위치하기도 한다.

사찰 공간의 분절과 연결은 단일한 건축물 내부의 분할이 아니라 ㄱ, ㄷ, ㅁ자 형태로 꺾이고 이어진 여러 건축물에 의해 형성된다. 사찰 진입부에서 불전이 위치한 정상부까지 이어지는 주축선은 공간적인 연속성과 상승감을 통하여 종교적인 깊이를 만들어내며, 주축선 좌우로 확장된 영역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공간을 만든다.

이런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전통 사찰 건축은 종교적 상징성보다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다. 사찰 건축물은 불전이든 승방이든 부속건물이든 큰 차이가 없으며, 공동체의 성원뿐 아니라 외부의 내방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깊은 산중에 위치했지만 전통 사찰도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지 않다. 예불 공간은 불교적 상징 질서에 따른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승려들의 생활 영역은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중정으로 연결된 공간 구성은 일정 정도 외부의 불청객의 방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닫힌 공간이면서도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또한 예불 공간이나 그 밖의 다른 영역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내방객의 출입도 허용된다. 따라서 재가신도들이 시주물을 전달하거나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승방을 출입하는 것이 차단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님들의 생활과 수행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찰 건축구조는 승가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탁마하고 경책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바로 그 기초에 불교의 율장정신이 있다.

율장에는 승려들이 승방 안에 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원이 탁발이 용이하도록 도심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재가신도들이 승원을 방문하는 일도 잦았다. 그들은 스님들에게 드릴 공양을 가지고 오거나 여러 가지 시주물을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승원을 방문하여 스님들의 생활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재가신도들의 자유로운 승원 출입이 거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승방의 문을 닫지 말라는 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제정한 이유를 짐작해본다면, 아마도 출가자든 재가자든 사부대중이 자유롭고 격의 없이 소통하고 서로 지킴이가 될 때 승단의 청정이 유지되리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열린 승가만 청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뿐 아니라 사찰 건축물들은 대중 스님들 사이의 위계를 강요하기보다 친밀한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사찰 건축의 내부 공간은 다의적이며 변용의 폭이 매우 넓은데, 이와 같은 가변성은 기둥, 보, 도리로 이루어진 간(間) 구조 덕분이다. 간(間)의 크기는 두 개의 기둥 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라지며 간들로 구성된 건물의 내부 공간을 어떻게 구획하고 무엇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성격, 즉 불당인지, 선방인지, 개인 방사인지가 결정된다.

서양 건축물 안팎 구분
항구적 내부 공간 역할

東亞 사찰 건축 소통 중시
인간 · 자연 상보적 존재로 화해
間 구조로 열린 공간 지향
변용성, 공동체 생활 가능케 해

간(間)은 건물의 내부공간을 단일한 단위로 구획한다. 따라서 내부 공간은 단순하고 일관된 공간성을 얻게 되는데, 그에 따라 공간의 다양한 쓰임도 가능해진다. 불단을 설치하고 불상을 안치하면 불당이 되고, 바닥에 좌복을 깔고 참선을 하면 선방이 되고, 발우를 펴고 공양을 하면 식당이 되고, 침구를 펼치면 침실이 된다.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옥의 이와 같은 가변성은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으로서 최근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스님들이 대방 또는 대중방의 가변성은 매우 크다. 대방은 내부 공간을 나누지 않고 그때그때 대중스님들이 모여 예불과 공양, 강학과 참선, 포살과 자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인법당의 경우, 한 면에 불상을 모시거나 불화를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행하기도 하고 의례를 집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대방은 완전히 텅 비어야 있어야 한다. 좌복이나 이불 같은 물건들을 벽장에 넣고, 발우는 시렁에 놓아둔다. 또 횃대에 가사와 장삼을 걸어 대방의 바닥면 뿐 아니라 벽면이나 문에 아무 걸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단순한 공간은 선(禪)의 단순성과 맞닿아 있다.

대방은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하나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모든 장식을 없앤 단순하고 절제된 공간은 조촐하고 소박한 선승들이 무소유를 실천하고, 대중과 탁마하고 경책하는 가운데 무아를 체험한다. 날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나고 부처와 함께 잠드는 가운데 도를 판가름하는 선불장이 된다.

그런데 최근 건설되고 있는 도심사찰에서는 승려들의 위한 대방보다 독방이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대방이 사라지는 만큼 사부대중이 서로 탁마하고 경책하는 대중정신도 사라지고 있다.

공간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성격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옥은 그 친환경성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한옥에서 살려면 먼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공간 구성은 전혀 다른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서울에 살던 스님이 시골 절에 와서 살았다. 외출을 하려다가 말고 불평을 터트렸다. "이 미닫이문을 어떻게 잠가야 해요?" 시골 스님이 대답했다. "뭔 보물이 있다고 잠그고 다녀요!" 시골 절에 살던 스님이 서울에 왔다. 습관대로 문을 열어두고 외출했다. 서울 스님이 말했다. "문 좀 잠그고 다녀요! 어제 옆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

잠금장치 하나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사회를 잘 보여준다. 전통 한옥은 문을 안에서 잠그게 되어 있다. 전통 한옥의 빗장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 집에 항상 사람이 있거나 집을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거는 잠금장치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대식 잠금장치는 외부에서도 잠글 수 있고 내부에서도 잠글 수 있다. 집이든 재산이든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대식 잠금장치가 필요한 사회는 집에서는 숙식만 해결하고 외출을 자주 하며, 그럴 때 남의 물건이나 생명을 노리는 나쁜 사람이 많은 사회인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한옥보다는 단단하게 잠글 수 있는 요새 같은 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옥에 살고자 한다면 현대식 잠금장치를 달거나 옛날처럼 마을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도둑이 없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거나 숙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만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통 사찰의 건축적 가치 또한 단청의 화려함이나 처마의 곡선미보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건축의 아름다움은 외양보다 사람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 경전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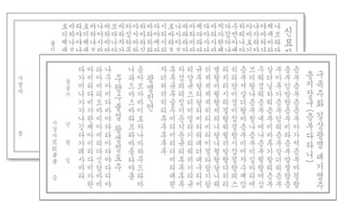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위패(대/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大30,000원 / 小27,000원 (100개)
할인가 大@270원 / 小@240원 (1000개이상)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 (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스님은 민중불교 운동의 정신적 지주”



方山老의 無影樹 〈23〉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여익구



故 여익구 前민주화 운동, 대불련 사무총장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여운형추모사업회 사무총장

대원암에서 민중불교 공부 모임
회칙 만든 후 출범전 안기부에 추적

스님, 새벽 2시 그날 강의 머릿속에 정리
탄허 스님에게 중용 · 대학 독강 공부
“바깥 경계에 끄달려 있는 이 멍충아”

-대원암에서의 활동을 들려주시지요.

그때가 1975년 3월 경이었지요. 그때부터 내가 대원암에 자주 가서 스님을 뵙고, 상의를 하고 그랬어요. 공부를 하는 정식 모임은 두 번 정도를 가졌고, 비공식 모임은 여러 번 있었지요. 왜냐 하면 모임 준비에 대한 것도 상의하고, 스님이 나를 파악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사기꾼인지, 소문으로는 빨갱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나는 조계종에서 스님은 저 분(탄허스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고은, 황석영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지요. 고은, 황석영 그 사람들도 불교 모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 사람들이 불교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것을 갈망했지요. 기독교 측에서는 그런 모임이 많았지만, 불교에는 없었거든요.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에 대한 바람과 우리들의 갈망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대원암 모임은 민중불교회라고도 합니다. 그 공부 모임을 민중불교회라고도 불러도 되나요?

그 모임을 주도한 나는 처음 시작할 때에 민중불교회 조직을 만들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민중불교를 공부하자고 그랬고, 우리 모임은 민중불교 공부 모임이라고만 하였지요. 민중불교회를 만들기 위한 회칙은 나하고 전재성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고준환도 참여한 것 같고. 가리방으로 긁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도 민중불교회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요. 그렇지만 그 회칙에 의거해서 정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안기부의 추적, 구속을 받아서 출발은 못했어요. 그 회칙은 안기부에 뺏기고 지금은 나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선생님은 그 후에 다솔사로 출가하였지요? 다솔사에 가서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다솔사에 가서 효당 스님에게 멱정(覓丁)이라는 이름을 받고 출가하였어요. 나는 그 멱정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멱자는 찾을 멱이어서 찾는 놈이라는 뜻이고, 정자는 주역에 나오는 것으로는 작은 촛불이라는 뜻이에요. 효당 스님이 너는 큰 불꽃은 못 되니, 세상을 밝히는 작은 불꽃이 되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년간 있으면서 효당 스님에게서 천태사교의, 반야심경, 원효에 대한 것을 배웠지요. 그 중에서도 나는 반야심경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갔어요. 효당 스님이 공(空)을 놓고 해석하는데, 공을 현대적으로 인식하면서, 그것도 역사의식으로 보시더라구요. 그러고 모택동의 우공이산(牛公移山)에 대한 이야기도 그곳에서 들었어요. 그때에 그곳에 효사라는 시인도 조금은 같이 있었고 채원화도 그때 거기에 있었어요. 효당 스님은 내가 지켜보니, 그 양반은 천재예요. 대처를 한 분이어서 그렇지, 참으로 아까운 분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내가 그 후에 탄허 스님을 찾아서 대원암으로 간 후에는, 효당 스님이 서울에 오면 가끔 대원암에 와서 탄허 스님과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사상이 무척 깊으시더군요. 그리고 탄허 스님과 정신적으로 교류가 있고 통하는 것이 있었어요. 두 분은 깊은 철학적 대화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대원암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그때부터 나는 스님의 시봉으로서 밥 나르고, 빨래하고, 목욕을 하시면 등을 밀어드리는 상좌가 되었지요. 그때 고대 출신인 최옥화(일초 스님)와 같이 시봉을 했어요. 그때 옥화에게 혼났지요. 스님과 한 방에서 잤는데, 스님은 새벽 두 시 경에 일어나셔서 참선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봉인 나도 일어나서 참선을 하지만 꾸벅꾸벅 졸다가 벽에 머리를 부닥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스님은 “젊은 사람은 혈기가 많으니 열을 식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잠을 더 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러신다고 잠을 잘 수 있나, 못 자죠. 그러면서 스님에게 정식으로 학문을 배웠어요. 나를 놓고 일대일로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그것은 스님이 나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그리하신 것 같아요. 그때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지금이야 느끼고 있지요. 나는 스님에게 사서삼경을 배웠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중용과 대학까지는 배웠어요. 그날 배운 것은 다음날 외워 바쳐야 했는데, 내 머리가 굳어 있었고 내가 학문에는 재주가 없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지요. 나의 그런 자질에 대해서 스님도 답답하셔서 책을 내 던지고 그러셨어요. 스님은 내가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너는 바깥 경계에 끄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안의 경계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사람이 튼튼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막 야단을 쳤어요, “이 멍충아”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절망했지요. 그래도 스님은 한 6개월을 끈기 있게 나를 가르쳤어요. 나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잘 안 되었어요. 나도 내가 한탄스러웠고 스스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때 내가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은 대학자가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월정사에 가서 지냈어요. 그때에 스님이 하신 것이 화엄회상, 화엄산림을 하셨지요. 거기에 내가 관여가 되었어요. 스님이 〈신화엄경합론〉을 펴내셨는데, 지금 원주 성불원에 있는 현각 스님이 그때 월정사 교무를 맡고 있었는데 현각 스님이 화엄회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나는 대원암 시절부터 현각 스님과는 친하게 지냈어요. 그 스님이 오대산 출신 가운데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순수해서 나는 그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통했어요. 현각 스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지만, 자신이 그것을 탄허 스님에게 말씀드리기는 거북하니 나보고 스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산굴에서 스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스님에게 OK를 받은 것이지요. 그랬더니 스님은 그때 주지를 맡고 있었던 희찬 스님과 상의를 해서 오대산 차원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하려면 오대산 조직이 동원되어야 하고, 많은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하려면 먹고 자고 지내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서 산중회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 결정하였어요. 그런 큰 불사를 하려면 각 말사 별로 담당도 해야 하고, 신도들의 후원도 받아야 하지요. 그렇게 돼서 그 불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는 그 불사가 성사되는 것을 보고 스님이 나를 깊게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화엄산림 불사가 잘 진행되었지요?

그렇지요. 탄허 스님이 화엄경 특강을 한다고 공고를 하니까 정말 눈밝은 스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더라구요. 200명 가깝게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공고, 행정적인 실무는 현각 스님이 교무담당이어서 거의 담당하였지요. 그때 스님이 강의하신 것은 화엄경, 능엄경, 주역선해였어요. 나는 그때 방산굴 스님의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학자 출신인 심백강도 방산굴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 분은 한문의 천재여서 스님이 그 사람을 학자로 대우해 주었어요. 스님은 두 시 기상, 새벽 네 시 예불, 새벽 다섯 시 강의, 아침 공양, 여덟 시부터 강의, 열한 시 점심 공양, 오후 한 시 강의, 다섯 시 저녁 공양, 여섯 시 저녁 예불, 일곱 시에 강의, 열 시에 취침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력적인 강행군이었어요. 하루에 열 시간을 분필 하나만 들고, 세 달 동안 강의를 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그때에 시중을 들다 보니까 스님은 새벽 두 시에 일어나셔서, 앉아서 뭔가를 중얼중얼 하시더라구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주력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추정하는데, 그날 강의하실 것을 강의 초안을 머리에서 미리 돌리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내가 모실 때에는, 평소에는 그냥 참선만 하시지 그렇게 중얼거리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서 테이프를 돌린 거예요. 하루에 열 시간을, 3개월 가깝게 그렇게 하셨지요.

-그 불사에 참여한, 강의를 들은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요?

강의를 들은 스님들은 전부 다 껌뻑 죽었지요. 대중들은 탄허 스님의 강의를 처음 들었던 것이지요. 직접 탄허 스님의 강의를 듣고서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에 대한 반응은 말로 다 못 해요. 표현하기 어렵지요. 특히 나는 제안한 당사자여서 기쁨이 더 했지요. 하여간에 나를 포함한 모든 대중이 환희에 젖었어요. 주역선해 같은 강의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동양사상을 회통한 그런 강의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조계종사에서도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때에 스님의 강의를 듣고서는 스님의 학문은 도저히 딸 수 없는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탄허 스님의 학문의 깊이에 감복하고,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수준이기에 그런 것에 따라가려는 생각을 포기하였지요. 거기에 온 중들도 그리 느끼지 않았을까 해요. 하여간에 대중들은 감격 일변도였어요. 내가 보기에 그런 정도의 회상을 다른 절에서는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스님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불사를 해낼 수 있는 후원과 조직력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오대산은 그것을 해냈어요. 그때 현각 스님이 그랬지요, 저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탄허 스님의 세대가 가면, 이 시대의 큰중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현각 스님의 그 말이 맞아요. 나는 현각 스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낸 것으로 봐요. 역사에 남을 일을 한 것이에요. 나로서는 현각 스님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고맙고, 나도 보람을 느꼈어요.

-화엄경 특강이 선생님의 인생에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로서는 그 불사가 민중불교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보는 것은 내가 스님을 민중불교의 최대 후원자로 보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나는 민중불교를 하면서 스님을 중심 역할로 모셨어요. 민중불교의 씨앗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때 오대산에 모인 스님들이 소장층이 많았는데, 그런 똑똑한 스님들이 한자리에 저절로 모이게 되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스님들을 만난 거지요. 해인사의 현응 스님, 연관 스님, 비구니 성일 스님, 통도사 정우스님도 만났지요. 정우스님은 그때에 동관음암 암주를 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그 스님과 친하게 지내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동관음암에 자주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지냈어요. 이런 스님들을 그 후에 내가 대불련 지도법사단을 할 때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얼마 후에 환속을 하고, 종단 개혁과 민중불교운동에 나섰지요?

그렇지요. 내가 세속에 인연이 생겨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에게 말씀을 드리니 스님은 “알았다, 이놈은 사주팔자대로 간다”고 하시고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스님 옆에서 스님의 사랑을 대단히 받았어요. 나는 1980년의 5 · 17이 나던 그날 구속을 당했어요. 5월 17일 열흘 후에 조계사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지만, 나는 보안사에 구속되어서 결혼식장에는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스님은 진노하시고는 스님이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노발대발하셨어요. 전창열이라고 그때 군법무관을 하면서 실세였던 사람, 그리고 보안대의 양근하를 불러서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예정보다 빨리 나와서 그해 가을에 대각사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대각사 법당에서 하였는데, 스님을 주례로 모시고 했어요. 대각사에서 한 것은 내 사건 이후로는 조계사에서 결혼식하는 것을 한동안은 정부에서 폐쇄시켜서 할 수 없었기에, 탄허 스님과 인연이 있었던 대각사의 도문 스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스님이 자신의 상좌였던 사람을 주례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스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스님은 내가 결혼한 이후에도 우리집에 몇 번을 찾아오셔서 나와 내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때에 내 큰딸이 스님의 무릎에 안기면 스님은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익구라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탄허 스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스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나는 봐요. 내 인생을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후기는 민중불교운동으로 시작됐고, 그래서 이름이 조금 나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런 후기 인생에서 민중불교운동을 하게 된 자산이라고 할까 자양분이 되신 것이 탄허 스님이었어요. 나는 그런 운동을 한 것을 불사에 기여하였다고 보지요. 이것을 내 입장에서 보면, 탄허 스님이 나의 미래를 예언한 대로 살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환속해서 대불련 사무총장을 하고, 그때에 대불련 지도법사단을 만들었을 때에 스님을 법사단의 증명법사로 모셨어요. 이런 것은 대불련 자료에도 나와요. 그리고 내가 대불련의 간부들을 몰고 스님에게 가면 스님은 매번 격려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또 대불련 법사단의 법회를 조계사에서 하면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982년인가에 내가 주도한 종책 연구소, 한상범 교수가 만든 불교사회문화연구소의 법회에서도 스님이 나오셔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이럴 때에 스님은 한 번도 내 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전두환 정권 때에는 전국의 큰스님들이 말도 실체 안 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스님은 당신 상좌가 하는 일에 기꺼이 지원해 주었어요. 스님은 내가 가는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정신적 · 물질적 지원(법문)을 해주신 것이지요. 알게 모르게 후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스님은 대불련, 민불련의 보이지 않는 지주가 된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스님은 민중불교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원효 · 만해는 죽어 있는 정신적 지주였지만 스님은 현재 살아 있는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스님은 민중불교의 큰 자산이었지요. 물론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정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주장해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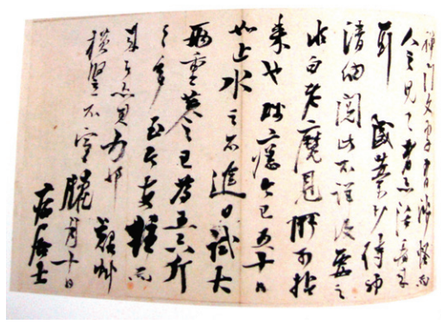
초의 편찬 〈진묵조사유적고〉 추사 고증

1842년 겨울, 전주 봉서사에서 김기종에게 진묵대사(1562~1633)의 내력을 들은 초의는 그 자료를 수습하여, 1847년 〈진묵조사유적고〉를 편찬한다. 조선의 효자로 칭송된 김기종은 추사와 교유했던 인물이다.

추사는 1855년 김복규와 그 아들 김기종의 효자 정려비(旌閭碑)를 썼는데, 초의는 추사의 소개로, 김기종과 교유했다. 〈〈완당전집〉〉〈여초의〉29신 및 〈영해타운첩〉, 〈나가묵연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초의가 〈진묵조사유적고〉를 편찬할 당시 정황을 드러낸 자료인데, 진묵의 행적을 제공하고, 이 유적고의 체재 및 서문을 일일이 고증한 것도 추사였음이 확인된다. 그의 병이 이미 오십일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이 편지는 대략 1843년 12월 10일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병석의 추사에게 초의의 편지와 차는 "이마를 적셔주는 감로"였다. 초의의 제자 상훈이 보내준 차 또한 향미가 뛰어났고, 좋은 차를 만들어 보내준 자흔과 향훈, 자신의 병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향훈에게 글씨를 써 보내겠다는 성의를 보였던 추사였다. 간절한 그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病枕連見禪緘 是一續慧命之神符 灌頂甘露 何以多乎 茶惠夬醒病胃 感切入髓 況際此沈頓之中耶 自欣向熏之各有遠貽 其意良厚 爲我代致款謝也 熏衲之另贈朴生之葉茶 恐不下於坡公廱茶芽 香味絶佳 幸更爲我再乞一包如何 當於病間 另以拙書爲雀環之報 並及此意於熏衲 而即圖之 泡醬儘佳 亦病舌之爽利者到底銘篆 震師行迹 玆以還去 依此行之 亦無妨矣 兩叙無可刪而原錄中 頗或有可商處 今此神精不接無以一一點正 此非一日之


〈나가묵연첩〉

"스님의 편지와 茶는 감로
병든 위 낫게 하니 감동 사무쳐"
초의 제자에게도 글씨 보답 약속

事 稍俟異日 更訂亦佳 依此行之亦佳 禪門文字有涉怪而人之見之者 亦活看來耳 盛藁少待神清細閱此不詳復 要之非白老魔見 所可拈來也 賤痒今已五十日 如止水之不進 日試大兩重蔘 已爲五六斤之多 至今支拄而來者 亦其力耶 艱草橫豎 不宣

병 중 침석에서 연이어 스님의 편지를 보니 이는 혜명을 이어가는 신부로, 이마를 적셔주는 감로도 어찌 이보다 낫다 하겠습니까. 보내주신 차는 병든 위를 말끔히 낫게 해 주니 감동이 뼈에 사무치게 간절합니다. 하물며 이런 침돈 속에서야 (보내 주신 차의)감동이 어찌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흔과 향훈도 각자 멀리까지 보내 주어 그 뜻이 진실로 두터우니 나를 위해 대신하여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훈 스님이 박생에게 별도로 보낸 엽차는 파공의 추아차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며, 향미가 뛰어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나를 위해 다시 한포를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병이 좀 웬만해지면 별도로 졸서로서 환작의 보답을 할 것이니 아울러 이 뜻을 훈 스님에게 알려주어 바로 도모하십시오.

포장도 매우 좋아 역시 병든 혀를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니 감명이 깊습니다. 진묵대사의 행적은 이편에 돌려보내니 이에 따라 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두 가지 서문은 삭제할 것이 없고, 원록 중에는 혹 생각해야 할 곳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지금 내 정신이 여기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일일이 정정할 수 없으며, 이는 하루에 해야 일은 아니니 차차 다른 날을 기다려서 다시 정정하는 것도 좋겠고, 이것대로 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문의 문자는 조금 이상한 데가 있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살려서 보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원고는 조금 정신이 맑아질 때를 기다려서 세세히 살펴 볼 것이니 여기에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컨대 백파 늙은이의 마견으로는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천한 이 몸의 병은 지금 이미 오십일이 되어 마치 멈춘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두 량 쯤 나가는 큰 인삼을 시험삼아 복용한 것이 이미 대여섯 근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 온 것도 인삼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사리 적고, 이만

12월 10일 병거사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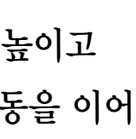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종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군포교는 밝은 사회 만드는 '씨 뿌리기'"

임기 마친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2012년 5월 2일 육군논산훈련소에서는 군포교 사상 최대 불사인 호국 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법회가 열렸다. 만 여명의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된 연무사 낙성을 보며 그 누구보다 흐뭇한 미소를 짓는 이가 있었다. 바로 조계종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이다.

1년이 지난 7월 26일 자광 스님은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에게 업무를 이관하고 군포교 일선에서 물러났다. 4년 동안 각종 군포교 사업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간 뒤에 찾아온 휴식이었다. 사실 자광 스님은 군종교구장을 지내며 지병을 얻었다. 고혈압과 당뇨, 심장 협심증으로 호국 연무사 불사를 하며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2012년에는 수술을 하기도 했다.

"출가하며 부처님께 중생을 건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 불사만큼은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광 스님은 평생을 포교사로 지냈다. 군법사로 25년간 포교활동 후 교도소 교정활동에 이어 다시 교구장으로 활동했다. 스님을 지난 7월 21일 군종교구가 위치한 서울 호국 원광사에서 만났다. 이날 자리는 스님의 환송법회가 진행된 날이기도 했다.

불사 동참해 준 대중에 감사할 따름

"이제 군포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완공 이후 법회에 교회보다 더 많은 장병들이 찾고 있어요. 호국 연무사에서 3500명 정원을 넘어 5000명 가까이 장병들이 매주 불법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광 스님 임기 동안 가장 큰 과제는 바로 1기 군종교구에서 의결된 호국 연무사 불사였다. 부임과 동시에 불사 추진의 짐을 지게 됐지만 스님은 연무사 불사는 군포교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의당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연무사 신축법당 불사 전에 논산훈련소 수계법회에 갈 때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장병들이 다 들어오지 못해 추운데 밖에서 서서 법회를 보기도 하고 목욕탕 의자를 놓고 빽빽이 쭈그려 앉아 법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당장 교회에만 가도 편한데 불교가 좋아서 온 아이들에게 이것밖에 못해주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다행히 총무원장 스님께서 그 중요성을 알고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호국연무사 불사는 그렇게 첫 삽을 떴다. 하지만 불사는 쉽지 않았다. 스님은 전국을 다니며 군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다.

"군포교, 청년포교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선뜻 자기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계 행사마다 가서 화주를 청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60만 장병이 있기에, 또 400여 법당을 누비는 법사들이 있기에 마음을 내고 또 냈어요."

호국 연무사 불사는 순탄치 않았다. 불사 초기 건설시행업체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미납금 문제 등으로 이자는 불어만 갔다. 주변 이들은 스님이 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고 귀띔했다. 결국 스님은 수술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스님이기에 스님은 전국을 누비며 화주를 권했다.

"28년 전 결혼식 때 받은 예물을 그대로 보내준 분과 아이 돌반지 상자를 보내준 분, 또 불편한 몸으로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 그 수당을 모아 보내준 분, 요양원에서 용돈을 모아 보내준 분 등 불사동참 때 마다 이 불사는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스님은 아직도 호국 연무사 낙성이 감격에 겨운 듯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포교현장에서 청년포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군에 와보세요. 군포교가 바로 청년포교입니다. 호국 연무사 불사는 그 바탕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불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정성으로 이뤄졌기에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법당에서 신명나게 불법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위법망구' 자세로 포교 길 걸어

자광 스님은 왜 군법사의 길을 걸었을까. 6·25한국전쟁 무렵 학창시절을 보낸 자광 스님은 고등학생이던 1959년 화엄사에서 출가했다.

"혼탁했던 시절 불교 가르침을 들으니 인생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출가해 행자생활을 시작했어요."

스님이 출가한 때 불교계에서는 정화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스님은 당시 총무원장이던 경산 스님을 시봉하며 조계사에서 생활했다. 스님은 중단했던 고등학교를 마치고,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던 중 동국대에 종비생 제도가 생겼다. 스님은 은사 스님이 '젊은 스님들이 새로운 학문을 접해야 한다'며 입학을 권유해 종비생 1기로 동국대에 입학했다.

군대 다녀왔는데 3기 군법사로 임관
군승실장 당시 군승TO 크게 늘려
'일당백' 군승 배출 위해 교육 강화
교구장 임기 중 연무사 불사 성료

불사 스트레스로 심장 수술 받기도
수천 장병들 "오계 받들겠습니다"
그 외침 속에 한국 불교 미래 있어

군포교와의 인연은 이때 만들어진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군승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대학을 마치고 선방에 들어가려는데, 군승으로 갈 스님이 부족하다며 입대를 요청받았습니다.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군대를 가라니 난감했어요."

결국 스님은 3기 군법사로 재입대했다. 초기 군포교 현실은 참담했다. 법회 장소가 없어 말 그대로 야단법석이었다. 천막을 치고 법회를 보았다. 사병식당, 창고 등에서 법회를 보기도 했다.

"불교는 이웃종교에 비해 늦게 군포교를 시작했어요. 그만큼 일선 군승 법사들이 죽을 각오로 포교했습니다. 인도 구법승의 '위법망구'의 자세였어요."

스님은 군법사로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스님의 군법사로서의 가장 큰 업적은 현재 군포교의 바탕이 된 군승 수를 확보한 것이었다.

군 내 종교인 수는 국방부에서 TO를 조정한다. 자광 스님은 국방부 군종실장으로 재직하며 군승 수를 크게 늘렸다. 당시 압도적이었던 군목의 수를 100명 가량 줄이고 군승을 140명으로 늘린 것이다.

"당시 군부대 종교현황 통계를 보면 개신교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먼저 포교를 시작한 것도 있지만 배정된 군목의 수는 잘못된 것이었죠. 군승수를 늘려야만 불교가 군내 포교의 바탕을 만들 수 있었어요."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 측을 설득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는 스님의 작은 인연이 큰



7월 21일 호국 원광사에서 열린 환송법회가 끝난뒤 군불총 장성들과 군법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자광 스님은 … 1959년 구례 화엄사에 입산해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196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종비생 1기로 졸업하고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한 스님은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했다. 1981년 육해공군 군승단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대령으로 승진, 3군 군종참모와 국방부 군종실장을 지냈다. 1995년 대령으로 예편하고 용인 반야선원을 창건해 수행하고 있다.

힘이 됐다.

"5사단 군종참모로 재직 중일 때였어요. 부대에 외부 교회의 지원이 끊겨 건립이 중단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군목과 함께 그 교회 원로목사를 찾아가 부대 내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을 위해 도와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스님이 교회를 짓겠다는 말에 원로목사는 어리둥절했다.

"스님이지만, 장병들을 위해 종교시설이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교회공사는 재개됐다. '불교'가 아닌 종교생활을 갈구하는 장병들을 먼저 생각하는 명분이 선 것이다.

군포교 성패가 불교 미래

호국 연무사라는 큰 불사를 앞두고 불교계가 군종교구 수장으로 자광 스님을 선택한 것은 스님의 이런 모습을 높게 샀기 때문이기도 했다.

군종교구 2기 동안에는 군포교는 군승 독신 조항 등이 도입되며 군승 수급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때 군종교구가 선택한 답은 군승 자질 향상이었다.

자광 스님은 군승들이 정식 임관에 앞서 자질과 소양을 익히는 과정인 입대 전 교육기간을 대폭 늘렸다. 본래 1주일이나 사나흘 만에 마치던 것을 12주로 진행하며 군승으로서의 역량 극대화에 매진했다. 의식집전, 법회 준비와 설법, 장병들과의 맞춤형 상담, 군(軍)과 군종교구의 행정과 직제에 대한 이해 등 스님이자 군인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교과목으로 세분화했으며 베테랑 군법사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후배들을 지도하게 했다.

"일당백의 군승을 배출하기 위해 예비교육 강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최근 임관 수료식에서 장관, 총장상 등 1,2,3등이 모두 군승에서 나왔어요. 이제 군승하면 종단에 어디에다 내놔도 포교 실력 면에서 제일가는 승단의 일원입니다."

아울러 비구니 스님들의 파송도 추진돼 2014년 1명이 파송될 예정이다.

많은 업적을 남겨두고 자광 스님은 이제 스님의 사찰인 용인 반야선원으로 돌아간다. 스님은 교도소, 경찰서 등에서 다시 포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제 고장난 몸을 좀 고치고 필요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중생교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동안 중생과 부딪치고 현장에서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곳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중생 앓고 있는 현장에서 같이 희로애락하며 공부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락을 같이한 군승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스님은 "스님들이 중생교화를 제일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참선도 좋지만 대중들의 삶 속에 수행도 있고 마음의 안정도 있다"며 스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군포교에 불자대중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자신도 군포교 현장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군대에 있더라도 2년이 있으면 사회인이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주인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을 부단히 개발해서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끝으로 수계법회를 비롯한 포교현장에서 장병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지금까지 스님을 이끌어 준 큰 힘이었다고 밝혔다.

"'오계를 받들겠습니까' 하면 수천명의 장병들이 '받들겠습니다' 고 외치는 감동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에서 성공 못하면 사회 어디서도 성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 기독교도 군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한명 한명의 관심이 군포교를 살립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2년 1월 신년 첫 수계법회에서 장병들에게 계를 내리는 자광 스님

전법일기

그래도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

조계종 청년출가학교

장마가 막 시작되던 6월 말, 간단한 짐을 챙겨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로 향했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길을 잡은 것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청년출가학교' 행사 진행 때문이다.

청년출가학교는 20대에게 출가자의 삶을 안내하고 출가가 새로운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출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8박9일동안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불교와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적 안목으로 사회를 통찰해 스스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형형색색의 옷을 벗고 회색 법복으로 갈아입은 40 여명의 청년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특히 흰고무신을 신고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차수한 모습은 말 그대로 '행자'다.

여타 수련대회하고는 눈빛부터 다른 것은 "출가"라고 하는 다짐 때문일 것이다. 참가 청년 중에는 이런 엄중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는 사람도 있었으니 진중한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도 잠깐이었다. 부처님 앞에 예경하는 법을 배우고 예불문을 합송하면서 무거웠던 분위기는 부처님을 향한 장엄한 예경과 찬탄으로 바뀌었고 참가 청년들의 행동거지도 서서히 달라졌다.

부처님 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참가 청년들은 하나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았다. 지도법사 스님과 자유롭게 상담하면서, 청년들은 그간 마음에 담아 놓았던 고민보따리를 풀어냈다. 보따리가 열릴수록 눈물샘도 함께 열렸다. 남학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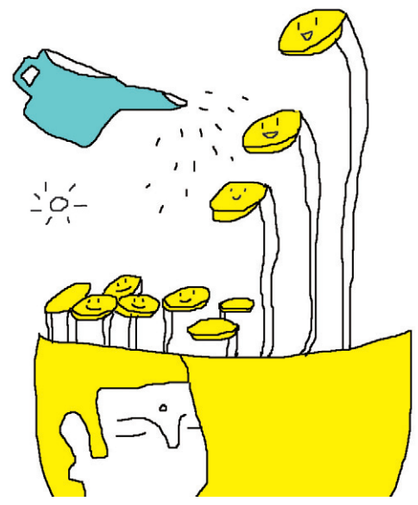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굵은 눈물을 쏟으며 털어놓은 이야기로 마음이 먹먹해져 어떻게 추스려야할지 상담자로서 난감하기도 했다. 어떤 참가는 예불할 때 '지심귀명례'만 나와도 눈물이 쏟아져 견딜 수 없다고도 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한 없이 눈물을 쏟아낼 때 당황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가득 채워지는 신심으로 환희로운 표정을 짓는 청년들이 있어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출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다.

요즘 종단 안팎으로 출가자 감소로 인한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3년 463명의 출가자가 2012년에는 203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특히 2003년에는 30세 미만의 출가자가 수계자의 절반이 넘던 것과 달리 2013년에는 30~40대 출가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서는 안된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인천의 사표가 돼 출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종단적 노력과 함께 출가공동체 전체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청년출가학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출가는 남의 일이 아닌, 새로운 삶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출가정신을 자신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승가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출가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닌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충만된 삶을 살고자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출가문화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출가문화를 경험한 청년들 중엔 수행자의 길에 접어든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출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행복의 기준들이 물질적 충족에서 나눔의 행복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배려와 존중의 삶으로 전환되어가는 것이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출가정신일 것이다.



가섭 스님(조계종 교육국장, 경기 오포 불국사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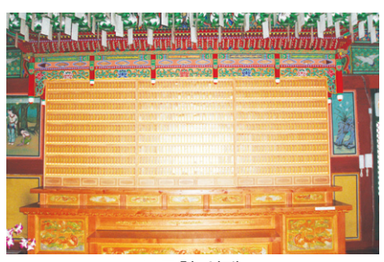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음과 성품 다르지 않아야 祖師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4⟩



범어사 주지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특별한 일을 논하지 않으셨다. 오직 일심(一心)만을 말했으며, 또한 일승(一乘)만을 말하셨다.

불조께선 오로지 근본실상만을 드러냈다. '일승'을 《법화경》 '방편품'에선 '일불승'이라고도 했다.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한다는 견지에서, 그 구제하는 교법은 오직 절대 진실한 하나뿐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시방을 두루 살펴보아도 다시 다른 승(乘)이 없나니,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대중들은 결가지와 잎이 아니라 모두 잘 익은 열매들뿐이로다.'고 말씀하셨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제자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함께 할 때, 안목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떨어졌다는 '일불승'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도 깨달은 눈으로 살펴야 그 본뜻과 계합하지, 범부의 안목으로 무조건 "법화경이 일불승이니까 최고다!" 하고 빠져서도 안 된다. 알음알이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이치를 밝혔다 하더라도, 임제가 얘기하는 3구 법문에 지나지 않는다. 3구 법문에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제도 못한다고 했다. 2구에서 깨달으면 인천의 스승이 될 만하지만, 그래도 결국 1구를 깨달아야지 불조를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힘을 가져야 비로소 일불승의 참뜻과 계합할 수 있다.

'마음이 곧 성품이다'는 말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줄인말
조사는 당당한 자유인 活祖

달마대사 '안심법문'으로
혜가의 심안 열어주고
"너는 나의 골수 얻었다"인가

마음은 경계 따라 나투니
나투는 곳마다 흔적이 없다
흐름따라 성품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유·무'를 초월하면
'제도'라는 말조차 허물

그러나 이 뜻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치를 가져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깨달음에 눈 떠서 실상을 믿을 수 있는 위신력을 지녔을 때, 비로소 믿고 말고 할 것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오셔서 양(梁)·위(魏) 두 나라에 머물렀다. 오직 혜가(慧可)스님 한 분만이 자기 마음을 묵묵히 믿고, 말끝에 문득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았다.

남인도 출신으로 중국에 건너와서 선종의 초조(初祖)가 되신 달마대사는 혜가(487~593)가 찾아오자, '안심법문'을 통해 심안을 열어주었다. 달마대사로부터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는 말을 들은 혜가는 선종 2조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법을 후대에 전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을 이름 하여 대도(大道)라고 한다.

도는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것을 억지로 이름 하여 도라고 명명했을 뿐이다. 그 입장에서 비롯되어진 모든 것은 다 그림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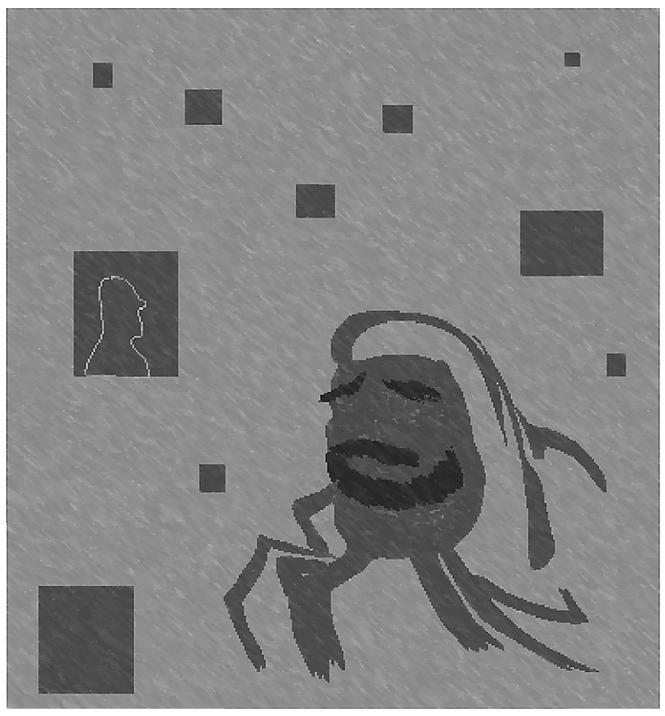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대도는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 성품으로 같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한다.

본래 평등이란 상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절대 평등을 말한다. 과거 · 현재 · 미래에 관계없이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쓰는 그 입장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체 중생은 성품 하나로 반연되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성품을 여의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변화한 그림자는 그렇다고 하고, 변화하기 이전의 실상자리, 그 성품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 둘 아닌 성품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된다. 둘 아닌 성품을 완벽하게 자각한 그런 입장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이름 하여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다.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에서, "이입(理入)이란 모든 생명체의 동일 진성(眞性)을 깊이 믿는 것이며, 이 진성이 번뇌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고 말했다.

마음과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나니, 성품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 조사(祖師)라고 한다.

'성품이 곧 마음이다[即性即心]'는 말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줄인 것이다.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게 하는 것이 선종의 기본입장으로, 당장 마음이 성품과 다름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사가 되는 것이다. 이 조사는 '활조(活祖)'로서, 지금 이 자리에 활발히 살아서 당당한 자유인이다. 임제는 "그대들의 마음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을 일러 활조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심성(心性)을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라고 하였다."

이것은 서천(西天)의 제23조 학륵나 존자의 전법게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심성을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
얻을 수 없음을 투철히 깨달으니
얻은 게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학륵나 존자의 스승인 제22조 마라나 존자의 전법게도 유명하다.

마음은 만 가지 경계 따라 나투나니
나투는 곳마다 흔적이 없다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5.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하다

배휴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형상을 나툰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을 가지고 있는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상을 여읜 입장에서는 제도한 바 없이 제도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유 · 무를 초월하면, 제도하니 마니 하는 말조차 허물이 된다.

"진실로 여래께서 제도할 중생은 없다.

황벽선사는 완전히 핵심을 바로 쳐서 드러냈다. 《금강경》의 말씀과 같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⓪



피곤해 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화엄경⟩

끝이 없는 대륙

"중국에 가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사들이 한 여섯시간 정도는 쉬지도 않고 달리더라." 중국에서 온 유학생에게 한 말이다. 워낙 땅이 넓은 터라, 생긴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2시간에 한번은 쉬어야 한다는 법도 있지만, 여섯시간 씩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만큼 땅이 넓은 것도 아니다.

중국의 경우는 그런 법이 없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소라도 그 땅의 크기가 거기에 미친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땅의 크기(자연, 환경)가 인간의 사고나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는 인정하는 편이다. 거기에는 또다른 경험이 그 배경에 있다.

인도는 중국 버금가는 큰 나라다. 기차를 타고 하루 24시간 정도는 쉽게 간다. 기차에서 밥을 먹고, 잠도 잔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지겨워서 어떻게 가나" 싶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냥 타고 다녔다. 땅의 크기에 적응이 된 덕분이리라.

그런 인도여행을 하고 온 어느 해, 나는 서울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간 일이 있었다. 3시간 남짓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겨워 지는 것 아닌가. 그때 나는 깨달았다. 땅의 크기가 사람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이다.

⟨화엄경⟩은 중국이나 인도처럼 큰 나라다. 일단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10번은 한다. 지금 전해오는 ⟨화엄경⟩만 해도 '60권'이니 '80권'이니,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읽기가 쉽지는 않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키워주는 경전이기도 하다. 그것이야말로 ⟨화엄경⟩의 특징이리라. 예를 들면, "중생을 교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은 대승경전이 있을까? 그렇지만 ⟨화엄경⟩만큼 집요하게, 폭넓게, 지속적으로 역설하는 경전은 달리 없다. ⟨화엄경⟩이 넓고 커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넓은 땅에 익숙하다보면 "피곤해 하거나 싫어하지 않게"된다. 우리가 자주 "피곤하다"거나 "싫다"는 말을 하면서, 후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식의 땅)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이다.

훈련, 이라는 말

'훈련'이라는 말을 만났다. 걸음을 멈추었다. 훈련, 이라는 말은 흔히 군대용어나 직업상의 말로 쓰이기 때문이다.

'중생을 훈련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앞에 '중생을 교화하다'라는 말을 해놓고서도, 다시 '중생을 훈련하다'라는 말을 더 보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나는 ⟨화엄경⟩ 원문을 확인해 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어로 번역된 ⟨화엄경⟩을 읽고 있을 뿐, 한문 ⟨화엄경⟩도 범어 원문(입법계품의 말씀이므로 범어 원문 역시 남아있다)도 모두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자가 원문에 없는 '훈련'이라는 말을 더 추가하였을까? 그럴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일본학자들의 번역 태도도 그렇지만, 이미 '교화'가 있는 터에 '훈련'을 추가하는 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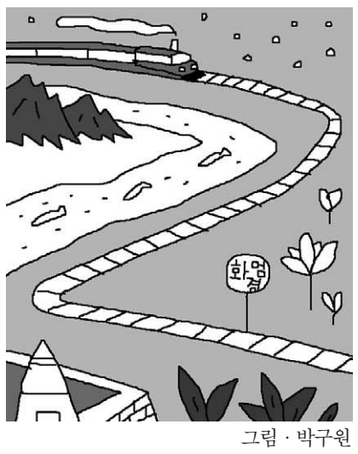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에도 이미 '훈련'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교화'와 '훈련'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교화'는 중생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훈련'은 다시 그 중생이 다른 중생의 깨달음을 위하여 역할을 하도록 분비시키는 것이 아닐까? 나로서는 그렇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다. 의미의 차이가 없이 동어반복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 종래 우리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만 힘을 기울인 것은 아닐까? 이제는 '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끝없이 이어지는 교화의 연쇄 역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곤해 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 보살로 우리 모두 거듭 '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작지만 강한종단!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지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
(종무법인) 禪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문의: (02) 959-1825
종단사업부: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으며 그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기적을 일으켜 주고있는"
생전예수재기도
이 기도가 자신의 운명과 운세를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7일 마다 한번씩 20분정도 집에서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준비 되어있는 기도문 내용을 방편 앞에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생전예수재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도로서 자신의 삶이 바뀝니다.

(1)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불치병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주 막히고 진행이 잘안된다.
(4)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결혼후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6)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7) 취업이 잘 안되고, 되어도 좋은 직장이 안된다.
(8) 무슨 시험이든 운이 약하게 작용하여 합격이 어렵다.
(9)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잘 안된다.
(10) 직장에서의 승진이 어렵다.
(11) 앞으로 남은 생의 삶은 정말 새롭게 잘 살아 보고싶다.
(12) 특히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필히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에서 몇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본 회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는 「**생전예수재의 필요성**」책자를 신청하여 읽어 보신 후 마음이 닿으시어 기도 신청을 하시면 바로 집에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 보시고 신도들에게 펼치시고자 하시면 별도로 전화 주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평화 찾아 떠난 '108산사순례단'

KBS1 특집 다큐 '룸비니에서 DMZ까지…'



108산사 순례단의 평화의 불 이운 과정을 담은 KBS1 특집 다큐 '룸비니에서 DMZ까지, 평화의 불을 밝히다'가 7월 28일 방송됐다.

부처님의 진리 찾아 구법 여행
'평화 불'로 인류 화합 모색

108산사 순례단(회주 선묵 혜자 스님)이 룸비니에서 한국까지 밝힌 평화의 불이 전파를 탔다. 정전60년 KBS1 특집 다큐멘터리 '룸비니에서 DMZ까지, 평화의 불을 밝히다'가 7월 24·28일 4시 10분 각각 방송됐다.

이번 방송은 108산사 순례단이 지난 4월 네팔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네팔, 티베트,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등을 거쳐 한국으로 들여오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로 담아냈다. 총 50분으로 제작된 이 방송은 총 4개월 동안 두 차례의 해외 촬영을 마치고 대중들을 찾아갔다.

담당 배성호 피디는 이번 성지순례가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 나오는 구법 여행과 닮아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해 회원 100여명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부터 혜초 스님이 걸었던 길을 역으로 순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찾고자 고난의 여정을 떠났다"고 전한다.

히말라야에서 '영원의 불'을 채화하고 룸비니에서 '꺼지지 않는 불'과 합화해 최초의 '평화의 불이 탄생하게 된다. 순례자들의 손에 들려진 평화의 불은 구도의 길 위에서 분쟁지역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을 담고,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순례길에 오른다.

구법의 길을 걸어온 평화의 불은 마지막 한반도, 임진각에서 그 여정을 마친다. 순례자와 평화의 불이 걷는 마지막 여정은 DMZ 비무장지대다. 그리고 그곳에 구법의 길을 걸어온 100여명의 순례자들과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법회를 열고, 2만km를 달려온 평화의 불은 그대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정혜숙 기자**

깨달음에 이르는 명상여행 떠나자

나왕케촉 새 앨범 '티벳 꿈수행 명상여행'



티벳 꿈수행 명상여행

나왕 케촉이 전인류의 진정한 자비행 실천을 기원하는 앨범을 내놓았다. '티벳 꿈수행 명상여행(Tibetan Dream Journey)'은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티베트인들의 염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앨범에는 나왕 케촉과 달라이 라마와 함께하는 '자비송' 등 총 11곡이 수록되었다. 나왕 케촉은 대나무 피리로 영혼을 치유하는 세계적인 명상음악가다. 대나무 피리 선율, 여기에 조화로운 타블라, 피아노, 첼로, 팬파이프 등과 같은 다양한 악기의 명상적 선율 등이 절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특히 앨범 제목이자 수록곡 중 하나이기도 한 '티벳 꿈수행 명상여행'은 꿈수행 명상법이란 의미로 잠자면서도 각성을 유지하며 수행하는 티베트 불교의 영적 전통 명상법을 말한다. 이 명상법은 우리가 꿈을 환상으로 인식하며, 중생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모든 중생을 보살피기 위해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여행의 일부가 꿈수행임을 말하고 있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인도 전통춤으로 새 도전…그리고 '회향'

새영화 '바라, 축복' 개봉 앞둔 종사르 켄체 린포체 방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자 티베트의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 중 한 명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8월 2일~4일 한국을 방문한다.



인도춤을 소재로 한 '바라, 축복(Vara, a Blessing)'의 한 장면.

"걸을 때 부드러움을 느끼려면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어야 할까?"

"아닙니다. 가죽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그래. 가죽 신발을 신으면 될 것이니라. 그러면 어디를 가나 부드럽겠지. 나 한 사람의 발에 가죽 신발을 신는 것이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느니라…나 한 사람의 마음을 평정시킬 수 있다면 내 마음의 복수심과 적대감 유혹과 사악한 생각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친 것과 같다."

영화 '더컵(1999년)'에 나오는 주지 스님과 동자승의 대사다. 더컵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축구 결승전에 사로 잡혔던 티베트 스님들의 이야기로 스님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담았다. 영화는 당시 토론토 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영화 더컵을 제작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자 티베트의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 중 한 명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한국을 방문한다. '나그네와 마술사(Travelers and Magicians, 2003년)'에 이어 세 번째 영화 '바라, 축복(Vara, a Blessing)'의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한 스님은 8월 2일~4일 한국을 방문 법문을 펼친다. 방한을 앞두고 있는 스님을 이메일 인터뷰로 미리 만나보았다.

'바라, 축복(Vara, a Blessing)'은 인도 전통 춤과 인도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한다. 스님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인도 전통 춤을 무척 좋아해서 영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익숙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번 영화는 매우 도전적인 소재였어요.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도 사원을 배경으로 신분이

'더컵' 감독으로 호평 받은 세계적 영화 감독이자 스님
인도 배경으로 신작 연출
"영화는 남 돕는 좋은 방편"
8월 2일~4일 한국 방문

다른 남녀의 이야기죠. 춤을 추는 여인이 신분이 낮은 조각가 남자의 모델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영혼과 사랑 그리고 헌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님은 늘 인도가 친숙하다고 전한다. "인도는 불교의 본고장이죠. 그래서 당연히 불교와 관련된 인도 문화와 인도 현상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란 곳도 인도죠. 인도 문화는 저한테 늘 큰 감동을 줍니다."

스님의 영화는 굳이 불교적 메시지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스님에게 있어 영화는 좋은 도구라고 말한다. "불교 수행자는 과학자하고 비슷합니다. 과학자가 과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도가 만들었다고 해서 꼭 그 영화가 불교일 수는 없습니다. 영화는 매체입니다. 불교는 도죠. 영화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저는 제 능력만큼 좋은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세상을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스님이 정말 잘 만들어보고 싶은 영화는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한 영화다. "저는 전문 감독은 아니에요. 영화에 관심은 있지만 이것이 중심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의 내면 깊숙이는 '부처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늘 더 뛰어난 능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발전에만 치우쳤던 한국인들이 이제 불교의 고전적인 지혜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이번 방문 동안 △8월 2일 오후 7시 유나방송 '마음의 자유' △8월 3일 오전 10시 봉은사 보우당 '일상의 명상' △8월 4일 오전 10시 상도선원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지혜' 등의 법문으로 대중들을 만난다.

한편,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났고 일곱 살 때 티베트의 잠양 켄체 왕포의 세 번째 환생자로 판명됐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불교 수행과 함께 영화 공부를 하던 중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를 만나 그의 영화 '리틀 부다'의 고문을 맡았다. 이후 '더 컵' '나그네와 마술사' 등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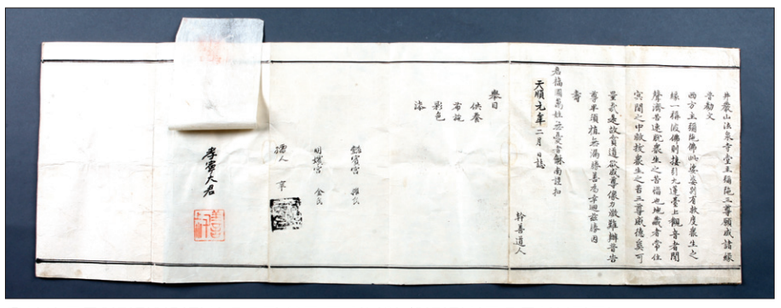
스님은 티베트와 인도에 있는 종사르 사원 네 곳의 스님 2,000명을 돌보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수행센터 '싯다르타의 의도(Siddharta's Intent)를 설립했다. 또한 '연꽃 활동(Lotus Outreach)'으로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켄체 재단(Khyentse Foundation)'도 설립했다.

http://cafe.naver.com/shechenkorea
(02)353-215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5세기 불복장유물 한눈에 본다

대구박물관 '흑석사…'展 8월 4일까지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복장 유물 중 하나인 '아미타삼존불조성보권문'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 특별전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복장'展이 8월 4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아미타삼존불조성보권문, 아미타삼존불복장기, 묘법연화경, 사리보, 사경보 등 유물 60여점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불복장은 1993년 11월 5일 국보 제282호로 일괄 지정됐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재 흑석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불복장은 2002년 2월부터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수탁 보관하고 있다.

대구박물관은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458년에 정암산 법천사에서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와 명빈 김씨를 비롯해 태종의 아들인 효령대군, 세종의 부마인 연창위 안맹담 등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전한다"고 설명한다.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아미타삼존불조성보권문과 아미타삼존불복장기,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불조삼경합부, 묘법연화경 등의 전적류와 사리보, 사경보 등의 다양한 직물류, 사리와 사리용기, 오향·오약·오황·오곡·칠보 등이다. 이들 복장물은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성연도를 알려줄 뿐 아니라 서지학, 복식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귀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천 상 기 도

천상허공기도 20년, 해돋이 석양기도 12년, 자시 1000일 기도를 원만성취한 소승이 성남 기원정사에서 천상 기도중 11시경 한밤중 무지개가 3번 나타나고 서광이 비춰지는 희유하며, 상서로운 일들이 일어 났습니다. 기원정사에서 기도 하실 분 및 영적문제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기원정사 017-257-6795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만물생성 근원 '제3영기싹 영기문' 우리 미술 도처에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팔메트와 반 팔메트→제3영기싹 영기문 ㊦



보관은 영기 발산의 상징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살의 머리에 쓰는 보관의 도상을 다루고자 한다. 보살의 보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올바른 설명이 없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단지 보관이라고 말한 후 그저 지나치고 말았다. 보관이 머리에 쓰는 모자가 아니라 여래와 보살의 몸과 정신으로부터 발산하는 영기라는 것은 필자가 이미 제기하여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단지 경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조형미술에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옛 사람들은 조형언어로 표현하여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작은 금동불상(金銅佛像)을 조사해왔다. 평생 불상을 연구한 것은 지금 생각하니 행운이었다. 불상이란 여래-보살-사천왕-십대제자-팔부중-십이지상 등 불교관련 일체의 도상들을 의미한다. 작품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여래와 보살에 대한 근본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추구하느라 고심을 하였다. 오래 동안 보관(寶冠)을 스케치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많은 생각을 해왔으나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을 정립하여 가는 사이에 보관의 참된 상징을 밝히게 되었다.

꼭 40년 만에 조각에 보이는 보관이 보여주는 본질과의 해후이다! 작은 금동불은 조형적 설명이 풍부한 불화(佛畵)와는 다르다. 매우 작은 조각에도 제3영기싹의 모티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불화보다 먼저 불교조각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 오늘날이 있게 한 것이며 특히 생략이 많은 작은 금동불을 조사하고 연구한 것이 나의 학문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 그러면 몇 불상조각의 보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립박물관 소장 금동 사유상(金銅思惟像): 필자가 고구려 불상으로 분류한 금동사유상의 보관에서 제2영기싹과 제3영기싹들이 발산하고 있다.(그림 ①)

2. 일본 관송원(觀松院) 소장 금동 사유상: 우리나라 불상으로 보이는 작품이다. 역시 중앙의 둥근 보주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도상이며 좌우에서 면(面)으로 된 제1영기싹들과 제3영기싹들이 발산하고 있다. 갈래 사이에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연봉 같은 조형으로 상징하는 만물' 이 탄생하고 있다.(그림 ②)

3. 서산 마애불의 관음보살의 보관: 역시 비슷한 도상이다. 중앙에 보주에서 무량한 보주가 줄줄이 나오고 있으며 좌우로 제3영기싹이 발산하고 있다. 마애불이므로 세부표현이 어렵지만 매우 정교하게 조각했다.(그림 ③) 이들 보관의 조형을 분석하며 글을 쓰는 사이에 보관 중앙의 원형 보주에서 술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임을 알았다.

4. 대승사 묘적암 마애불(磨崖佛): 고려시대 조각이다. 3년 전에 어느 신문에서 우연히 본 '대흥사 마애불' ! 바로 그 순간의 햇빛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놀라운 조형을 포착한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그림 ④-1)

그것은 여래의 머리 양쪽에 움푹 들어간 갈래 사이에서 나오는 제3영기싹이었다. 여래의 머리 양쪽에서 뿔처럼 나오는 제3영기싹!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제3영기싹 영기문 중심부에서 자잘한 보주들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그때 전율했다. 더구나 만물(양 갈래 사이에서 만물이 생겨나므로 단도직입적으로 만물이라 부르기로 한다)은 연봉 모양인데 그 가운데는 자잘한 돌기들이 가득 차 있으므로 무량 보주(씨앗들)가 아닌가!(그림 ④-2)

'제3영기싹과 무량 보주가 겹치는 놀라운 도상으로 그 두 가지가 만물의 근원을 상징한다.' 오늘 비로소 그 사진을 찾아 채색분석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를 느낀다. 이런 불상조각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이상의 모든 작품에서 보았듯이 만물의 근원인 강력한 제3영기싹 영기문을 난데없이 '팔메트(종려나무)' 혹은 '반 팔메트' 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좌우대칭의 팔메트를 절반으로 자른 것이 반 팔메트가 또한 아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조각, 회화, 금속공예 등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에 걸쳐 만물생성의 근원을 상징하는 '제3영기싹 영기문' 은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① 중앙 맨 위에 해와 초승달이 있고 그 아래 보주에서 작은 보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아래로 보주들을 산발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아 술 같은 것이 작은 보주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 좌우에서 제1영기싹들과 제3영기싹들이 발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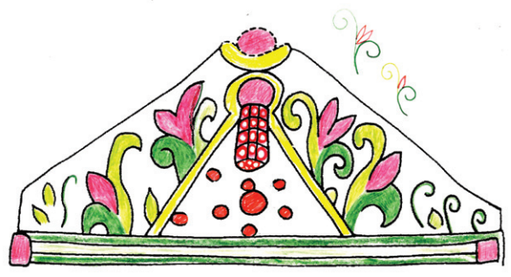


그림 ① 고구려 금동 사유상 7세기.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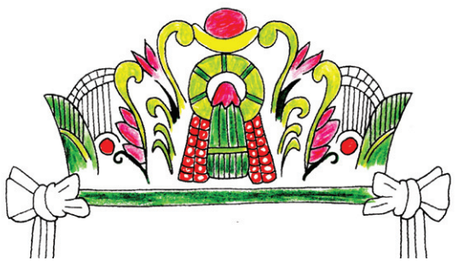


그림 ② 일본 관송원 소장 금동 사유상, 7세기, 채색분석



① 중앙에 둥근 보주가 있고 주변에 작은 보주들이 둘려지고 있는 것은 큰 보주에서 작은 보주들이 무량하게 생기는 것을 상징한다. 그와 같은 무량보주가 좌우 끝에도 있다. ② 중앙의 무량보주에서 다시 줄줄이 무량한 보주들이 생겨서 내려오고 있다. ③좌우 제3영기싹이 만나는 사이에서 해와 달이 생겨나고 있다. 즉 거대한 제3영기싹이다. 일월(日月)은 하늘을 상징한다.

그림 ③ 서산 마애불, 백제 7세기,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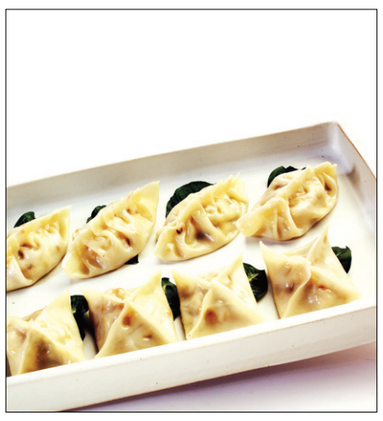
그림 ④ 문경 대승사 마애불



그림 ⑤ 대승사 마애불 채색분석

藥이 되는 사찰음식

채소 듬뿍 넣은 여름만두 '담백'



여름 만두 – 편수와 규아상

△재료(4인 기준)

○ 만두피 - 우리밀 200g, 소금 1/2작은술, 현미유 1큰술, 전분 2큰술, 물 2/3컵

○ 편수 소 - 애호박 1개, 표고버섯 3장, 홍고추 1개, 청량고추 1개, 소금 1/2작은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 규아상 소 - 오이 1개, 숙주 100g, 두부 100g, 홍고추 1개, 청량고추 1개, 소금 1/2작은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 소스 - 간장 1큰술, 물 1큰술, 식초 1/2큰술, 매실액 1/2큰술

△만드는 법

① 밀가루에 소금, 현미유, 전분을 넣고 잘 섞은 후 물을 넣어 부드럽게 반죽하여 1시간 정도 숙성시킨다.

② 편수 만들기 - 애호박은 채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빼서 준비하고 표고버섯은 채썰어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밑간하여 각각 볶아 식혀, 홍고추와 청량고추 다진 것을 잘 섞은 후 소금,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소를 만든다.

만두피는 얇게 민 후 사각모양으로 썰어 소를 넣고 사각의 보자기 모양으로 만든다.

③ 규아상 만들기 - 오이는 채썰어 소금에 살짝 절여 물기를 짠 다음 팬에 살짝 볶아 식히고, 숙주는 데친 후 잘게 썰어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하고 두부는 곱게 으깬 후 다진 홍고추와 청량고추, 양념을 넣어 잘 섞어 소를 만든다.



얇게 핀 만두피에 소를 넣고 반으로 접어 해삼모양으로 모양을 내어 빚는다.

④ 김오름 찜통에 10분 정도 찐 후 그릇에 담아 간장소스를 곁들여 낸다.

양배추 깻잎 초절임 김치

△재료(4인 기준)

○ 양배추 500g, 깻잎 30장, 청량고추 5개

○ 초절임 물 - 물 2컵, 식초 2/3컵, 매실액 1컵, 소금 2큰술

△만드는 법

① 양배추는 깨끗이 씻어 사방 10cm 정도의 크기로 썰고 깻잎은 씻은 후 물기를 빼서 준비한다.

② 양배추 사이 사이에 깻잎을 넣고 반으로 가른 청량고추를 넣고 통에 담는다.

③ 끓여 식힌 물에 식초와 매실액, 소금을 넣어 잘 섞은 후 통에 부어 무거운 것으로 눌러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1~2일 정도 지나면 먹는다.

여름 만두에 어울리는 '양배추 김치'

이 맘 때쯤, 이른 아침 텃밭에 나가보면 아침이슬을 맞아 탐스럽게 열린 오이, 애호박 등의 채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네 밥상을 채워준다. 그중에서도 송송 채썰어 소금에 살짝 절여 볶아 식힌 후 만두를 빚어 한 입 베어 물면 담백하면서도 싱그러운 여름 맛이 입맛을 돋구어 주곤 한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많고 아삭아삭한 청량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빼서 센불에서 재빨리 볶아 식혀야 한다. 애호박도 채썰어 소금에 절인 후 볶아 사용하는데 기름을 처음부터 넣지 않고 마지막에 넣고 살짝 버무려 내어야 풋내가 나지 않고 더욱 맛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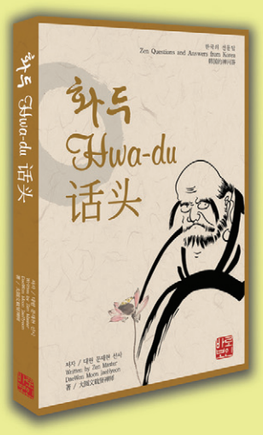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 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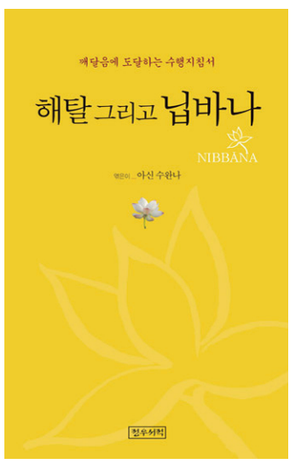


031-534-3373 / 010-9043-1016 바로보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온갖 생각을 끊되 무기력에 떨어지지 말고, 욕심 속에 살되 욕심을
초월하고, 티끌 같은 세상에 살되 티끌 세상을 초월하라. 역경에도 끄달리지
말고 순경에도 끄달리지 말라. 그리고 만물에 끝없는 축복을 주어라
차별 없는 고요함에서 차별 있는 지혜를 보여라.

– 아함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시설비 약간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경주 토굴 안내

- 총부지 : 730평
- 법당 요사채 60평
- 야생화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토굴
- 마을 앞 넓은 호수, 텃밭 100평
- 양도가 : 3억 2천만원

아름다운 토굴안내

- 총부지 : 970평(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 역사와 정원수 다량
- 나비형 큰 호수
- 양도가 : 1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1,5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석가래, 스라브, 단청)
- 요사채 2동 50평
- 가액 : 2억 6천만원
- 특징 : 청정계곡과 산세가 어우러진 기도 정진할 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70평(임법당, 방 3개)
- 기타 : 산신각, 석탑 등
- 가액 : 2억 6천만원
- 특징 : 주지스님의 신병관계로 저렴하게 양도코져함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5848-0455/ 서울 010-5828-0455

사찰(급)안내

- 전남 장흥 장평면 문화재사찰
- 고려시대문화재사찰(신축은정부지원)
- 대웅전(90㎡),종각전통목조,요사채등
- 토지임야포함 6,700㎡
- 가액: 상담 요함(적당가격)

010-7347-1010(사찰전문)
010-7664-2925(창권주)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3층 각 75평
- 공양간, 찜질방
- 전세가능
- 전세 1,500만원 / 월 12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034-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상담 후 조정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상가주택 2층 28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만원
- 저렴하게 양도해드립니다

041)552-3476
010-9497-3746

도심속의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정도
- 법당 : 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용왕별도
- 국유지 : 사용료 내고 있습
- 6천 8백만원(조절가)

011-575-9707

사찰부지 안내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491번지
- 전 775평(생산관리 지역)
- 양도 금액 : 평당 8만원
- 봉화역에서 시외버스로 (15분 소요)

010-9663-55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3111-9056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면적 : 3000평
- 전각 : 6채
- 도심산 및 유치원 등등
- 가액 : 35억5천

- 위치 : 서울
- 면적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지리산 청학동 사찰 양도

- 위치 : 청암면 묵계리(계곡접)
- 면적: 1815평,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난방,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수도(자가 및 마을공동겸용)
- 양도가: 13억원, 최상의 명당터 동향임
- 부지조성완료

010-3403-3355

선 ~ 정토 터 안내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포장(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 주택,법당 20평
- 요사채 20평,방3개 20평,용왕당 5평
- 대지 전50평포함 총 330평
- 골짜기에 동네를 안고 있음
- 가액 : 3억

055-391-6786
011-557-678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시내 중심가
- 상가 3층, 38평
- 삼존불, 집기시설 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7년째 운영중

010-2020-1896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상가주택 2층 28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만원
- 저렴하게 양도해드립니다

041)552-3476
010-9497-374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수행도량, 조용, 530고지)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임법당 조립식판넬 19평, 기타 9평
- 대지 180평 조립식판넬 요사채 3동
- 창고 1동 외부화장실 과수원 2700평 8년생, 3년생
- 가액 : 5억5천만원
- 답사후 절충가능

010-4726-649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 법당 : 20평, 요사 2동
- 대지 149평
- 가액: 5억 3천만원
- 기와 단청 17평, 10평
- 도심 속 포교에 최적지

011-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와 양평근교 소재
- 창건60여년의 아담한 사찰로 서울에서 1시간거리
- 평수 : 부지 (종교용지 364평,임야 1690평) 등기건축물(146평)
- 삼성각. 종각. 대법당. 석불. 석탑
- 종무실(1.2층),요사채(방5),심야전기
- 양도가액 : 4억8천만원(절충불가)

017-372-8968

불교용품 전문점

- 위치: 서울 급 양도함
- 점포 30평
- 창고 20평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현재 성업중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4055-121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 4층건물중 3층
-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시설비없음)

010-7459-297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1동 산78
- 대지 : 121평
- 법당 34평, 산신각 5평, 요사채 22평
- 전세금액 : 5천원

011-871-154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 4층 건물에 4층 45평
- 시설완비. 주차장
- 석가모니 삼존불(백옥)
- 보증금 1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1-592-9599

포교원안내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40-574번지
- 성심약국4층 반송큰시장 옆 포교원
- 40평 시설최고 방2칸,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삼존불, 신중, 칠성 약사 후불탱화
- 산신, 용신, 장군, 원불, 법당 옆 정원 10평
- 욕실 2개, 비품일체 몸만 오시면 법회함
- 지하철 3분거리 버스 3분거리

051)527-5688
011-9501-5188

암 자 안 내

- 경남 거제시~도심속에 산사를 풍기는 도량
- 암자 앞에는 대금산하에서 사시사철 내려오는 맑은 계곡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 한 곳으로 모이는 도량
- 거가대교 부산~거제 톨게이트
- 내리면 10분거리, 마당까지 주차진입
- 부처님과 탱화,집기류는 모두 가져갑니다
- 일반전원주택 123평, 가액3억2천만원
- 현시세 땅값만 평당 200만원 함

소리통 010-3850-7179

암자(터) 안내

- 위치 : 밀양 IC 바로 앞
- 현 약초 재배로 암자시설 적임지
- 2천6백평
- 가액 : 평당 6만원

011-9323-861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1동 산78
- 대지 : 121평
- 법당 34평, 산신각 5평, 요사채 22평
- 전세금액 : 5천원

011-871-154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동부리
- 5층건물중 3층(48평)
- 석가모니불,각단 탱화 • 시설일체양도
- 상가주변 포교용이
- 보증금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천5백만원

010-2304-7648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전세 6천만원
- 양도 : 3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포교원(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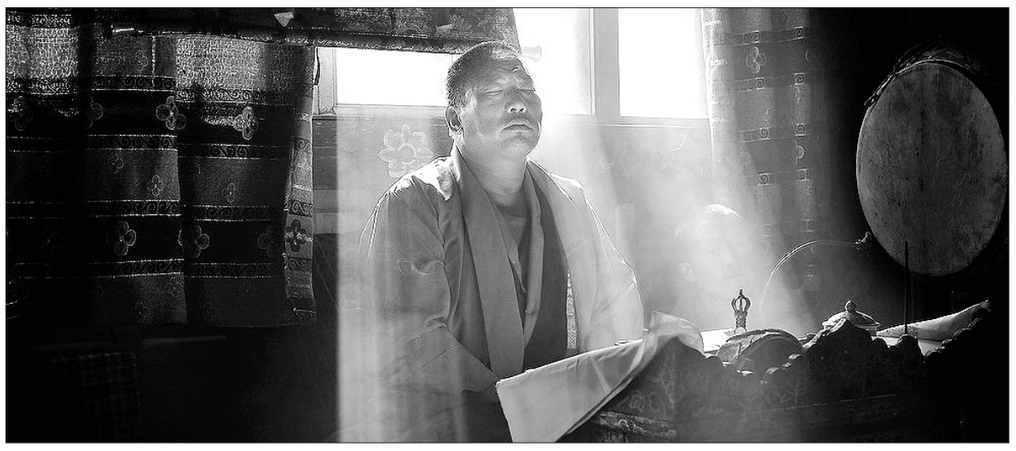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 2층 50평, 옥상, 지하 사용가능
- 삼존불, 지장, 신장, 산신, 용왕 탱화 소불 120불
- 대법당, 방1, 화장실3
- 시설 비품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불경기에 시작하시는 꼭 하실분께
- 좋은 시설 드리고 싶습니다.

010-2842-6532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군
- 평수 : 3000평 (800평 정도 부지 만들어져 있음)
- 도로 있고 정남향 경관좋고 옆에 계곡 있음
- 사찰, 전원주택, 교육시설 최적지
- 가액: 2억 7천만원

010-9368-9612


불교의 본질을 담아내는 사진여행을 하고있는 미국의 보도사진작가 데이비드 뷰토우 작품. 주제는 염불하는 스님과 빛.

美 작가 '붓다를 보다' 부탄 등 사진여행

미국의 보도사진작가 데이비드 뷰토우(David Butow)는 작년부터 부탄, 티베트 등을 여행하며 '붓다를 보다: 사진여행(Seeing Buddha: A Photographic Journey)' 이라는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붉은 가사, 제례의식 등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불교가 아닌,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 측면에 집중해 불교의 본질을 담아내려고 했다.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대상의 관찰, 상대에 대한 공감, 순간에 충실하기, 인간적 측면의 공유, 인내심 등이 사진과 닮았다고 했다.

위 사진을 찍기 위해 그는 세 시간이 넘도록 챈팅을 하는 스님들 곁에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스님을 밝게 비춘 순간 그는 셔터를 눌렀다. 뷰토우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얘기한다. 그 순간 스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진 속에는 스님과 사진작가 그리고 이를 응시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 중첩되어 있다. 배현진 기자


호주 솔즈베리 크메르불교협회 오안 안(Oan Ahn • 48) 대표. 그 뒤로 22미터 불교사원이 들어설 부지가 보인다. 현재 이곳에서는 크메르불교협회가 들어서 있다.

호주 솔즈베리, 22미터 사원 '발원'

솔즈베리 위원회 계획안 심의 중 … 지역 주민 관심 집중

호주에서 가장 높은 불교사원 건설을 위한 계획안이 솔즈베리 위원회(Salisbury Council)에 상정됐다.

뉴스(NEWS,news.com.au) 지는 최근 "솔즈베리 크메르불교협회(Khmer Buddhist Association)가 솔즈베리 고속도로 인근 파라필드 가든(Parafield Garden)에 있는 협회 부지에 22미터 높이의 고층 사원을 계획하고, 이를 솔즈베리 위원회에 타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뉴스 지는 "크메르불교협회는 이미 퀸즈랜드에서 17미터 불교사원을 건축하고,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바 있어, 위원회의 결정에 솔즈베리 지역 주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솔즈베리 크메르불교협회의 불교사원은 15미터 높이의 일주문과 그 주변에 불교 성물을 조형한 조경과 주차장을 마련하는 한편 1,000여 명이 법회를 봉행하고 명상을 실수할 수 있는 22미터 높이의 대법당을 신축한다.

크메르불교협회 오안 안(Oan Ahn • 48) 대표는 "새로 들어설 사원은 호주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불교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솔즈베리 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크메르불교협회의 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며, 결정 시점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11년 10미터 규모의 불상을 세우려는 크메르불교협회의 계획안을 거부한 바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서구 움직이는 여성 린포체, 제춘 칸드로

〈워싱턴포스트〉, "워싱턴 디씨 법회 성료…서구인 신심 다잡다"
리타 그로스 박사, "민첩하고 파워풀한 여성 불교지도자"

중년의 여성 린포체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지난 22일 제춘 칸드로 린포체(Jetsun Khandro Rinpoche • 48 • 사진)를 조명하며 "미국 워싱턴 디씨 버라이즌 센터에서 175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차크라 법회를 봉행한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서구인의 신심을 다잡으며, '지역 • 문화 • 인종을 뛰어 넘는 활동을 전개하며 주목받고 있는 여성 불교지도자"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지에 따르면, 이번 법회에서 "불자라면 그가 누구든, 돕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라' 고 가르치셨다"며 "깨달음은 지혜, 중생구제는 자비를 뜻하는 것으로, 자비가 없는 지혜는 자기 밖에 없는 소위 나쁜인 사람 즉 나쁜 사람에 지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키니(Dakini)로도 널리 알려진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티베트불교의 게규파와 닝마파를 아우르는 영어, 티베트어, 힌디어 등을 능숙하게 구사하며 미주 • 유럽은 물론 특히 인도에서 불교 포교와 여성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키니' 란 산스크리트어로 '여성의 지혜를 전하는 메신저' 라는 뜻이다.

이에 앞서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인도 북부 지역에 교육의 기능을 강화한 여성 사원, 삼텐체 사원(Samten Tse Retreat Center)를 설립,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사원에서는 불교는 물론 '경영 관리', '스포츠 과학' 등과 같은 교과목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이곳에서 교육 받은 여성 불자들은 불교 안팎을 모두 아우르며 자신감이 넘치는 유능한 여성 불자가 될 것"이라며 "이게 바로 교육 중심의 여성 사원을 건립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티베트에는 깨달음에 이른 여성 수행자들이 많으나, 여전히 그들은 사원과 권력 등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티베트 여성의 극소수만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으며, 그들 중에는 제춘 칸드로 린포체와 같이 티베트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젠더와 종교를 주제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펴고 있는 리타 그로스(Rita M. Gross) 박사는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작지만 민첩하고 파워풀한 소형차와 같은 여성 불교지도자"라며 "그의 언행이 지역 • 문화 • 인종의 벽을 넘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써의 '여성성' 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풀이했다.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게규파와 닝마파의 전통을 이어받고 티베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예세 쵸갈의 화신이자, 칸드로 위르겐 쪼모(Khandro Urgyen Tsomo)의 환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6세 소녀의 나이로 당시 중병을 앓던 티베트불교 4대 종파 가운데 하나인 게규파의 제15대 칼마파를 '도르제 남도마' 청정의식을 거행해서 9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티베트불교계의 이목을 잡았던 제춘 칸드로 린포체는 칼마파 입적 이후 쭈루푸의 수련원에 주석하면서 많은 수행자를 지도해 '쭈루푸의 위대한 칸드로' 라고 불렸다.

현재 Samten Tse Retreat Center (인도), Lotus Garden Retreat Center(미국 • 영국) 등을 개원 • 운영하며,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민드로링 사원(Mindroling Monastery인도)의 운영을 돕는 한편 '종파를 초월 엘리아 연구소(Elijah Interfaith Institute)' 의 '세계종교분과' 의 좌장을 맡아, 종교간 대화에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제춘 칸드로 린포체

오종욱 편집위원

우주의 신비를 벗겨드립니다

별자리 보며 불교 공부하는 日 쇼간지사

과학관에 가야 볼 수 있는, 둥근 모양의 천정에서 별자리가 움직이는 플라네타륨(planetarium)을 사찰에서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도쿄에 위치한 400년 된 절 쇼간지사(證願寺)에는 한 달에 두 번, 플라네타륨을 활용한 '우주쇼' 가 열린다. 외벽에 우주선이 붙어있는 사찰 옆 건물에서다. 사람들은 가죽의자에 편히 누워 빔이 만들어내는 소우주의 화려함을 만끽한다. 별자리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으며 스님의 친절한 천문학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불교와 우주. 이 멋진 앙상블을 기획한 건 료 카수가(Ryo Kasuga) 스님이다. 5살 때 지구에 가깝게 접근한 화성의 붉은 신비로움에 매료된 후로 줄곧 눈에서 망원경을 떼지 않은 스님은 한때 천문학자를 꿈꾸었을 정도로 관련지식이 해박하다. 만담가 뺨치는 유머감각까지 겸비한 덕에 쇼간지사의 '우주강의' 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건 당연지사. 참가예약은 필수다.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능하면 흥미진진한 방법으로 불교를 소개하려 했다. '사찰 천문관' 은 우주의 신비와 불교의 교리가 상통하는 접점,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불교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휴식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살아있는 존재를 위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여태까지 스님들이 종교적 의례나 형식에 얽매여 부처의 진심을 되새겨보려고 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일본 플라네타륨 협회에 등록된 정식 천문관인 쇼간지사에서는 불교를 우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 역도 가능하다. 쇼간지사의 플라네타륨. 의자에 앉아 천장을 보면 별들이 쏟아진다.

쇼간지사는 스님의 바람대로 부담없이 사찰을 찾은 사람들에게 불교와 우주를 동시에 선물해준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캘리포니아에 나툰 부처님 진신사리

14대 달라이 라마 기증 진신사리 등 200여 점 선보여

부처님과 근 • 현대 고승의 사리를 친견하는 전시회가 12일 미국 켈리포니아 리버사이드(Riverside)에서 마련됐다.

〈Press Enterprise〉 지에 따르면, '오렌지 테라스 커뮤니티 센터(Orange Terrace Community Center)' 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14대 달라이 라마가 지난해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8점과 44명의 근 • 현대 고승의 사리 200여 점 등이 전시되어, 백안의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았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의 전체 진행을 맡은 마이클 포츠(Michael Fouts) 법사는 "지난해 14대 달라이 라마의 방문으로 지역 불교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번 전시회는 리버사이드 불교계의 '성장' 을 보여주는 첫 전시회로, 대 사회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어린이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보고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오렌지 테라스 공원에서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사리친견법회로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8월 첫 주까지 계속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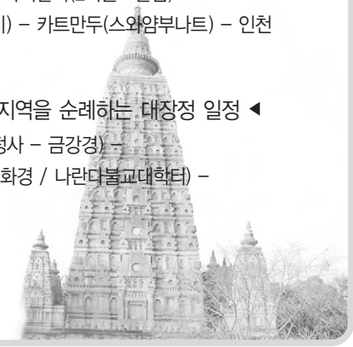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과거세에도 남 속이고 업신 여겨"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1)

부처님만 믿고 악업 쌓은 천타 비구

부처님께서 구사미국에 계셨다. 그때에 천타라는 장로가 있었다. 그는 성질이 나빠서 사람들은 그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에게 진심어린 충고와 고언을 베풀었지만 천타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구들이 부처님께 천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옛날이야기를 해주셨다.

옛날 어떤 장자의 아들에게 아마유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성질이 흉악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들은 여러 바라문의 아들들과 함께 동산에 놀러 갔는데, 따라온 하인들은 모두 동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아마유는 동산 문 밖에서 다른 주인을 따라온 하인들을 때렸다. 아마유에게 매를 맞은 다른 하인들은 저마다 자기 주인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바라문의 아들들이 모두 나와서 아마유를 꾸짖었다. 그러나 아마유는 고분고분 야단을 맞지 않고 바라문의 아들들에게 오히려 대들었다. "당신들 말 따위는 따르지 않겠소. 나는 우리 주인이신 도련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오."

그리고 그는 또 다시 다른 하인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러자 다시 하인들의 주인들이 아마유의 주인에게 알렸다. 아마유 주인은 나면서부터 천안(天眼)을 얻은 터라 이미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아마유의 주인이 아마유를 꾸짖자 아마유는 다른 하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장자 아들이 바로 지금의 내 몸이다. 그때의 아마유는 바로 지금의 천타 비구이다.

또 과거 세상에 불로혜라는 대학자인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국왕의 스승이 되어서 동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집에 사는 가라가라는 하인에게 여러 동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일을 시키곤 했다. 이 하인은 설법을 한번 들으면 모두 기억할 만큼 영리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하인이 여러 동자들과 조그만 원한을 맺게 되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나는 불로혜 바라문의 아들이며 이름은 야야달다라 한다."

또 그 나라 국왕의 스승인 바라문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바로 바라내국의 왕사인 불로혜의 아들입니다. 큰 스승에게 나아가 바라문의 법을 배우고자 일부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승은 대답했다.

"그렇게 하여라."

이 하인이 원래 머리가 총명하였고, 설법도 모두 이전에 한 번 들었던 내용을 다시 거듭 듣게 되는 것이라 들으면 모두 기억했다. 스승은 기뻐하며 자신의 문도 500명의 동자들을 가르치게 했다.

"네가 나를 대신하여 가르쳐 보아라. 나는 왕가에 가 볼일이 있다."

이 스승 바라문에게는 아들이 없고 오직 딸이 하나 있었다.

"야야달다야, 내가 이제 내 딸을 너와 혼인시키려 하니, 너는 이제 네 나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나라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은 바로 야야달다를 사위로 들였고 야야달다는 그 집안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야야달다는 음식이 좋지 않다는 둥 투정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를 매우 공경하였기에 남편의 심기를 편하게 하려 했으나 도무지 그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었다. 그때 불로혜 바라문이 떠난 하인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소문을 들은 불로혜는 생각했다.

'나의 하인 가라가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 있으니 가서 붙잡아 오거나 아니면 다른 하인이라도 얻어 와야겠다.'



삽화 · 강병호

불로혜 바라문은 즉시 그 하인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마침 그때 야야달다는 여러 문도들과 함께 동산으로 놀러 가고 있었는데, 중도에서 그의 본래 주인을 만나게 되자 놀랍고 두려웠다.

야야달다는 옛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는 이 나라로 와서 스승에게 주인님이 바로 저의 아버님이라고 말하고, 이 나라 국사이신 대학자 바라문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스승께서는 그의 딸을 아내로 주셨습니다. 원컨대 어르신께서는 오늘 저의 일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다른 하인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불로혜는 이렇게 대답했다.

"실제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어찌 여러 말을 하는가? 무슨 방법을 쓰든 빨리 보내기만 하여라."

야야달다는 옛 주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돌아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의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기뻐하면서 갖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한가한 때에 그의 아내는 불로혜에게 여쭈었다.

"제가 남편 야야달다를 받들어 섬기려 애를 쓰지만 공양이 늘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합니다. 이전에 집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 가르쳐 주시면, 친가에서 음식 만들던 방법대로 그를 위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불로혜는 속으로 성을 내면서 생각했다.

'이런 놈을 보게나. 이놈의 자식이 남의 집 귀한 여식을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불로혜는 그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떠날 때에 너에게 게송을 가르쳐 주리니, 너는 이 게송을 외워라."

'아비도 없는 놈이 남의 나라에서 /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거친 음식을 언제나 먹던 놈이 / 먹는 것도 감지덕지, 무엇을 꺼리느냐.'

"이제 너에게 이 게송을 줄 터이니 만약 그가 또 음식 타박을 하면서 성을 내거든, 슬쩍 한쪽으로 물러나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그가 들을 수 있게 이 게송을 외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가르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야야달다는 주인이 떠나간 뒤에도 매번 밥 때만 되면 음식 타박을 하며 성을 내었다. 아내가 남편의 곁에서 시험삼아 그 게송을 외웠다. 그러자 남편은 이 게송을 듣고 나서 언짢은 마음이 들어서 생각했다.

'저놈의 늙은이가 나의 어두운 과거를 들추어내는구나.'

그래서 야야달다는 이때부터 언제나 부드러운 말만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남들에게 그 비밀을 발설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바라내성에 살던 불로혜 바라문이 바로 나이고, 그때의 하인 가라가는 바로 지금의 천타 비구인데, 그는 그때에 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었다. 그러더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나의 세력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구나." (〈마하승가율〉 제8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㉛



종교가 다른 모녀

엄마의 기도, 딸의 기도

모처럼 집에서 쉬게 되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만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친구의 모습은 한눈에 근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신발도 벗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친구의 근심은 오래된 것이었다.

친구는 6남매를 두었는데 그중 막내인 딸은 서른이 넘어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다니게 되었다. 좋은 회사를 다니게 된 막내딸은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위암이었다. 벌써 1년 전 일이라고 한다.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족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친구는 많이 힘들었다. 막내딸의 아픈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친구인 나에게 조차 말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온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음식조차 넘기지 못해, 어쩌면 좋으냐?" 뭐라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친구는 이제 밤낮으로 부처님께 오직 기도할 뿐이라고 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도 부모인지라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 남일 같지 않았다. 아프고 답답했다. 친구는 기도하는 일이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라고 했다. 기도를 하다 마음이 복받쳐 오르면 스님을 붙들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픈 딸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지금도 막내딸은 엄마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한다. 친구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나는 딸의 종교를 인정해 주라고 했다. 누구의 종교도 타인이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의 종교가 있듯이 딸의 종교도 선택의 권리가 있는 것이니 집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했다. 종교가 달라도 서로 인정해야하고 기도의 용어가 다를 뿐 그 마음이 다르지 않음이니 서로의 기도가 간절하고 또 간절하다면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인의 종교 인정해야 내 종교 존재
나를 괴롭히는 건 타인 아닌 내 마음

몸이 어디에 있든 앉으나 서나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 하며 분별된 생각만 지우면 교회건 절이건 또는 집이건 밖이건 상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지금은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다.

친구는 딸도 부처님께 기도한다면 기도의 힘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해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딸은 "엄마!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을 이루는 일들이 많으니 그런 말은 하지 말라."며 엄마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한단다. 친구는 막내딸의 투병도 힘든 일인데 종교로 인해 딸아이와 사이가 벌어지는 것도 가슴아파했다. 나는 울고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 번 말했다. 딸아이의 종교를 인정해 주라고. 그래야 내 종교도 지킬 수 있다고.

부부 싸움 후 지옥과 극락

살면서 늘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했었지만, 요즘 들어 새삼 실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매 순간이 소중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기만 하다.

며칠 전 남편과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의 생각이 달라 다투었다.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됐다. 한 동안 우리는 말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답답한 시간이었다.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후회스럽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시간을 보냈다. 칠순의 나이에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저녁시간 TV를 끄고 내가 먼저 남편을 향해 절을 했다. 결혼식 때 맞절을 하고 난 이후 '절'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았다.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남편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에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내게 물었다. 말다툼에 대한 사과의 뜻이라기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 생각할 때 이런 시간은 너무나 의미 없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진정 나의 생각이나 언행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였다. 그렇게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 순간, 극락이 따로 없었다. 그토록 답답하고 지옥 같았던 세상이 한 순간 극락으로 변했다.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다. 타인의 말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앞으로 남편뿐 아니라 누구와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다. 내 마음부터 버리기로. 그리고 그런 생각을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서로를 지옥에 가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고 나니 내가 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 홀가분해졌다. 그러자 바늘 끝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던 남편의 마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열리고 따뜻해졌다. 비가 온 뒤의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했던가. 서로의 마음을 보게 된 우리는 각자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다.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 더욱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기에 더욱 살아있는 동안 진지하게 살 일이라 생각했다. 남편과 나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DWKS-108A
DWKS-108B



DWKS-3000A
DWKS-3000B



DWKS-5000A

연등(등표) 발판사다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회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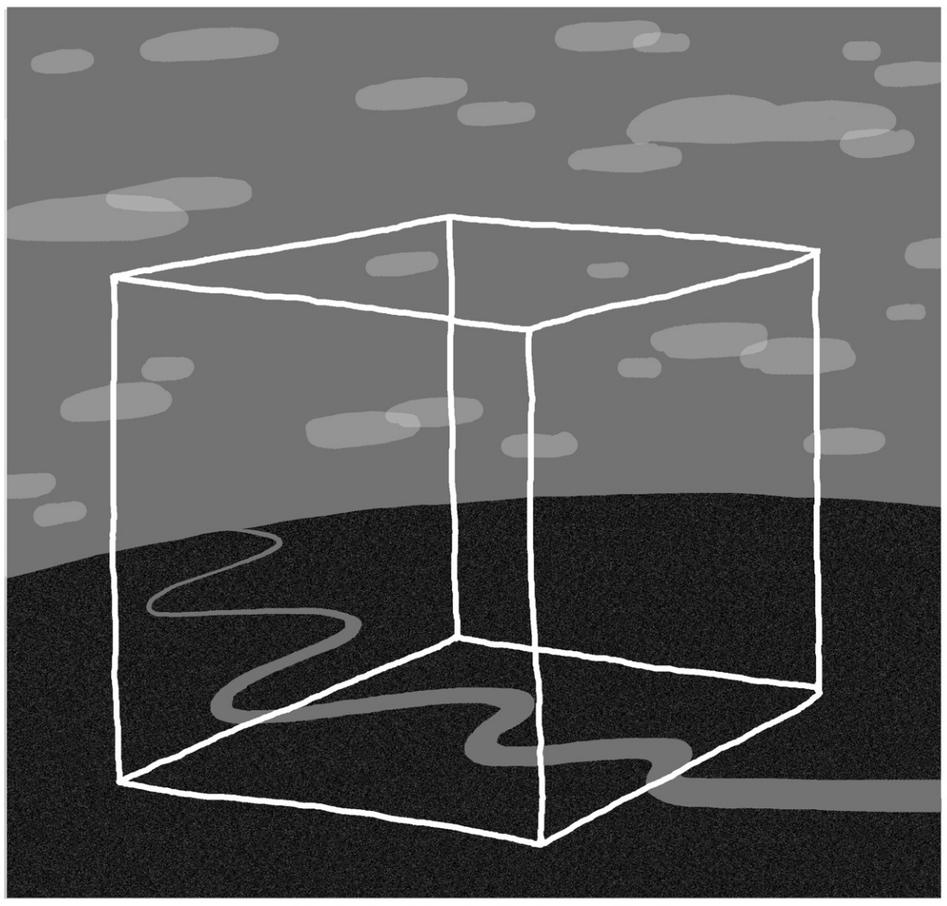
자기가 결정을 짓지 말고 모든 걸 주처한테 맡겨놔라

길 아닌 길을 걸어가려면

문) 이 마음공부를 알고부터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길 아닌 길을 걸어 보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는지요.

답)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원소를, 자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모습을 받는단 얘기죠. 그런데 자기 원소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하고 형성되는 그 고생은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거기 입증해서, 즉 말하자면 태어나는 거는 자기 소관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부모의 소관이 아니라 자기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차원이 높고 낮고 그런 것도 자기의 소관이죠, 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습 있는 인연을 따라서 소중하게 받은 그 모습으로, 바로 자기, 보이지 않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그건 바로 즉, 만법을 행할 수 있는, 색색가지로 만법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다 이런 말입니다.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를 부처님께서는 '별성'을 봤다고 했고 또 우리가 불가에서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문을 찾을 때 지혜롭게 찾아야 문 없는 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문을 찾아다니는 건 육신을 가진 사람이나 문을 찾아다니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문이 있어도 그냥 문이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원소 자체의 그 불성은 문이 없어도 왕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아난이 "형님, 내가 형님을 뵙고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가섭 존자의 말이 "너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면 열쇠 구멍으로 들어오너라." 이랬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올 수 있으면 열쇠 구멍으로 들어왔다가 가라 이겁니다. 열쇠 구멍이 문도 될 수 있는 거라면 이 봇장이고 벽이고 그런 게 뭐 소용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50%를 즉, 정신계로 활용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지금 원소는 정신계를, 왼쪽 두뇌의 정신계를 말하고 또 바른쪽은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혼합시켜서 이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같이 돌아가는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 우리가 머리에 하나의 지혜가 트이면 열 가지 백 가지가 트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든 들이대면 그게 법이 되고, 어떤 것이든 들이대면 그대로 결정이 나고, 어떤 것이든 들이대면 그냥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정신계의 문제나 물질계의 문제나 같이 반반 섞여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갑니다. 모두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든지 그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죠? 차가 여러분이라면 말이 됩니까? 차는 여러분이 쓰는 즉,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소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함이 없는 나가 사용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즉 말하자면 시자로 씁니다,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차 쓰듯이. 그런데 나라고 그런다면 그게 안되죠. 말이 안되죠, 그게. 운전하는 주인이 반드시 있는데 차가 자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맞지 않아요, 모두가 사는 게. 그래서 이게 과거로부터 선조들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음이라도 진실하게 있으면 몰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냥 아무 데라도, 돌자갈이라도 믿고 저거한다면, 그게 아주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통이 돌봐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고집부리는 거는 멍청한 고집이죠. 우리가 고집이 세고 그렇게 아주 괴롭고 망종스럽게 산다, 이런 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를 누르고 살죠? 우리가 컴퓨터를 누르고 사는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누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두칠성으로 인해서 그 왕별이, 큰 별이 그 생명력을 애당초에, 최초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그 마음의 원소 자체에서 모두 만법을 들이고 내고 살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이 세상에 어느 길치고 길 아닌 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허공도 길이요 지구도 길이요 우주도 길이다. 우리가 몸뚱이를 생각할 때 한번 지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구가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몸뚱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궁달궁 생명체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몸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들 살고 있나. 몸속에서들은 그러죠. 몸속에 들어 있으면서 의식들은 '아이고, 지구 우주에서 지금 그런 사령이 내렸으니까 그대로, 마음을 그대로 바쳐 드려야지.'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사람이 마음 쓰는 대로, 그냥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 하는 대로, 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 준단 말입니다, 의식들이. 참 문제가 큽니다. 의식들이 이렇게 따라 주는데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 자기가 결정을 짓지 말고 모든 걸 주인한테, 주처한테 맡겨 놔라. 그러니까 일할 때는 행선이고, 앉았으면 좌선이 되고, 또 길거리를 다닐 때는 입선이 되고 누웠을 때는 와선이 되느니라. 그것이 조금도 그른 사이가 없이 요만큼도 틈이 안 나게끔 돼 있는 자체다. 그게 그냥 참선이다, 여러 가지로 따질 게 없이. 참선이니까 우리 생활이 그냥 '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생활이 도지, 우리 생활 떠나면 뭐가 있느냐. 네가 떠나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모두 각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종교도 있다느니, 진리도 있다느니, 부처도 있다느니, 세상도 있다느니, 에고도 있다느니, 또 편안함도 있다느니 이런 게 모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완전히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다 이겁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누르고 산다. 또는 우리가 누르는 거는 우리 자체가 바로 불성 자체, 별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에너지통이 그냥 여기 들어 있다. 그러니까 작으나 크나, 차원이 높으나 낮으나 그거를 알고 진행한다 하면은 그냥 자기가 자꾸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쉬우면 꺼내 쓸 수 있는 거, 전력을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거. 그것이 에너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나 자체 내에 그 문이 있기 때문에, 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암흑 속에는 에너지를 발현할 수가 있고 이 거죽에 속하는 데는 에너지를 발생해서 쓸 수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눌렀을 때 이걸로도 변하게 하고 이걸로도 나오게 하고 저걸로도 나오게 하고 부산으로도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도 이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앞뒤를 주인공에다 탁 놔버리고 덤벙 뛰어넘으세요

☞ 21면에서 계속

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이 미생물로 인해서 조그맣게 생명이 생겨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진화가 되고 이렇게 사람까지 몇 번씩 태어나도 그냥 그 자리를,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안에서 벗어난다면 세세생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갇혀서 우리가 산다고 보세요. 병 속에서 갇혀서 산다 이런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함을 느끼죠. 자유스럽게 훨훨 날아다닌다면, 구속받지 않고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요

문) 요즘 좌선을 좀 해 보려고 앉아 있으면 생각이 멈추질 않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해 보자 그러고 삼천 배를 시도해 봤더니 생각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좀 안 나고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그러는 걸 보세요. 그러면은 '아, 저 나무는 바람이 저렇게 불어도 이쪽으로 쓸리면서 모진 바람을 쐐도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인내하고 있게 가는구나.' 하고, 어떤 때 또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 '어, 저렇게 비를 맞고도 저 나무는 의연하게 있구나. 저 나무들도 전부 스승 아닌 게 없구나. 모두 나같이 살라고 하는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게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겨울철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앙당한 가지만 남아서 그냥 휙휙 날려요. 그럴 때 보면 또 생각이 나기를, 보면 보는 대로 그런 거예요. 아, 인간이라면 아주 정이 많죠? 모두 사랑 아니면 모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놈의 사랑 때문에 울고불고 웃고 즐기고 이러죠. 그런데 그런 걸 볼 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너는 참 앙당한 가지만 남고 옷을 다 벗고도, 그렇게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봄을 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 있게 기다려 주는구나. 임이 오기를 말이야. 그 벗은 나무가 잎새가 다시 필 때를 기다리면서, 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모진 바람에 휘달리고 눈보라에 휘달리면서도 조금도, 뭐 군말 하나 없이 그렇게 의연하게 가는구나.' 그런데 사람은 뭔가. 조금만 해도 펄쩍펄쩍 뛰고, 조금만 해도 이런 게 치민다고 하고, 조금만 해도 내던져 부수고, 조금만 해도 그냥 때리고 쥐어박고…. 이게 도무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꼬리가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내게 하는 것도 바로 그 한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아이, 좀 피곤하지 않아? 그냥 그 생각 좀 이렇게 안 나게끔 해.'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해요. 그런데 정히 생각할 게 있으면 해야죠. 하면서도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게을러서, 마음이 게을러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진 몰라요.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는, 꽉 차서 돌아갈 때는 여유가 없어서 딴 생각 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에 그냥 꽉 맡기고 생각 날 때마다 그냥 '너 알아서 해.' 하고, 진짜 생각을 해야 할 거는 또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아주 마음이 편안하게 돼 버려요. 마음부터 편안해져요, 벌써.

왜냐. 가정의 애고가 줄어들죠, 남의 탓을 안 하고 남의 원망을 안 하게 되죠. 모두가 자기 탓이니까. 깡통이 1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건 깡통 된 탓이지, 깡통이 됐기에 깡통하고 같이 부딪치지, 자기가 금인데 어떻게 깡통하고 부딪치겠소. 그러니깐 깡통 자기 탓이지, 전부 자기 탓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건 '아, 이 깡통 된 것도 내 탓이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 놓으세요.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그 가정이나 바깥의 모든 일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꾸 가죠.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도 꿈이거든요. 그 꿈을 건전하게 꾸시지, 그렇게 그냥 산만하게 꿈을 꾸지 마세요. 모든 거는 그냥,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그렇게 집어넣다 보면 편안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몸뚱이로다 삼천 배를 할 때 생각을 안 하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삼천 배를 한다 할 때, 일 배가 삼천 배…. 내가 이 공부라고 할 건 없지만 공부할 당시에 '삼천 배가 일 배요, 일 배가 삼천 배다.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프로펠러와 같다. 그런데 어느 때에 절할 때 네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모든 것을 정돈해서 돌아갈 때에, 돌아가게 할 그런 다스리는 마음이라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할 때 그 몸을 자꾸 하느라고 아무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무심으로 돌아갔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천 배를 일 배로 하고, 일 배를 일 초로 하고, 일 초를 없애라.' 이게 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평상시에 모든 걸 놓고 편안하게, 와선이나 입선이나 행선이나 모든 것을, 좌선이나 이런 거를 모두 한데 합쳐서 그냥 생활 자체를 참선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용광로에다가 그냥 다 놓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갈 텐데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그거를 맛을 본다면 부(父)와 자(子)가 동반해서 부 노릇을 할 때는 부로 하나가 되고, 자 노릇을 할 때는 자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 문수보현 아닙니까? 이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진짜, 참선이라는 것을 실험해 보고 체험하려면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대로 해야 하고, 이 상대를 놓고 비는 그 마음은 아예 없애야 돼요. 상대를 놓고 믿거나,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그게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앨 쓴다거나 그런다면 참선에는 그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좌선도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모든 게 일체가 가라앉고 모두 그저 의연하게 돌아가야 그게 좌선이지 아니, 몸뚱이를 꿇어 앉혀 놓고 마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통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좌선입니까? 마음이 편안하면은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좌선입니다. 좌선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 평상시에 모든 걸 놓고 편안하게,
> 와선이나 입선이나 행선이나 좌선이나
> 이런 거를 모두 한데 합쳐서
> 그냥 생활 자체를 참선으로 돌려야 됩니다.
> 그렇게 내 마음의 용광로에다 다 놓게 되면
>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갈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유전성 질병도 극복할 수 있는지요

문) 저의 시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 또한 현재 폐가 좋지 않아 무척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유전성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유전성으로 인한 질병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사람마다 누구나가 다 두뇌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과거로부터 어저께에 있던 것도 거기에 입력이 돼 있고 삼천 년 전에 있던 것도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이 차곡차곡 돼 있으면서 입력된 대로 나오거든요. 입력이 돼서 나오면 그대로 지금 남편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거를 그냥 되입력 해서 거기다 놓으세요. '주인공, 너만이 다 이게 유전성이고 뭐고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 놓으면은 거기에서 그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이게 새로이 입력이 들어감으로써 병도 나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게 관하고 보이는 데서는 음식을 조절해서 먹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음식을 먹이는 데도 똑 이게 몸에 좋다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남편 몸이 좀 허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미리미리 살면서 보해야 되죠. 이렇게 윗대의 분이 그렇게 됐으면은 잘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신경쓰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그런 병이 생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결정을 짓고, 놓고 관하고 이렇게 가시면은 금방 그 살림이 달라지죠. 그렇게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세요. 주인공이라는 게 바로 자기의 에너지니까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문)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공포감이 밀려와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요.

답) 높은 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기증이 나고 그러죠. 그걸 그냥 얕은 데 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평정한 데 소로길이 있어서 그냥 지금 딛고 간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럼 옆으로 떨어질 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죽는 거를 아주 애틋해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죽이거나 살리거나 너 알아서 해라.' 할 때엔 현기증도 안 나고 젊음이 그냥 용솟음치죠. 그렇게 주인공에다 맡겨서 그 패기를 길러요. 패기가 나오는 것은 기운이 있어야 패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운이 아주 없어도 패기는 생겨요.

옛날에 공부를 하다 보니깐 먹질 못해서 그냥 가다가 엎드러져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어디 가 쓰러졌느냐 하면 소똥 있는 데 가선 머리를 박곤 쓰러진 겁니다. 누가 소똥이 거기 있는 줄 알았나요? 그게 보통 얘기니깐 그렇지, 그 당시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머리 냄새 나니까 머리 씻어야잖아요. 그런데 비누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진흙을 파서 진흙으로다가 씻고선 머릴 감아야지 되거든요. 진흙으로 해야 그 냄새가 다 빠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그냥 알고 산다 이러질 말고 미련하게 '너만이 아니까 너만이 냄새 안 나게 해야잖아.' 할 때 '그럼 저걸로 해 봐.' 이렇게 뜻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다기보다 패기가 없다고 할까. 얼른 쉽게 말해서 그냥 덤벙 뛰어넘질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다 놓고 뛰어보세요. 앞뒤를 그냥 다 놓고 '그 가운데는 주인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는 그냥 주인공에다 탁 놔 버리고 '알아서 해!' 이렇게요. 이 공부라는 것이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김상현 교수를 추모하며

원효 · 효당 스님 만나 화엄경지 갈무리 하시길…

장마 속에 전해진 임의 운명소식은 비를 핑계 삼아 그 속에 뛰어들어 하염없이 울고만 싶은 심경이었다. 임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은 내겐 차라리 배신이었다. 얼마나 살았다고? 한 게 뭐있다고? 앞으로가 참 인생인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이다지도 허무하게 떠나셨단 말인가?

효당(曉堂, 1904~1979) 스님께 같이 가르침을 받았고, 정갈한 한복과 두루마기를 입고 늦장가를 들 때에도 내 같이 설레었었으며,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취직 했을 때, 또 얼마나 우리 기뻐했던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동네에서 인생의 조언자로 또 말벗으로 평생을 함께한 두터운 교분이었는데, 정년 후엔 화랑도의 풍류를 늘그막에나마 맘껏 즐겨보자고 언약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학교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게 한 마디 암시도 없이 이렇게 무심히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원망스럽고 분해서 먹먹한 맘으로 먹구름 낀 하늘만 멍하니 바라다볼 뿐이다.



삼성출판박물관 삼성뮤지엄아카데미(SMA) 김상현 교수의 '삼국유사' 강의 당시 김상현 교수(둘째 줄 오른쪽 4번째)와 필자(둘째 줄 오른쪽 5번째)

1960년대 후반 필자가 부산에서 효당 스님을 처음 만날 무렵 합천이 고향인 청년 김상현과도 첫 대면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그것은 필자 인생에 있어 큰 인연이었다. 당시 필자가 채 서른도 안 된 나이였으니 김상현 역시 혈기 등등한 청년이었다. 사천 다솔사를 오가며 필자가 스님을 통해 풍류를 배웠다면 청년 김상현은 원효와 화엄사상을 보았을 것이다.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는 필자와 김교수는 고 김충렬 고려대 교수 등과 의기투합해 차선회를 만들기도 했으며, 필자가 설립한 삼성출판박물관에서 불교철학을 지금까지도 담론해왔었다. 90년대 당산동 시대 삼성문화강좌가 김충렬 교수의 주역과 노 · 장자가 중심이었다면, 박물관이 지금의 구기동으로 이전해 터를 잡은 2000년대 삼성뮤지엄아카데미(SMA)는 김상현 교수의 삼국유사와 원효, 화엄사상이 핵심이었다.

김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배인 고매한 인격자로 화엄사상의 전법사였으며 단구의 원효였다.

김 교수님 이제 세속에서의 이고 다녔던 모진 번뇌 낮게 내려놓으시고 당신이 그토록 정진했던 이상의 가치 불국토에서 효당 스님을 만나 사바세계의 안부고이 전하시고 원효대사와 조우하여 이내 못다 한 화엄사상의 경지를 갈무리해 보시길 삼가 빌어본다.

상현 아우님! 이승에서의 깊은 인연의 끈 피차 잠시 놓고 부디 영면에 드시게나.

김종규 〈문화유산신탁 이사장〉

발언대

잇달은 인재, 이제는 그만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고,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한 주동안 벌어졌다. 두 사건은 모두 인재라는 데 공통점을 가진다.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인재에 대한 사부대중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부처님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남전 스님
조계종 기획국장

지난 한달 간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고,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한 주동안 이어졌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에 피해가 더욱 컸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들이다.

태안의 해병대 캠프와 노량진 배수로 인명사고의 원인을 돌아보면 모두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진 것이다.

이런 사태는 모두 인명을 경시하는 현대사회의 풍조에서 나온다. 인명을 우선으로 하는 노동과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 모든 일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량진 수몰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와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교관들의 부주의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에게 애도의 뜻을 밝힌다.

조심이 재앙을 막는 부적



김 형 중
동대부여중 교법사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참여했던 5명 어린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뉴스로 지켜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법사의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그리고 입시경쟁으로 피폐해져 있는 학생들이 극기체험이라는 명분으로 병영캠프에 보내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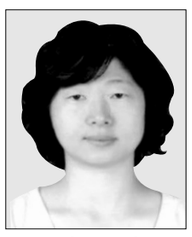
그들이 부모와 함께 조용한 산사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템플스테이를 갔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극한 체험이 인간을 성숙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극단으로 몰린 요즘 학생들에게는 심신을 맑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 가능한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발생은 어리석음의 소치다. 조심하는 것이 만사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기초며 이것이 곧 계율이다.

조심이 곧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재앙을 막는 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전점검 매뉴얼 만들어야



한 주 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해병대 캠프를 인솔한 공주사대부고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인솔해 캠프를 진행하던 중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이를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무책임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다.

국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아동 · 청소년 캠프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가 행사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만약 그런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 행사 주최측이 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든지 하는 철저한 계약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계에서도 여름 캠프를 할 때 특별히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 기본안전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면 사전점검을 했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력이 부족해 사전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다면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파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부모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챙겨보기 때문이다.

社說

새 군종교구장에 거는 기대

제3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에 정우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7월 25일 열린 군종교구 교구장 이취임식에서 정우 스님은 "군포교의 주체는 현장에서 뛰는 현역 군승들"이라며 "군승 법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일성으로 군포교 최일선에서 뛰는 현역 법사를 존중하고 지원과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사실 군포교의 주체는 군승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군승과 현장의 포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포교의 성패를 좌우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군승 지원자 수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은 군종교구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포교조직의 활성화도 과제다. 현재 군종교구는 현장의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군승 교육과 함께 2012년 6월부터 군포교지원단 체협의회를 결성해 관리하고 있다. 군승 수급이 어렵고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활동하는 포교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우 스님이 밝힌 후원체계 확립과 함께 '문화포교'를 군 포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현재 군종교구의 연 수계인원은 10만 여명에 달한다. 일선 군법당 개보수 문제가 있지만 양적인 성장은 궤도에 오른 상태라는 평가가 많다.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함께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육군의 한 중진급 군법사는 "10만 수계 중 불자로 표기하는 이는 8만 명에 불과하다. 불교 가르침보다 잿밥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신심을 키우는 포교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군불교는 미래 한국불교를 책임지는 황금어장이다. 새로 출범한 군종교구가 그간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군불교 발전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정전 60년, 끝나지 않은 '6 · 25'

민족의 비극인 6 · 25 전쟁 정전 60주년이 됐다. 북한이 1950년 6월25일 새벽 기습적으로 남침하자 유엔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군을 파병했다. 수많은 한국과 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이름으로 침략군인 북한군,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또 정전 2개월 후 탄생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전 후 지금까지 세계는 크게 변화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몰락하고 냉전 상태가 끝났다. 공산주의가 퇴조한 상태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중국은 6 · 25 전쟁 때 북한 편에 서서 한국군 및 유엔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지금은 한국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외교적으로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는 평화를 끝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월 27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오늘은 종전뿐만 아니라 길고 풍요로운 평화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어떤 기념비도 그들의 노고에 비견할 수 없고 그들의 희생이 빚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그들을 기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전이라는 표현으로 6.25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북한과의 갈등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평화협정이나 미군철수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고 다방면에서 남북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한 역시 북한이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인도적 지원과 문화교류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 어떠한 경색 국면이 와도 불교계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열어둬야 한다. 그래야 대화의 실마리가 남는다. 정전 60주년이 통일의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개강 :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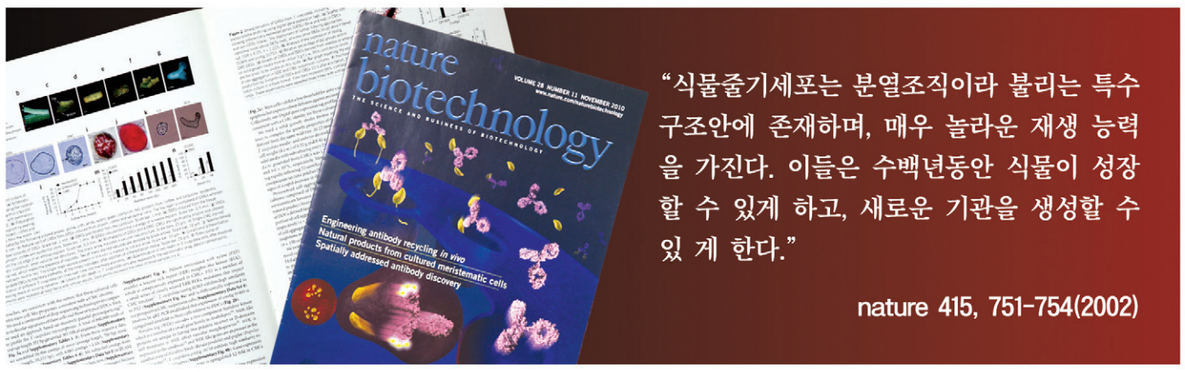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샘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



"식물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nature 415, 751-754(2002)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 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 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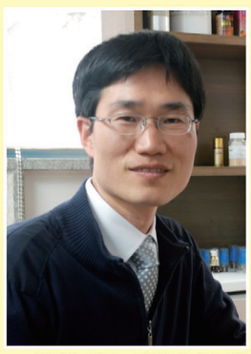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Green Certificatio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NET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9001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

B1~2 불교중앙박물관 사찰 성보박물관

B3~5 특별한 템플스테이

B6~7 불서 12선

B10~11 그 섬 그 절 그 산 그 절

성보 문화재와 대화하며 더위 식히자

불교중앙박물관 도심 문화의 보고 …석가탑 사리장엄구 등 성보 문화재 740점 보유

한여름의 절정 8월이 왔다. 굳이 먼 바다와 산을 찾지 않더라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싶다면 박물관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다.

오랜 시간을 지나온 유물들은 옛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말해준다. 불교문화재 성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띤 유물들은 우리 불교의 변천사와 부처님 가르침을 온몸으로 이야기해준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 위치한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원학)은 불교문화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공간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도 진행돼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여름 나들이를 떠나보자.

불교중앙박물관은 도심 속에서 불교미술을 접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조계사는 물론 인사동 경복궁 삼청동과 이어지면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궁금해하는 관광객들이 필수로 찾는 곳이기도 하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도심속에 위치한 성보박물관으로 다양한 전시를 마련 대중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문화재로 만나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팔상도'와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경전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다양한 불교유물이 상설 전시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획전이 마련돼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전시중인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 기획전은 9월 15일까지 한달 연장 전시가 결정되었을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계사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것은 물론 1930년대 당시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상량유물이 최초로 공개돼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전시는 △일제강점기의 불교와 조계사의 창건 △조계사 대웅전을 만든 인물 △조계사 대웅전 발견 상량유물 △현재의 조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불교중앙박물관의 대표 유물은 무엇일까? 불교중앙박물관은 국보 1건, 보물 18건 등 총 740여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국보 126호인 석가탑 사리장엄구다. 이는 1966년 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과 함께 이관했다.

또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유물도 주목할만하다. 조선초기 불상과 불감, 복장 유물 등으로 지난해 12월 보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보물로 지정된 서울 개운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출토 복장유물, 의성 운람사 목조 아미타 불상의 복장유물인 초조대장경 등이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사찰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전적류나 복장유물의 경우 불교중앙박물관으로 기탁되어 전시와 보존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무구정광대다리니경



석가탑사리장엄구(국보 126호)

상설 · 기획전 · 문화강좌 등 다채
'조계사 창건…' 展 9월 15일까지 연장
'사찰에는 누가 살까' 방학프로그램 마련

소외계층 위한 무료강좌도 마련

초·중·고 학생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불교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2013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사찰에는 누가 살까?'가 8월부터 운영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초·중·고 학생에게 열려있는 교육으로 불교문화재의 이해를 돕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PPT 강의 후 전시실을 돌며 유물을 직접 감상하면서 실제 내용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체험 교육으로 탑만들기가 있다"고 설명한다.

8월 3일~9월 8일(8월 31일, 9월 1일 제외) 매주 토 · 일 오전 10시 30분~12시 진행되며 체험프로그램 재료비는 1인당 5000원(10명 이상 단체는 3000원)으로 소외계층에게는 무료 진행된다.

앞으로 불교중앙박물관은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등으로 유명한 인각사의 유물전을 11월경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불교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리 불교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알고 싶다면 불교중앙박물관으로 가보자. 그곳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올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한 당시의 시대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해줄 것이다. 그때에도 지금도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다르지 않았노라고. (02)2011-196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성보박물관, 불교교육·지역문화 거점"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원학 스님



문화재 보존 · 종단차원 관심 절실
관장 부임 '동다송' 문화강좌 진행

"불교중앙박물관이 그간 불교계만이 할 수 있는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반해 오히려 종단내부에서 관심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70%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불교계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원학 스님〈사진〉은 불교 문화재 보호는 불교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7월 23일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실에서 스님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교문화재 인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스님은 지난 학기 〈동다송〉을 상반기 문화강좌로 진행했다. 불교중앙박물관 자원봉사회 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강좌는 올 하반기 강좌를 마치면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스님은 아쉬움이 많다. 현재 박물관 형편상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소규모로만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은 한국역사문화기념관 내에 총무원 청사와 더불어 공간을 사용하고 있죠. 이러다보니 총무원 청사라고 해야 할지 박물관이라고 해야할지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이름 그대로 불교박물관을 대표하는 공간이 불교중앙박물관인데 그 규모나 활용도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죠. 그러다보니 대중들을 대상으로 정기 강좌를 할 만한 공간이나 다양한 전시공간도 부족해요.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전국의 성보박물관은 총 34개. 하지만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스님은 성보박물관이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보박물관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부분이 많아요. 대부분이 본사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말사 성보문화재 관리 등을 본사가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 성보박물관이죠. 이렇게 지방 성보박물관이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중앙 종단의 부담도 훨씬 줄 것입니다."

스님은 전국의 성보 박물관이 불교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성보 박물관은 전시는 물론 불교문화재 홍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불교문화는 교육을 통해서 재인식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불교문화를 알아야 한국문화를 알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죠. 자부심을 가지고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보박물관의 현실은 어렵기만 한 걸까? 스님은 예산 미비, 문화재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보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도 필요하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공연장 · 박물관 · 미술관 · 사적지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잖아요. 불교문화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단 차원에서 기금 확보를 통해 성보문화재와 성보박물관을 지원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불교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 학술용역사업을 수주 받아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15년 간 매년 20억 원을 지원받는 장기 프로젝트로 소실 위험이 있는 금석문의 원형 탁본 자료를 채탁해 명문을 영구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사 사업은 사찰이나 사지뿐 아니라 모든 금석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탁본 사업 이후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사업이죠. 현재 책임연구원과 실무진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했고, 전국 50여 곳의 현장조사를 통해 현 금석문 유물의 보존 상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죠. 이런 사업을 통해 성보박물관의 활동이 활성화 되고 예산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성보박물관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정부의 지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원학 스님은 오늘도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원학 스님은 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사불교대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0 · 11대 중앙종회의원과 진주 연화사 주지, 대구 용연사 주지, 조계사 주지, 총무원 문화부장,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한여름의 더위도 쉬게하고
잠시 나를 내려 놓아 보자!
"

참가대상 여성 30명
참가비 일반인 20만원/ 학생 10만원
일정 4박 5일
8월 14일(수) 오후 4시부터 ~
8월 18일(일) 오전 10시 까지
프로그램 팔관재계 수계, 마음나누기
발우공양, 다도, 걷기명상, 예불
큰스님 법문, 사찰음식체험
108염주 만들기, 사찰예절과 문화
사브라나코치 Design my best life
문의 및 안내 참가신청 http://goo.gl/6jEjM
봉녕사(수원) 031.256.4127
스마트봉녕 m.bongnyeongsa.org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어플다운가능)

9월 추석맞이 남녀 방콕탈출 템플스테이 1박2일 9/18(수)~19(목)
10월 나도 가을 탄다 템플스테이 1박2일 10/26(토)~27(일)
11월 화목한 가족만들기 템플스테이 1박2일 11/23(토)~24(일)
12월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템플스테이 1박2일 12/31(화)~1/1(수)



대한불교조계종 奉寧寺

여성 단기출가
봉녕사 템플스테이
아름답고 청정한 절

그 절에서 만난 성보… 여름 휴가 또다른 추억이

사찰 성보박물관

여름휴가로 계곡과 숲이 있는 산사여행을 계획했다면 성보박물관을 들러보자. 각 지역 사찰 성보박물관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문화재로 가득하다. 송광사의 화엄경변상도, 월정사 은제도금여래입상, 범어사의 백의관음도 등 다양한 성보들은 대중들에게 불교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문화재도 만나고 옛 조상들의 불심도 느낄 수 있는 성보박물관은 여름을 맞은 불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름휴가로 산사를 택했다면 성보박물관에 들러 문화재도 관람하고 추억도 만들어보자. 사진은 월정사성보박물관 체험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부채만들기를 하는 모습.



범어사성보박물관 전경. 국가지정 보물 4점을 비롯해 부산시 지정 문화재 23점 등 총 55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송광사… 最古 '화엄경변상도' 주목

법맥의 역사가 긴 사찰답게 국보를 세 점이나 보유하고 있다. 송광사의 대표적 유물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은 보조국사 지눌의 원불로서 세밀한 조각기법이 돋보인다. 4년 전 국보 제 314호로 지정된 '화엄경변상도'는 1770년(영조 46)에 조계산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연화 스님을 비롯한 13명의 승려화가들이 참여한 불화로 국내에 알려진 채색 화엄경변상도 중에서 연대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령처럼 생긴 금강저(시도유형문화재 제22호)는 제석천이 아수라와 싸울 때 무기로 썼다는 도구로 쥐고 있으면 묵중하고 엄숙한 기분이 감돌아 잡념을 굴복시켜 부처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 당시 지은 글인 권수정혜결사문, 참선 입문서로 여겨지는 수심결 목판본,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받아온 티베트문 법지, 사리함,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요령, 16조사진영 등이 전시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권기금사업 체험프로그램 박물관으로 선정돼 10월 말까지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1년에 두 번씩 특별전이 실시되며 현재는 8월 말까지 은입사특별전 '천지가 꽃이로다'가 열리고 있다.

범어사…원효대사 등 진영 50여 점

신라 문무왕 때 (678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산의 범어사는 2003년 개관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국가지정 보물 4점을 비롯해 부산시 지정 문화재 23점 등 55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전적과 책판 및 불교회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표적 유물로는 〈삼국유사〉 〈불조삼경〉 〈금강요집경〉 〈주범망경〉을 비롯한 1,000여종의 전적과 27종의 경판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설 신화가 수록된 〈삼국유사〉(보물 제 419-3호) 제5편을 범어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국청사금고(보물 제 1733호)는 희소성 있는 조선 전기의 징으로 후면에 양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또한 백의관음도를 비롯한 20여점의 불화와 의상대사진영, 원효대사진영 등 50여점의 진영도 소장하고 있다. 그 외 편액과 현판, 기타 공예품과 더불어 불교정화운동으로 한국 근대불교를 이끈 동산대종사의 유물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가을마다 특별전시회를 마련하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1950년대 불교정화운동을 이끌었던 '동산대종사진영 특별전'을 올가을 마련한다.



범어사 국청사금고(조선후기 징)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보물 제1354호)

송광사 등 전국 34개 성보박물관
국보 보물 등 소장 유물 '다채'
월정사 '유묵전' 등 특별전시도

월정사… 전통등 만들기 등 행사 '다채'

신라 이래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성보와 역사적 유물,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맴도는 오대산 월정사. 휴가철을 맞아 월정사성보박물관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시원하게 더위를 쫓으라고 마련한 부채에 삶의 희노애락을 담은 민화를 그려보기도 하고 '마음을 밝히는 전통등 만들기' 행사에 참가해 직접 등을 만들며 우리문화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볼 수도 있다. 행사는 8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진행된다.

또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한암 · 탄허 스님 유묵전'이 10월 10일부터 월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기어린 가르침과 인품이 스며든 글씨를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불상과 불화, 사리 등 관람하는 재미가 쏠쏠한 월정사에는 총 641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월정사의 팔각구층석탑을 해체복원할 때 출토된 사리장엄구, 은제도금여래입상, 청동거울을 비롯 상원사목조문수동좌상 사리와 수정주, 석가의 일대기를 다룬 월인석보, 고려대장경 등도 소장하고 있다.

통도사… 괘불탱 특별전 '이색'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보물 10점을 비롯해 총 400여 점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청동은입사향완(보물 제1354호)은 조선시대 유물로 빼어난 은입사기법과 섬세한 문양으로 미술사적 의의가 남다르며 영산회상탱(보물 제1353호)은 묘사가 뛰어나고 선명한 색채가 돋보인다.

대형괘불 전시도 주목할 만하다. 박물관 중앙홀에 높이 10m이상의 대형 괘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설치 매년 2회 전국사찰 소장 괘불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는 부여 오덕사 괘불탱 특별전을 10월 12일까지 진행한다.

대흥사… 초의선사 유물 만나는 '초의관'

다도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대흥사답게 초의선사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초의관이 인상적이다. 여기에 서산대사를 기리는 유물관 등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휴정선사가 쓰던 바루, 일보염주, 신발을 비롯해 승병을 이끌며 사용했던 승군단 표지, 소리나팔, 호패 등이 전시돼 있다. 총 1백여점의 문화재와 대흥사관련 고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 제1547호)은 자연스레 처리된 옷주름 등 조각기법이 우수하며, 고려시대 제작된 탑산사동종(보물 제88호)은 문양이 매우 섬세하다.

배현진 기자

전국 사찰 성보박물관 목록

번호	교구	성보박물관명	위 치	연락처
1	1	불교중앙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02)2011-1960
2	2	용주사 효행박물관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031)232-0660
3	4	월정사 성보박물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033)339-6633
4	5	법주사 성보박물관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043)543-3615
5	6	마곡사 성보박물관	충남 공주시 사곡면	(041)841-6221
6	6	갑 사 보장각	충남 공주시 계룡면	(041)857-8981
7	7	수덕사 근역성보관	충남 예산군 덕산면	(041)330-7777
8	8	직지사 직지성보박물관	경북 김천시 대항면	(054)436-6009
9	8	용문사 성보박물관	경북 예천군 용문면	(054)655-1010
10	9	동화사 성보박물관	대구 동구 도학동	(053) 984-4410
11	10	은해사 성보박물관	경북 영천시 청통면	(054)335-3318
12	11	불국사 성보박물관	경북 경주시 진현동	(054)746-9912
13	11	기림사 유물전시관	경북 경주시 양북면	(054)744-2292
14	12	해인사 성보박물관	경남 합천군 가야면	(055)934-3150
15	12	청곡사 성보박물관	경남 진주시 금산면	(055)762-9751
16	13	쌍계사 성보전	경남 하동군 화개면	(055)883-9241
17	13	옥천사 보장각	경남 고성군 개천면	(055)672-2737
18	14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산 금정구 청룡동	(051)508-6129
19	15	통도사 성보박물관	경남 양산시 하북면	(055)382-1001
20	15	표충사 호국박물관	경남 밀양시 단장면	(055)352-1070
21	16	부석사 성보박물관	경북 영주시 부석면	(054)632-1550
22	16	봉정사 유물전시관	경북 안동시 서후면	(054)853-4181
23	17	금산사 성보박물관	전북 김제시 금산면	(063)548-7844
24	18	백양사 성보박물관	전남 장성군 북하면	(061)392-7566
25	18	불갑사 성보관	전남 영광군 불갑면	(061)351-1680
26	19	화엄사 유물관	전남 구례군 마산면	(061)783-7600
27	19	흥국사 의승수군유물전시관	전남 여수시 중흥동	(061)685-6433
28	21	송광사 성보박물관	전남 순천시 송광면	(061)755-0407
29	21	대원사 티벳박물관	전남 보성군 문덕면	(061)852-3038
30	21	보림사 성보박물관	전남 장흥군 유치면	(061)864-0019
31	22	대흥사 성보박물관	전남 해남군 삼산면	(061)534-5558
32	22	도갑사 도선국사성보관	전남 영암군 군서면	(061)473-5122
33	22	무위사 성보박물관	전남 강진군 성전면	(061)432-4974
34	24	선운사 성보박물관	전북 고창군 아산면	(063)561-1421



"산책을 할 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산을 오를 때 경험하는
고요한 행복과 늘 함께할 수 있다면"

불안과 충동을 다스리는
여덟 가지 방법

조화로움

스테브 테일러 지음 | 288쪽 | 14,000원

시간이 넉넉한데도 지나치게 빨리 걷는다,
한 번에 두 쪽 이상 책을 읽기 어렵다,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할까?
『조화로움』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불안과 충동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와 존재의 조화로움을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를 선물한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2013 여름특집

아주 특별한 템플스테이

염천(炎天)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 현대인들은 부산해진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개한다. 붐비지 않고, 힐링하면서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예약 걱정 필요 없는 곳, 따가운 햇살까지 숲 그늘에 묻히는 곳, 바로 템플스테이이다.

실제 해마다 이때쯤이면 전국의 사찰에는 템플 스테이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한다. 단순한 종교적 체험을 넘어 교육과 명상, 수양을 겸할 수 있는 독특한 휴식법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템플 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갈수록 맞춤형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심심할 틈 없는 고급 힐링 프로그램들이 내내 이어진다. 테마도 있다. 여름 휴가 기간 단식을 도와주는 다이어트형이 있는가 하면 자기계발에 충실한 프로그램, 예술인과 토크 콘서트 등 테마들이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휴식과 학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 본지는 여름을 맞아 휴가와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불자와 독자, 일반인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테마를 가진 템플스테이 12곳을 선정해 소개하려 한다. 올 여름 산사로 온 가족이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편집자 주〉

몸 튼튼 마음 튼튼

선무도 · 다이어트까지… 진화하는 템플스테이



육지장사 '다이어트 단식'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추나요법을 하고있다.

"육지장사 선차요법 만성 피로 해소에 도움"

"선무도, 건강 증진과 마음 다스리기에 효과"



골굴사 화랑수련회 참가학생들이 국궁을 쏘고있다.

풍욕·禪茶로 몸은 '가볍게' 정신은 '맑게'

육지장사 '다이어트 단식'

서울 광화문에서 약 1시간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기도 양주에는 숲 속 호수로 둘러싸인 천연(天然) 요새 도량인 육지장사가 있다.

육지장사(회주 지원) 주변 수림(樹林)에서는 피톤치드가 품어 나오고 도량 내 옥돌에서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방사돼 잠깐 앉아만 있다가도 그 효험을 바로 느껴 치유가 되는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육지장사는 정기적으로 1700년 전통을 이어온 산사의 건강비전을 템플스테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매주 수·목·금·토·일요일 열리는 '육지장사 건강 비전 템플스테이'는 장마와 무더위로 지친 불자들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최근 '1일 1식'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소식(小食)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육지장사의 템플스테이는 단식과 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격이다.

육지장사는 산사의 스님들 사이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건강비법 단식을 현대인들이 단기간에 체험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2박 3일 단기 일정으로 진행한다.

단식 프로그램은 단순히 음식물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108배 명상, 숲길 보행 명상과 명상, 단전호흡, 풍욕, 쑥뜸온구 체험, 뇌경락 추나, 옥동회랑에서의 걷기 명상 등 체내의 맑은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보통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는데 뱃살과 내장지방이 분해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육지장사는 명상과 '육지장사 선차'로 오장육부를 쉬게 하고 몸속의 중금속, 노폐물 등을 배출시켜 만성피로를 줄인다.

육지장사는 "육지장사 선차요법은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여성의 어혈과 남성의 간청소를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암, 당뇨병, 부인병 등 성인병에 대한 자연치유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지장사는 게르마늄 맥반석 옥돌과 쑥뜸 온구체험, 옥돌보행 및 모유정 체험 등 육지장사만의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은 "인간의 몸을 주관하는 신경에는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과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단식 중에는 부교감신경만이 활동해 느긋해 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짜증이 많은 사람이나 수험생, 업무 효율이 떨어진 직장인에게 적합한 템플스테이"라고 설명했다. (031)871-0101 이나은 기자



육지장사 템플스테이에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하고있다.



육지장사가 개최한 청소년 비만캠프

불가 무술 선무도 내 몸을 치유하다

골굴사 '화랑수련회' 등

중국 소림사는 쿵푸의 발상지이다. 실제 중국 무술은 소림사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도 전통 불가 무술을 전승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 골굴사는 선무도의 본산으로 오래 전부터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무도는 유에서 강으로 발전한다. 마치 택견의 몸놀림 같다. 원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아나파나사티'라는 호흡법을 중심으로 한 참선 수행법이다. 여기에 선기공과 선무술을 가미해 강으로 나아간다.

실제 골굴사의 하루는 선무도로 시작해 선무도로 끝난다. 아침 공양을 마치면 선무도 수련 중 하나인 요가와 기공을 하고 108배로 나태한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진다. 점심공양 후에는 스님과 운력을 하면서 땀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저녁 예불을 올린 뒤에는 본격적인 선무도 수련과 참선 수행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방학 시즌에는 이같이 선무도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화랑의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선무도 화랑수련회'를 골굴사는 매년 선보이고 있다. 이미 템플스테이가 선보이기 전인 1990년대부터 시작됐으니 약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련회다.

7월 21일부터 시작된 화랑 수련회는 아직 8월 4~10일, 8월 11~17일, 8월 18~ 24일, 3차례의 기회가 남아있다. 화랑 수련회라고 해서 단순히 무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108배 참회 기도와 명상, 독서 등 인성 교육부터 영어 회화, 승마, 국궁, 다도 등 건강과 교양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같은 화랑 수련회는 현재 대안학교로도 확대됐다. 골굴사가 선무도 화랑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랑사관학교는 기본 교과과정을 비롯해 영어 회화, 한문 교육, 서예, 국악, 봉사활동, 해외배낭여행 등을 커리큘럼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골굴사는 선무도를 전문적으로 수련하기 위한 수련자들을 위해 장기 입산 템플스테이의 문도 열어 놓고 있다. 실제 1달 이상 골굴사에 머물며 선무도를 수련하는 이들도 10명을 상회하고 있는 부분은 선무도의 인기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골굴사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는 보림 법사는 "골굴사는 매년 2만 7천여 명이 다녀갈 만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템플스테이 사찰이다"이라며 "일반인에게 좌선은 쉽지 않는 수행법이지만, 선무도는 몸을 움직임으로서 건강을 증진하고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고 말했다. (054)744-1689 신중일 기자



화랑수련회 참가자들이 승마를 하고있다.



선무도 수련을 하는 학생들.



[나눔투어모집]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공식과 함께하는 나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산사에서 쉬고, 명상하니 내 마음엔 편안함만이



동화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폭포명상을 하고있다.



백담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숲 명상을 하고있다.



금산사 명물 템플스테이 '내비둬 콘서트'



전등사 선체험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메르소나 가면을 들어보이고 있다.

아픈마음 힐링하세요

놀고 쉬고 싶다면 오세요

금산사 '내비둬콘서트'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일명 '놀이하는 인간'. 인간은 놀이로서 문화를 발전시키며 진화해왔다는 말이다. 전북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의 템플스테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상의 미사여구는 불필요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모토는 '놀면서 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금산사의 명물 템플스테이 '내비둬 콘서트'다. 여타의 템플스테이와는 달리 '내비둬 콘서트'는 지도법사 일감 스님과 특별 게스트가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이다.

올 여름 '내비둬 콘서트'는 산사에서의 휴식은 물론 매주 다른 예술인들이 나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들 함께 이야기하고 놀면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이번 콘서트의 게스트도 눈길을 끈다. 8월 3일에는 사람의 마음과 향기를 담아 노래하며 홍대 인디 무대를 접수한 전북지역 출신 실력파 밴드 '휴먼스'가 출연한다. 이어 8월 10일에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관객들과 웃음과 울음으로 소통하는 이 시대의 광대 '김명자' 씨가, 8월 17일에는 풍선과 버블에 마임을 더해 한바탕 큰 웃음을 선사하는 마임이스트 '최경식' 씨가 나온다. 마지막인로 8월 24일에는 허스키한 목소리에서 시원한 에너지가 뿜어내는 록커 '조성일' 씨가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금산사는 1년 365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나는 쉬고싶다'는 주제의 템플스테이는 여러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나'를 1년에 한 번쯤은 편안하게 놓아주자는 의미를 가진다.

지도법사 일감 스님은 "현대인들은 쉬는 것마저도 자기 계발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금산사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만을 제외하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놀고 쉴 수 있게 배려하려 한다. 단순하게 쉬어가는 것이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모토"라고 밝혔다. (063)542-0048 **신중일 기자**

듣고 들으니 저절로 '힐링'

대구 동화사 '청마풀'

대화의 기본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내 진심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현대인은 고독할지 모른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 템플스테이의 슬로건은 '청마풀'이다. '들어주고(聽) 마음을 풀어준다'고 풀이된다. 마음치유는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과 고통을 털어놓게 하고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모토가 남긴 슬로건이다. 때문에 '청마풀'은 스님과 차담 시간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팔공산 위로 펼쳐진 별의 바다를 보며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부터 숲길 걷기 명상, 한방 체험 등도 동화사 '청마풀' 템플스테이의 매력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마풀' 템플스테이도 여름방학 동안 이어진다. 청소년 대상 '청마풀' 템플스테이에는 스님과의 대화는 기본이고 폭포 명상 후 간식 먹기, 캠프파이어 등이 추가돼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동화사는 '실바람(체험형)', '오르막길(수행형)', '쉼표와 느낌표(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상시 템플스테이에도 동화사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동화사 템플스테이 관계자는 "삶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산사의 절제된 생활과 명상을 통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계기를 동화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찾았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참가자가 가진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위해 지도법사 혜문 스님이 대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인 대상 '청마풀' 템플스테이는 8월 2~4일, 9~11일에 걸쳐 진행되며, 청소년 대상 '청마풀' 템플스테이는 5~8일, 15~17일 열린다. (053)982-0223 **신중일 기자**

인생 목표 위한 '휴먼디자인'

강원 백담사 '붓다코칭' 등

설악산 백담사(주지 삼조)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님의 침묵'을 탈고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마음의 고향과 같은 백담사는 자신의 마음 밭을 일구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템플스테이가 존재한다.

백담사의 템플스테이는 목표 단계가 있다. '도전하자, 나를 알자, 나를 깨자, 새로 태어나자, 행복한 인생을' 등 6단계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를 단순히 휴식의 장이 아닌 치유와 자기 계발의 장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봐도 알 수 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차훈명상', '자비명상', '맥놀이 명상', '시심즉불', '차 명상'으로 구성된 체험형 프로그램은 전통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자기를 돌이켜보고 성찰함으로써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월 진행되는 '참사랑 가족 명상 템플스테이', '참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등의 프로그램은 취학아동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 여름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7월26일~8월15일까지 3주 과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자기 주도형 학습력 개발 템플스테이의 경우 모집 인원 2배가까이 상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와 연계해 부모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부모역량 개발 템플스테이(8월 14~15일)와 자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붓다코칭 스킬 기본과정(8월 23~25일)이 함께 진행되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백담사 템플스테이 관계자는 "백담사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이 의미와 목적에 달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먼디자인"이라며 "미래를 정확히 설정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033)462-5565 **신중일 기자**

참선으로 나를 찾고 싶다면

전등사, '선 체험 수련'

'지금 당장 힐링이 필요해'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강화 전등사로 떠나자.

전등사(주지 범우)는 8월 6~8일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여름 특별한 템플스테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진행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선(禪) 체험 수련회'가 주요 테마다. 나를 찾아 떠나는 힐링 여행인 만큼 전등사는 프로그램 첫날 참선 기초 습의를 거쳐 둘째 날과 셋째 날 매일 오전과 오후에 35분 참선 15분 방선을 진행한다. 또한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사찰 현장학습을 비롯해 저녁예불 및 108배 정진, 삼랑성 '숲길 걷기명상'과 참선정진과 주지 범우 스님의 법문이 마련됐다. 이 밖에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만나는 페르소나 마스크 만들기'가 진행된다.

포교국장 도일 스님은 "10년 째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반응이 좋다. 평소 1박 2일로 돌아가는데 외국인들이 한 달 평균 100명 정도 참석 할 정도로 인기"라며 "일상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면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본래 가지고 있는 참마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범우 스님은 "내 안의 참 나를 찾아가는 전등사 템플스테이는 천년고찰과 자연의 고즈넉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2)937-0152 **이나은 기자**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3×6사군자 (7.4∮×14.5㎝)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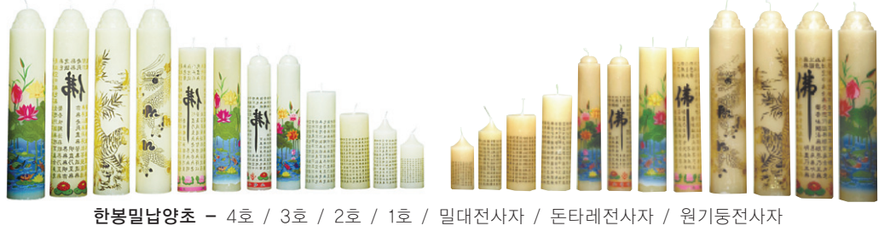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가족과 함께 산사로

교화공원 거닐며 온 가족 佛法 속으로

화성 신흥사 템플스테이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한국불교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산실이다. 오래 전부터 방학마다 어린이 · 청소년 불교 학교를 운영했던 저력이 있는 신흥사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월 신흥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두 프로그램 모두 지난해 신흥사가 개원한 교화공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화 공원 옆에 조성된 황토길을 걸으며 행선을 하며 자신을 반추하고, 밤이 되면 특별히 제작된 태양광 초를 밝히면서 신흥사만의 특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신흥사 템플스테이는 △소금만다라 자비명상 △합장주 꿰기 명상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찰음식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신흥사 템플스테이 관계자는 "교화공원 아래에서 놀면서 배우고, 자신을 생각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신흥사 템플스테이의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신흥사 청소년 템플스테이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성인 템플스테이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각각 1박 2일 간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 둘레를 걸으며 부처님의 생생한 전법의 장면을 체험하는 학생들.

가족과 함께 배우는 정조대왕의 孝

용주사 'Cool 여름 템플스테이'

시끌벅적한 피서지로 휴가를 떠나기보다 사찰에 머무르면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는 8월 3~4일 'Cool 여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템플스테이로 예불, 발우공양, 108배기도, 참선, 다도 등을 진행한다.

특히 가족참가자를 위해 '소중한 참나 알기'를 진행해 가족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절하며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우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부모의 은혜를 찾아서'를 통해 은혜에 대해 익히며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효심을 발휘하게끔 깨닫게 해준다.

이밖에 8월 9~11일 진행하는 '효 셀프 리더쉽 템플스테이'는 청소년들의 효심(孝心)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 속의 효심 찾기 △참회정진 △자신감 UP 등을 진행한다.

용주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대현 스님은 "효심이 깊었던 정조대왕이 창건한 사찰로 유명한 용주사와 윤건릉 등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정조대왕의 효를 통한 리더십과 애민(愛民)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031)235-688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용주사 템플스테이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효심을 발휘하도록 깨닫게 해준다.

배우고 익히면 좋지 아니한가



남도를 방문한 외국인 참가자들이 다도(茶道)를 배우고 있다.

남도를 느끼고 차를 마시고 싶다면

백련사 '남도기행템플스테이'

남도의 특별한 곳을 여행하며 역사와 다도(茶道)를 배우고 싶다면 전남 강진 백련사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만덕산과 함께 장관을 이루는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151호)이 있는 곳에 위치한 백련사(주지 여연)는 남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인 '남도기행템플스테이'를 8월 5~7일, 8월9~11일, 8월 23~25일에 걸쳐 진행한다.

8월 5일과 23일에 시작하는 템플스테이 '생일도 학서암-우리는 모두 별이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섬인 생일도(生日島)와 섬사람들의 의지처인 학서암을 참배하고 남도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8월 9일에 시작하는 템플스테이 '초의와 아암이 걸었던 옛길 맑은 차 한 사발'은 아암 혜장선사와 초의선사가 다산 정약용을 만나기 위해 대흥사에서 주작산 수양재를 넘어 백련사를 오고간 옛길을 거닐면서 옛 스승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이밖에 백련사에서 직접 만든 차(녹차, 홍차, 떡차)를 우리고 마시는 법, 명상, 만덕산 옛 숲길 산책 등 휴식과 체험을 겸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61)432-0837

이나은 기자



명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가족들이 판화를 새기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가족 간 情 새기는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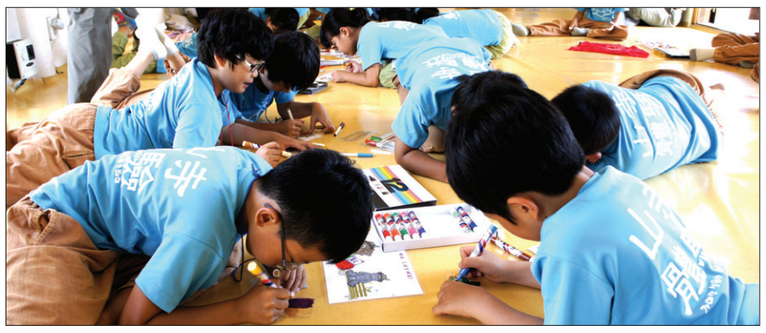
강원도 명주사 '숲속판화학교'

강원도에 위치한 명주사(주지 선학)는 판화를 새기며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가족 참여형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착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판화를 선택해 수련복에 찍어낸 '셀프 수련복'을 입고 참가자들은 목판화를 새긴다. 주로 가훈을 많이 선택하고, 이를 찍어낸 종이를 엮어 작품집도 만든다. 옛날 인쇄문화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다.

명주사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이들을 2005년부터 무료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화합의 장은 물론, 다문화가정의 경우 박물관에 전시된 티베트, 네팔 등의 판화작품을 보며 부모의 고국문화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준다. 이렇듯 내실 있는 콘텐츠 덕에 숲속판화학교는 2008년 문화재청에서 '생생문화재'로 지정, 문화재청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주사 주지 선학 스님은 "많이 보고 듣고 느낀 아이들이 나중에 큰 보물이 된다. 그렇기에 경험의 보고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보존 장소를 넘어 창의성 발전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유물을 통해 생각을 넓히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숲속판화학교는 8월 3~4일과 10~11일에 열린다. **배현진 기자**



어린이들이 심원사에서 불화를 그리며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스님들이 알려주는 신나게 노는 법

상주 심원사 '거북이 충전소'

7월 27일부터 열리는 심원사의 '검정고무신' 템플스테이는 3박 4일이 짧을 정도로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학교와 학원에 매어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노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가 더해졌다.

보물찾기와 게임미션이 결합된 '사찰 속 런닝맨'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런닝맨의 포맷을 빌려왔다. 108배도 참회의 절이 아닌 칭찬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오감명상은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한, 과일로 하는 색다른 명상이다. 이외에도 색색의 소금으로 만다라를 만들고 불화도 함께 그려봄으로써 협동심을 기른다.

특히 '불화 그리기'는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심리적 상처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색채심리 치유 프로그램이다. 색채심리를 전공한 지도법사 지인 스님이 아이들을 돌본다.

15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눈과 귀를 붙들어 두는 심원사의 검정고무신에는 정성스레 프로그램을 매만진 심원사의 손길이 담뿍 담겨있다 .

8월 한 달 동안 심원사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거북이 충전소'도 주말마다 운영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실상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교교리와 중관학, 부처님 생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중관철학 · 니까야 강독…온종일 불교공부

남원 실상사 재가불자 여름학림

승가 교육기관인 학림(學林)에서 불교를 배우는 자리도 마련됐다.

남원 실상사(회주 도법)는 8월 3~7일, 8월 10~14일 '2013 재가불자 여름학림'를 진행한다.

8월 3~7일 1차 학림에서는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이 〈니까야 강독 I 〉을 교재로 부처님의 원음을 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혜도 스님(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이 '불교입문반-부처님생애, 역사와 인문학으로 읽다'를 주제로 종교와 신앙의 대상으로 윤색된 초인 붓다가 아닌 인간 붓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8월 10~14일 2차 학림에서는 응묵 스님이 '불교입문반'을, 법진 스님(前 해인사승가대학장)이 〈근본중송〉을 교재로 중관철학을 강의한다.

혜도 스님은 "명상과 템플스테이도 좋은 추억이 되지만 체험을 통해 추상적인 기억만 남는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불교에 대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상사 재가학림이 제격이다. 붓다의 삶을 반추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63)636-3191 **이나은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불서와 함께”



마음 명상, 교리 등 장르별 12選 선정
몸과 함께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기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몇 년전 TV광고서 유행했던 카피문구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온다.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떠나지만 북적이는 인파와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기 일쑤다. 또하나의 짐일 수도 있지만 휴가길에 불서 한 권씩 챙겨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양서와 함께 하는 휴가만큼 알찬 재충전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불기 시작한 힐링 열풍에 맞춰 마음 명상 관련 번역서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정신을 힐링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에세이들도 휴가지서 가볍게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데 좋은 안내서 역할을 할 것 같다. 여기에 얼핏보면 딱딱할 것 같은 수행 교리서들도 집이 아닌 탁 트인 휴가지서 다시 꺼내 읽는다면 일상에서 못느꼈던 불법의 진한 향기를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교계 출판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휴가지서 읽을만한 불서들을 장르별로 분류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마음 · 명상 관련 번역서 봇물

성난물소 놓아주기

아잔 브라흐마 지음/김훈 번역 | 공감의 기쁨 펴냄 | 1만5천원

“명상은 인생의 고통을 멈추는 길”

〈성난 물소 놓아주기〉에서 저자는 누구나 마음에 키우고 있는 물소를 내달리게 가만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진정하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이 마구 들뜰 때, 그것이 꼭지가 확 돌아서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하고 싶어 할때면, 그냥 따뜻하고 너그럽게 마음을 보내면서 놓아보자.

인생은 고통의 여행이다. 명상은 그것을 멈추는 일이다. 우리는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책에서 아잔 브라흐마는 헛된 기대감이 불러일으키는 역풍을 버리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타고난 고요함의 상태를 체험하고 지금 이 순간의 열락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사라짐이 일어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언젠간 모두 사라진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된다.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마크 네포 지음/박윤정 번역 | 흐름출판 펴냄 | 1만6천원

진정 필요한 건 조용히 내려 놓는 것

이 책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놓친 것,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책이다.

저자인 마크 네포는 30년 넘게 영성과 시 분야에서 강의를 한 철학자이자 시인이다. 그는 암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후 내면의 변화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 책이야말로 그의 모든 정수를 담은 결실이다. 비록 그는 암을 앓으면서 큰 고통을 받았지만, 병을 이겨내면서 그의 영혼은 활짝 깨어났고 마음을 챙기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지혜와 통찰, 순간의 골수는 물론 시간의 뼈대까지 빨아들이는 뜨거운 열정을 가르쳐준다.

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하루 한두 쪽 분량은 쉽고 간결하며, 리듬감이 있고,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이동 중이나 아침저녁으로 자기만의 재충전 시간에 읽으며 힐링을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 같은 책이다.

명상하는자가 살아남는다

바산트 조시 지음/우자경 번역 | 물병자리 펴냄 | 1만2천원

현자들의 자기 변화에 대한 노하우

붓다에서 오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자들의 자기 변화에 관한 노하우와 마인드를 담은 책이다. 디팩 초프라 박사의 프로그램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유엔과 세계은행, 펜타곤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전인적이고 탁월한 비전을 강의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

그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개념과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한다. 책은 붓다, 예수, 크리슈나무르티, 카비르, 루미, 오쇼, 마하라시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현자들이 경험한 자기변화의 길을 담고 있다. 또한 명상에 관한 가장 핵심만을 쉽고 명쾌하게 정리하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저자는 개인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닌 지혜라고 말한다. 지구 자멸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혁명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영적 혁명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해력과 지력 등이 자신의 영적탐구와 깨달음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알려준다.

헤드스페이스

앤디퍼디컴 지음/윤상운 번역 | 불광 펴냄 | 1만5천원

‘10분 명상법’ 담은 자기 계발 명상서

영국에서 최초로 공인받은 명상 컨설턴트인 앤디 퍼디컴이 10여 년간의 승려 생활을 바탕으로 완성한 ‘10분 명상법’을 담은 자기 계발 명상서다.

저자가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물론, 훌륭한 스승들에게서 전수받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가득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책 중간 중간 저자가 제시해 놓은 10가지 ‘명상 연습’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책 뒷부분에는 10일간 직접 명상을 하면서 기록할 수 있는 ‘명상 다이어리’가 실려 있어, 10일간의 체험을 통해 명상의 효용을 느껴 볼 기회를 직접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 수행 3단계(명상에 대한 접근하기, 명상 수행하기, 명상을 삶과 통합하기)를 제시하면서 알아차림(mindfulness) 명상 기법을 활용해 어떻게 요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님들이 펴낸 에세이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스님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9천원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문 정리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 나도 좀 문제네요’ 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변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수를 내서라도 변명을 하면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별 것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내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때 한 생각일 뿐입니다.”

정토회 설립자이자 지도법사로 정토행자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법륜 스님이 공개하는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돌파하고, ‘잘 사는’ 것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구체적이다. 현실을 파악한 후 선택하는 지혜이다.

책은 질의응답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과의 불화,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등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에 대해, 채우려는 생각을 일단 버리라고 지시하는 법륜 스님은 느긋한 마음과 여유의 지혜로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스님 지음 | 쌤엔 파커스 펴냄 | 1만4천원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을 사랑하자”

출간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서다. 하버드 재학 중 출가해 한국인 승려 최초로 미국 대학교수가 된 혜민 스님은, 이 바쁜 세상에서 잠시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한다.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론 잘 안 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의 조언은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한 첩의 보약과도 같다.

스님은 결국 ‘내 마음이 문제다’ 라고 말한다. 세상이 바쁜 것은 사실 내 마음이 바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하다. 내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좋고, 싫고,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의 원인은 이미 내 안에 언젠가 내가 심어놓았다는 것이다. 내 마음은 세상에 어떤 대답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대답 따위 할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힘들고 위로 받고 싶은 당신이라면 혜민 스님의 마음 매뉴얼을 펼치고 한 숨 쉬었다 가보자.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스님 지음 | 쌤엔 파커스 펴냄 | 1만4천원

힐링 전법사 정목 스님의 명상 언어

“아침에 일어나면 잔디에 물을 주거나, 작은 화분에 담긴 꽃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작은 생명에게 사랑의 물을 주며 시작하는 하루는 온종일 우리에게 복이 마라톤처럼 이어지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면 그 생명에게 가장 먼저 눈을 맞추고 잘 잤냐고 인사 하며 ‘내가 눈을 떴을 때 네가 곁에 있어 기분 좋아’ 라고 말해보세요. 사랑받은 생명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출발일 : 2013년 8월 24일, 8월 31일 (단, 2회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출발일 : 2013년 8월 28일

■ 마하연 실속 팩 상품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4인이상 출발가능)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7일 요금문의

■ 김해공항 타이항공 – 베트남 항공 출발
양곤 / 바간/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

“본지 선정 장르별 12選과 함께”

↘ ‘힐링의 어머니’ 정목 스님은 분노, 욕망, 관계, 두려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의 언어를 펼쳐놓았다. 화를 다스리는 법, 고통을 바라보는 법, 관계 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는 길을 잔잔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갈한 언어로 표현했다. 마음에 맺힌 아픔과 번뇌를 내려놓게 하는 정목 스님의 아름다운 성찰의 말씀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 누구에게라도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향기로운 에너지를 전달할 것이다.

수행 교리서

불교가 좋다

가오이 하야오,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 김옥희 번역
동아시아 펴냄 | 1만2천원

“불교는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다”

“존재 자체,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이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류를 첫 번째 형이상학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과학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 2차 형이상학 혁명입니다. 그리고 제 3차 형이상학 혁명이라는 것이 도래한다면, 그것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은 아마 불교일 거라고 생각해요. 불교는 근대과학과 일신교, 이 둘의 한계를 초월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융학파의 선구자인 현 문화청 장관 가와이 하야오, 종교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전방위 사상가로 일본 제일의 인문학자로 꼽히는 나카자와 신이치. 각자의 자리에서 학문적 업적을 쌓아가던 두 사람이 ‘불교’라는 화두를 두고 마주 앉았다.

2004년 출간되었던 것을 표지와 편집을 바꿔 재출간했다. 종교로서의 불교를 넘어서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종교사, 철학, 신화와 과학, 심리학에서 상담론까지를 포괄하며 메타종교로서의 불교를 이야기 한다. 두 저자는 불교가 아시아인의 무의식 깊은 곳, ‘야생의 사고’서 비롯됐다고 하며 그 옛날 사상의 기원에 맞닿아 움튼 종교인 불교가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최초의 불교경전 이해하기 쉽게 해설

오늘날과 같은 불안한 시대에 한 권의 책을 고르라면 최초의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세상의 온갖 문제에 대해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 교단이 성립되기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구도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자상하게 답변해 준, 시와 이야기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들의 모음이다. 난해한 불교용어가 아닌, 매우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넘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 닿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 우리 시대의 정신적 스승인 법정 스님이 〈숫타니파타〉를 번역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법정 스님의 손상좌로서 법정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보경 스님이 본격적으로 해설했다는 점에서 인연법의 지중함을 느끼며 마음으로 읽게 되는 책이다. 쉽고 자세한 해설이 책장을 술술 넘기게 만든다.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 교육원 편찬위 지음 | 조계종 출판사 펴냄
1만2천원

부처님 일생에 관한 모든 것 담아

불교신도에게나 일반인에게나 붓다는 인류의 스승이고 성현이다. 그는 스스로 깨닫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집착이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설파했다. 그래서 4대 성인으로 당당히 붓다를 꼽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붓다의 삶을 소개한다. 붓다의 삶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다. 탄생에서 성장, 구도와 설법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과정은 그 어떤 인간의 인생보다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다. 책은 총 10장으로 단계를 세분화하여 붓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방대한 분량에 독자가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이미지를 삽입한 것도 특징이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공 학자가 참여하여 한문 불전은 물론 빠알리본과 산스크리트본까지 참조하여 붓다의 삶을 재구성했다. 또한 붓다의 연표와 붓다의 가계도를 부록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붓다의 삶을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했다. 이로써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누구나 쉽게 붓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 기행서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 지음 | 이가서 펴냄 | 1만8천원

18년간 답사한 사찰 22곳 속살

저자가 지난 18년 동안 다녔던 우리나라의 산과 사찰 중 22곳을 소개한다. 소개된 22개의 사찰에는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사(人事) 즉 삼재(三才)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서 최초로 사주명리학을 강의하며 강호동양학의 개척을 꿈꾸는 저자 특유의 시선이 담겨져 있어, 여느 여행 정보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맛깔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사찰에 대한 ‘내부의 시각’이다.

내부의 시각이란 천년이 넘게 이 땅에서 절을 다니던 우리 조상들이 보던 시각이다. 절에는 수천 년이 넘게 이어져 오던 우리 조상들의 민속 신앙이 숨어 있다. 산신이 있고, 칠성이 있고, 용왕이 있다.

저자는 이것들을 사찰의 좌향(坐向)과 주위의 산과 마을과의 어울림, 근처 물줄기의 방향, 입구의 트임과 설치된 기물 등 사찰의 지리(地理)를 풀어놓으면서 시작한다. 거기에는 천년이 넘는 고찰마다에 담겨 있는 독특한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터만 남고 그 모습은 유실되어버린 사찰까지 언급한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사찰에 대한 지리(地理)뿐 아니라 천문(天文)까지도 밝힌 것이다.

하늘이 감춘땅

조현 지음 | 한겨레출판 펴냄 | 1만4천원

오지 암자 29곳과 산승들 소개

한겨레 종교/명상 전문기자가 거의 1년간 취재해서 풀어놓는 대한민국의 오지 암자 기행서이다. 묘향대와 상무주암을 비롯한 지리산 자락의 여러 암자들, 화려한 기암절벽에 둘러싸인 달마산 미황사의 도솔암, 300여 명 비구니들의 정갈한 운문사, 두만강 너머의 일광산 범바위까지, 천상의 영역인 듯 속세로부터 슬쩍 비켜선 암자 29곳과 그곳에 사는 산승들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담았다.

오랫동안 전 세계의 생태 · 공동체 마을을 찾아다니고, 히말라야와 인도 오지를 순례하며 세계적인 영성가들을 만나온 저자에게, 이번 오지 암자 순례기는 “세인의 출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산승들과의 만남”이어서 더욱 특별하다.

길 없는 길을 찾아, 때론 금지선을 넘어 찾아간 심산(深山)의 수도승들은 전광석화와 같은 선답으로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선사한다. 속세의 발길이 뚝 끊긴 산속 암자에서 수십 년간 독살이와 묵언수행을 해온 은둔자들의 저 깊은 눈은, 눈앞의 사리사욕을 좇으며 애달아하는 세인의 등을 시원하게 내리치는 죽비와 같다.

상반기 베스트셀러 30권도 휴가지 도서목록에 ‘찜’ OK

불교계 최대 서점인 ‘조계종 불교전문서점’이 올해 1월 1일부터 판매한 상반기 자료를 집계해 ‘2013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30’도 휴가지서 읽을만한 도서목록에 ‘찜’해도 유익할 것 같다. 그만큼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혹시 이들 중 읽지 않은 것이 있다면 챙겨서 휴가지에 갖고 갈만하다.

우선 1위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선정됐으며 2위에는 법륜 스님의 〈기도〉, 3위는 불필 스님의 〈영원에서 영원으로〉가 집계됐다.

4위에는 정목 스님의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가 장식했으나 절판됐다. 5위는 월호 스님이 3월 펴낸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가 위치했다.

이밖에 지난 5월 방한한 틱낫한 스님의 저서 네권이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틱낫한 명상〉(불광), 〈화〉(명진 출판),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장경각), 〈오늘도 두려움 없이〉(김영사) 등이다.

조계종 불교전문서점 선정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쌤앤파커스	혜민스님
2	기도-내려놓기	정토	법륜
3	영원에서 영원으로	김영사	불필스님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공감	정목스님
5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숲	월호
6	틱낫한 명상	불광출판사	틱낫한,이현주
7	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개정판,정가인)	명진출판	틱낫한
8	젊은날의 깨달음-하버드에서의출가그후10년	클리어마인드	혜민스님
9	스님의 주례사(행복한결혼생활을 위한남녀마음이야기0+++	휴(한겨레출판)	법륜/김점선
10	미국 부처님은 몇 살입니가?	아름다운인연(조계종출판사)	명법스님
11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불광출판사	지유스님 외 17분
12	선방일기(개정)	불광출판사	지허스님
13	광명진언 기도법	효림	일타,김현준 공저
14	무비 스님 신금강경 강의	불광출판사	무비스님
15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장경각	틱낫한/양미성
16	행복편지 365일	조계종출판사	법상 글 임효 그림
17	치유하는 불교 읽기	불광출판사	서광스님
18	행복 119	(주)셀프컬처리서치	서대산인성담
19	오늘은 내 기쁜 생의 첫날(탁상달력)	공감	정목스님
20	경전숲길	조계종출판사	정운
21	지관수행(수습지관좌선법요강의)	비움과소통	천태지의/동현송찬우
22	오늘도 두려움없이-삶의폭풍우를통과하는지혜	김영사	틱낫한/진우기
23	열두 달 절집밥상	웅진리빙하우스	대안스님
24	공부하다 죽어라(혜암스님의벼락같은화두)	열림원(오래된미래)	정찬주
25	닦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용화	김재웅 글
26	존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명상	불광출판사	존 카밧진/안희영
27	성난 물소 놓아주기	공감의기쁨	아잔 브라흐마
28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정토	서암스님
29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개정판,양장본)	정토	법륜스님
30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민족사	파담빠상계/린포체



불서총판운주사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여름에 읽고 싶은 BEST 불서도서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지면에 나온 도서는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02-2004-8213)
및 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 주 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연속 16주 베스트셀러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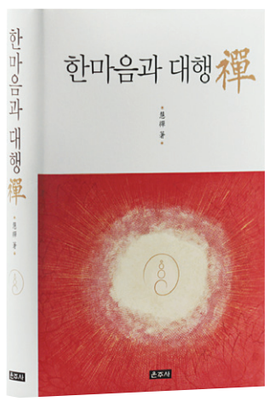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의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글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신국판 양장 | 1권 441쪽, 2권 471쪽 | 값 18,000원 현지사

한마음과 대행 禪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젊은 시절 각고의 고행과 치열한 수행정진으로 깨달음을 얻고, 이후 대중 속으로 들어가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 보편화 ·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실천적 지도력으로 전법 포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대포교사!

한마음선원 묘공당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이다.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툼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혜선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 | 624쪽 | 값 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수능엄경 (上·中·下)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과학 속에 없는 답을 모두 수록한 진정한 과학의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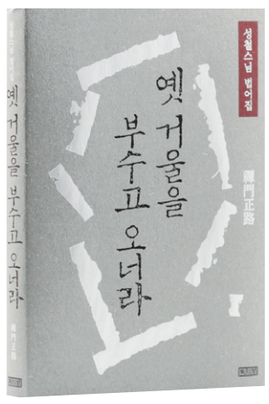
인류의 머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난해한 문제들을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모조리 밝히고 있는 경전이 『수능엄경』이다.

인간 고뇌의 근본 문제는 전부 마음에 있다. 신神이라 자처하거나 성인聖人이라는 분들이 수없이 왔다 갔으나 그 마음의 비밀을 밝히신 분은 오직 석가세존뿐이다. 세존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그 마음으로부터 세계와 중생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명쾌하게 밝히셨습니다. 저 많은 성서나 경전 중에서도 불경인 『수능엄경』이 인류 역사상 다시없는 지혜의 성전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경전연구가이며 전통 침구학자인 저자 천명일은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의역에 가까운 해설로 경전을 강의했다.

마음에 대한 통찰과 오안설을 통한 저자의 자유로운 필체는 부처님의 세계로 안내하며, 한문 원전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문 아래에는 한글로 토를 달아 표기하여 일반인도 경문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천명일 지음 | A5 양장 | 278쪽 |
값 1권 20,000원, 2권 2000원, 3권 20,000원 지혜의나무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선종의 바른 종지를 펼치겠다는 성철스님의
의도가 담긴 저술로 1981년 출간된 〈선문정로〉의 개정판

총 19장으로 이루어진 책은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수행의 자세와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를, 다양한 불교 원전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철스님의 원래 문장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은 채 한자를 괄호 속에 넣고 어휘 풀이와 문장 해석을 각주 형태로 첨가했으며 육성으로 남긴 강설을 추가했다. 또한 성철스님이 인용한 한문 원전과 평석을 한 묶음으로 번호를 매겨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으며, 스님이 직접 찾아 적어놓은 원문 출처를 모두 옮겨 놓았다.

선문정로는 성철 스님 스스로 "부처님께 밥 값 하였다"고 하신 책입니다. 누구에게나 깨달음을 얻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시려고 노심초사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철스님 지음 | 신국판 | 424쪽 | 값 15,000원 장경각

만화불교이야기 1

부처님 생애

Buddha's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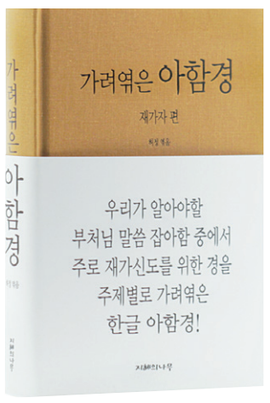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애를 만화로 만나다!
'만화 불교 이야기' 시리즈, 제1권 『부처님 생애』

이 시리즈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불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라는 특수한 형식을 빌려 설명해주고 있다.
제1권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다룬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불교의 출발점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불교의 참된 가르침과 부처님의 깨달음 등을 보여준다.

만화로 구성하여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인간 중심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은 불교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다.

김정빈 글 · 최병용 그림 | 294쪽 | 값 9,600원 솔바람

가려엮은 아함경 (재가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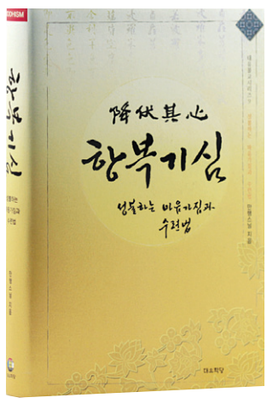


우리가 알아야할 부처님 말씀 잡아함
전체 1362 경전 중 재가인들에게 꼭 필요한
160여 경을 가려 모아 주제별로
가려엮은 한글 아함경!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에 가깝고, 대 · 소승의 구별도 보이지 않는 불교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 '아함경'이다. 불교의 근본이 되는 연기사상, 자비정신, 깨달음 그리고 자리이타의 보살사상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잡아함경에서 찾아 귀의, 붓다, 믿음, 보시, 좋은 벗, 선악, 탐 · 진 · 치, 애욕, 진리, 노력 등을 주제별로 가려엮었다.

허정 지음 | A5신 양장 | 448쪽 | 값 18,000원 지혜의나무

항복기심(降伏其心)



성불하는 마음가짐과 수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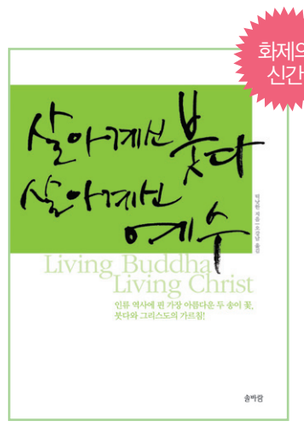
이 책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의 마음가짐과 육체 수련법을 자세하고, 심도 있게 법문하고 있다.

만행 큰 스님이 중국 광동성 옹원현 동화선사에서 사부대중들과 함께 수련하면서 설법하신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정밀하고 심오하며, 명쾌하고 유창한 언어와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법문을 통해, 넓고 깊은 불교의 교리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체적 내용과 기본 방법을 알아듣기 쉽게 해설하였다.
특히 3자명, 6자진언, 음공과 숨쉬기 등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불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신과 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만행스님 지음 | A5 양장 | 512쪽 | 값 18,000원 대유학당

화제의 신간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예수



인류 역사에 핀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
붓다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붓다와 그리스도의 삶,
그들이 남긴 가르침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인가?
두 종교가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함께
공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성자 틱낫한 스님은 이 책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예수〉에서 진지한 사색과 깊은 통찰을 통해 종교 간의 문제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감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틱낫한 지음 | 오강남 옮김 | 정가 15,000원 솔바람

보경 스님의 친절한 해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불안한 우리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최초의 불교 경전 숫타니파타 해설서!

난해한 불교 용어가 아닌,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의 감슴에 깊이 와 닿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불교경전 '숫타니파타'. 이 책을 마음으로 암송하듯 읽다 보면, '숫타니파타' 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보경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보경 스님 지음 | 신국판 변형 | 376쪽 | 값 15,000원 민족사 펴냄

송강스님의 인도 성지 순례



가슴 벅찬 감동과 영혼의
세밀한 울림이 있는 곳, 인도 성지 순례기!

저자는 이 책에서 땀과 먼지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향기와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다고 밝힌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 향기와 에너지로 절체절명으로부터의 해탈을 바란다는 소망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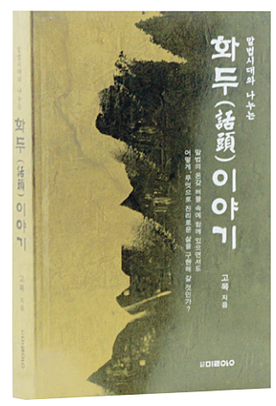
돌길 위에 목탁을 들고 먼저 삼배를 올린 후 예불을 드린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대중들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고 있었다. 대탑은 서쪽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운 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예불하는 우리의 왼쪽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처럼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다.

– 본문 중에서 –

송강 지음 | A5 | 471쪽 | 값 18,000원 도서출판 도반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話頭) 이야기



고목 스님의 『말법 시대와 나누는 화두 이야기』

온갖 허물과 함정으로 가득한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화두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자기완성이란 자기속에 진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스님들은 화두의 뜻을 잘 알고도 참구하였다. 의리(義理)로 아는 것과 실제 참구로 깨닫는 것은 서로 순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의리는 올바른 화두참구를 돕고 깨달음은 의리를 잘 받쳐주기 때문이다.

– 머리글 중에서 –

고목지음 | 신국판 | 462쪽 | 값 16,000원 도서출판 밀양

선림의 바른길 (상 · 하)



正法眼藏 三處傳心 하신
釋迦世尊의 修行法이 여기에 담겨 있다!

佛陀釋迦世尊께서 전법하신 修行法
西域에서 28代 海東에서
5代 33대 祖師가 설하신 修行正路

해동의 6조 혜능대사의 入滅(BC 713년)以後
般若에 묻혀버린 正法이 1,300년만에 햇빛을 보게된
佛陀의 수행로 "선림의 바른길"이
여기에 고구정녕 設해져 있다.

각암 성원 지음 | A5 | 상권 401쪽, 하권 380쪽 | 각권 15,000원
동진기획

그냥 무조건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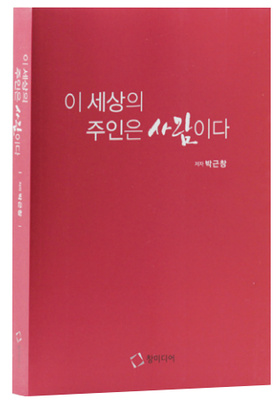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A5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한마음선원 출판부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기독교는 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조작하면서까지
유관순을 우상화하였을까?

당신은 기독교 실체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 기독교가 미신종교라면 불교는 철학 과학 종교이다.
- 기독교가 강이라면 불교는 바다와 같다.
- 기독교가 조화(造花)라면 불교는 생화(生花)종교이다.
- 인간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침략전쟁을 수없이 일으켜왔지만 불교는 전쟁을 한 번도 일으켜 본 일이 없다.
-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악해지고 절에 다니면 선해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박근창 지음 | 신국판 | 506쪽 | 값 30,000원 창미디어
문의 010-7429-5700

현대불교신문과 불서총판운주사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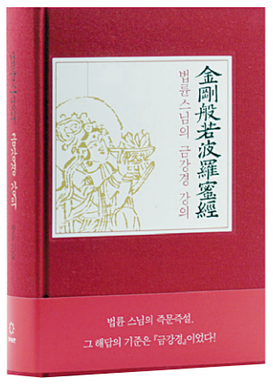
여름에 읽고 싶은

불서도서 BEST

인터넷 불교서점 **붓 다 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 및
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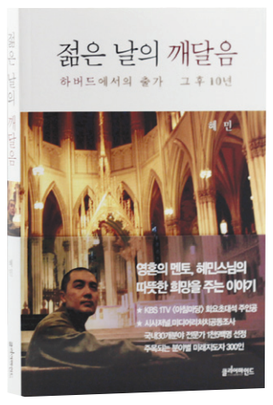
공감과 깨달음의 화법, 금강경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그 해답의 기준은 '금강경' 이었다!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즉문즉설 강연과 〈기도〉〈깨달음〉〈스님의 주례사〉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륜스님의 경전강의 시리즈 새 책이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전을 법륜스님 특유의 명쾌한 화법으로 알기 쉽게 풀이했다.
이 책은 법륜스님이 금강경에 대해 여러 차례 법문한 것을 모으고 다듬어 새롭게 엮은 것이다. 깊은 고뇌의 대중들과 나눈 문답, 스님이 수행생활을 하며 겪었던 일화 등 지금 내 삶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를 통해 지금 살아 숨 쉬는 경전이 되게 한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새롭게 변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륜스님 지음 | 139×194mm 양장 | 551쪽 | 값 27,000원 정토출판사

젊은날의 깨달음

(하버드에서의출가그후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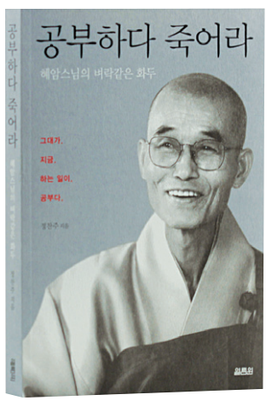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 교수인 혜민스님의
출가 10년을 담은 책.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교수가 묻다. "하버드 나오면 뭐가 좋은데?"

이 책에는 스님이 어려운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 북경에서 살 때 자전거를 도둑맞고 쓴 이야기, 실연당한 도반을 위로하기 위해 쓴 에세이, 뉴욕 은사 스님 절에서의 이야기 등 승려가 된 후 겪게 된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들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스님은 일류 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학력지상주의를 꼬집으면서, 성공과 부를 이루는 것보다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따뜻한 에세이집이다.

혜민스님 지음 | A5변형 | 254쪽 | 값 13,000원 클리어마인드

공부하다 죽어라



무슨 일이든 죽을 각오로 임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이 공부다.

혜암스님이 정진했던 가야산,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 영축산 등을 가서 스님의 삶을 거울삼아 저자의 인생을 반조해보는 틀로 써내려간 산문을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늘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법문하기로 유명했던 혜암스님의 말씀을 화두로 삼아 무아를 체험하는 수행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이 나를 알고 인생을 아는 데 지름길이라고 했던 스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다.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일에 목숨 바치듯 정성을 다하는 것이 참 공부라고 가르쳤던 혜암스님의 참뜻을 알고 온몸을 바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삶의 행복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정찬주 지음 | A5 | 255쪽 | 값 13,500원 열림원

벽 암 록 (완역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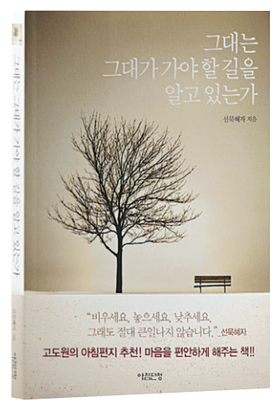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공안집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벽암록' 은 가장 뛰어난 공안에 대한 책이자, 심오한 선(禪)의 정수가 담겨 있다.
기존의《벽암록》번역은 대부분 수시(垂示) · 본칙(本則) 정도만 번역했다. 석지현 역주《벽암록》은 그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은 완역본(完譯本)이다. 벽암록 완역(完譯)은 국내 최초이다. 이 책은 번역 기간만 10년, 출판 기간 3년 걸린 책이다. 이 책은 원문에 토(吐)를 달고 번역과 해설을 붙였다. 그리고 평창과 착어까지 모두 번역했고 해설까지 달았다. 이본(異本)을 대조하여 원문에 대한 교감(校勘)을 했으며《벽암록 속어(俗語) 낱말 사전》을 첨부하여 독해에 절대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쉬운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이 '속어 낱말사전' 을 참고해가며 혼자 읽을 만하다.

원오극근 지음 석지현 역주 해설 | A5신 양장 |
각권 500쪽 내외 | 값 145,000원(세트) 민족사 펴냄

그대는 그대가 가야할 길을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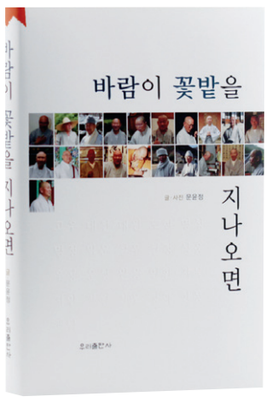


비우세요, 놓으세요, 낮추세요.
그래도 절대 큰일나지 않습니다.
선묵혜자 스님이 지친 영혼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

이 책은 가야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선묵혜자 스님의 따뜻한 인생 잠언집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은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는 습관 때문이라는 혜안이 담겨 있다. 비우고, 놓고, 낮추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강렬한 깨달음과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잔잔한 감동을 남겨준다.

선묵혜자 스님 지음 | A5 | 247쪽 | 값 14,000원 아침단청

바람이 꽃밭을 지나오면



문윤정이 찾은 산사의 스님,
지족을 가르쳐 준 선지식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지표가 되고 지남이 되는 선지식 스물한 분을 모신 책이다. 출가자로서 치열하게 수행에 수행을 더하신 분들이라 스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가뭄 속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다. 생이 긴 여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선지식들의 셈범은 달랐다. 빠름이 아닌 느림을, 풍족이 아닌 지족을 가르쳐 주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다.

"산사로 가는 길은 즐겁다.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 마음마저 둥글어지는 느낌이다"

문윤정 지음 | A5 양장 | 293쪽 | 값 13,000원 우리출판사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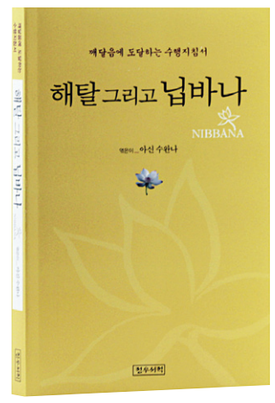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불조정맥 제 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놓았다. 특히 부처님 당시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불법의 열반상을 정리한 책이다. 인도편 성현님들의 열반이 너무 뛰어나 현대인들에게는 실화가 아닌 신화나 전설, 신비로만 비춰질 우려가 있어 가장 가까운 시간,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져 생생한 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열반상부터 싣기 위해 한국, 중국, 인도의 역순으로 책을 구성하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 저 | A5 | 446쪽 | 값 15,000원 바로보인출판사

해탈 그리고 닙바나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

무엇보다도 이 책의 특징은 읽기와 이해하기가 편리하며 작은 책자로 만들어져 휴대하기도 좋다. 많은 경전을 염송해야만 수행을 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편안한 가운데 책을 읽고 제시하는 수행의 단계대로 스승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면 된다.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해 보지도 않고 말하는 외도의 사설에 불과하다. 중간 중간에 '착하고 건전하게' 라는 꾸살람에 스님께서 터득한 진리를 격언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마음의 평정을 얻어 고요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구,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값 8,000원 정우서적

나도 부처님 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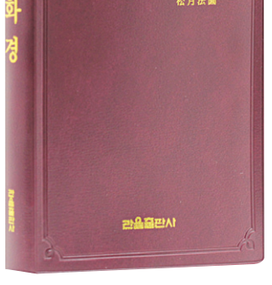


위대한 진리의 영웅,
석가모니 부처님의 감동 일대기
불자들이 자녀들을 위해 찾던 바로 그 책

이 책은 올바른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일생을 쉽고 재미있게 엮었다. 한 단원씩 52주 동안 꾸준히 공부하면 금방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느끼게 될 것이다. 첫째 달은 전생과 탄생, 둘째 달은 어린시절, 셋째 달은 출가, 넷째 달은 고행, 다섯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는 사람들마다 근기에 맞는 설법으로 전도 및 교화하시는 내용들로 12달 52주 동안 한 단원씩 공부하도록 배우도록 꾸몄다.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를 ...
불교 공부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해야만 이루어진다.

홍사성 지음 | A5 신국판 | 160쪽 | 값 10,000원 불교시대사

한글 법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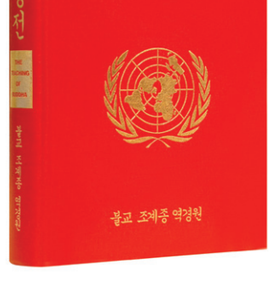
一大事 因然

법화경은 불성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 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며 삼세제불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송월스님 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값 20,000원 관음출판사

불교성전



부처님 말씀의 정수를 뽑아 엮은 책!!!

부처님, 가르침, 계행, 도반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내용이 충실하고 문장도 쉽고 평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책 앞쪽은 한글로 기록하고 책 뒤쪽은 영문으로 실어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부록에는 불교통사, 생활 색인, 용어 해설, 증지부 등이 수록돼 있다. 제1편 부처님편에서는 1장 역사 속의 부처님, 제2장 영원의 부처님, 제3장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덕 으로 구성 되어 있어 쉽게 부처님의 생애를 접할 수 있고 제2편 가르침편에서는 인연, 사람의 마음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깨달음의 본질, 번뇌로 이어지는 논리적 전개 후 마지막 부처님의 구원에서는 부처님의 서원 및 정토로 이어지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소명하였다. 제3편 계행은 깨달음의 길과 실천의 길로 계를 각 경전을 바탕으로 고증하여 계율의 중요성을 설하였다. 제4편 도반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 와 생활 지침을 경전에 의거해 설명해 놓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면 삶이 풍요해 짐을 밝혀 놓았다. 마지막 제5편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나라와 부처님 나라를 지키는 자 를 통해 불국토를 말하였다.

혜인 스님 편저 | A6변형 양장 | 658쪽 | 값 15,000원 불교조계종
문의 02)511-2026

나의 선지식 엄마의 사계절



정념선원 도정 원장이 쓴 우리 시대의 '부모은중경'

'우리 시대의 효경이자 부모은중경' 으로 권해드리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된 가족의 의미를 되살려 효도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 정병국 국회의원

도정님이 쌓아온 수행의 길 25년, 아흔의 엄마를 향한 효 실천 수행의 3년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참 수행의길, 생활 속의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이다. – 민병두 국회의원

"투병 중에도 염불 독경하던 아흔의 엄마는 나의 선지식이자 관세음보살님이었다"

도정지음 | 신국판 | 152쪽 | 값 10,000원 비움과소통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금하광덕 스님의 구도 문답집
초심 불자들을 위한 〈불교입문〉의 결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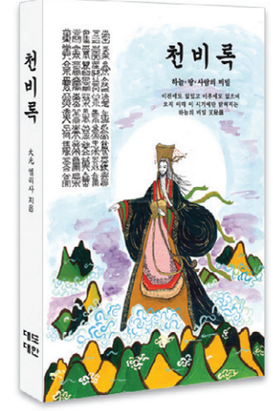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보시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 부처님, 보살, 교리, 수행, 보시 · 전법, 생활, 기도, 참선, 한국불교 등 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20여 종의 문답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지혜, 용기를 불어넣어 삶의 등불이 되는 〈불교 입문의 결정판!〉

금하광덕 지음 | A5 | 352쪽 | 값 12,000원 불광출판사

천 비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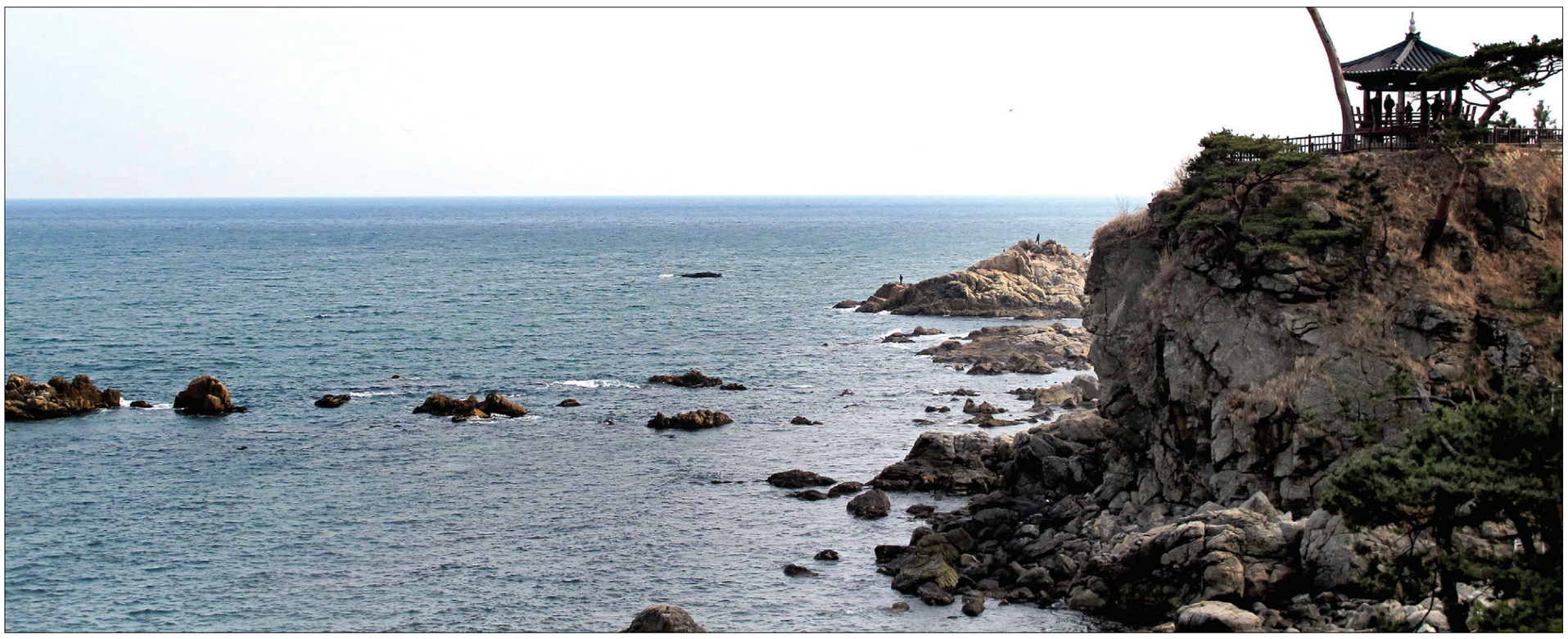
(하늘 땅 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땅 사람의 비밀 천비록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혀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도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l광 엘리사 지음 | 신국판 | 226쪽 | 값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한



바닷가 절을 찾아서

피서(避暑), 매년 이맘 때 쯤 우리는 더위를 피해 어디론가 길을 나선다. 하지만 길을 나선다고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 피한다는 말보다는 잊기 위해 떠난다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더위를 잊기 위한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도 있고, 시원한 계곡이 있는 깊은 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찾아가는 바다와 산, 좀 더 특별한 바다와 산은 없을까. 절이 있는 바다와 산은 어떨까. 뜨거운 뙤약볕도 사뿐히 지나가는 풍경소리, 무거운 바람 가볍게 잠재우는 목탁소리, 법당 처마가 드리운 천 년짜리 그늘. 모든 걸 잊기에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물가의 사찰과 산속의 사찰을 소개한다. 특히 섬 속에 또 다른 섬처럼 서있는 절과 쉽지 않은 길 끝에 조용히 서있는 절은 더위를 잊기에 더할 나위 없는 피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바닷가의 게가 오솔길을 걷고

보길도 남은사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남은사〈사진〉가 있는 보길도는 해남군의 땅끝 선착장이나 완도군 화흥포항에서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섬이다. 완도에서 서남쪽으로 23.3km 떨어져 있고, 노화도 만서쪽 1.1km 지점에 있다. 고산 윤선도(1587~1671)의 유배지이기도 했던 보길도는 동백나무를 비롯한 활엽수림이 울창하고 해변에는 검푸른 조약돌이 깔려 있다. 동편의 예송리 해변은 주변으로 아름드리 노송이 울창하고 해안으로 천연기념물 제40호인 상록수림이 늘어서 있다. 해변 앞에는 당사도, 기섬, 질매섬 예작도 등 아름다운 섬들이 떠 있고, 날씨가 맑은 날엔 제주도까지 보인다.

남은사 가는 오솔길에는 뻐꾸기 소리가 많다. 오솔길을 걷다보면 조그만 게들이 바스락거리며 숲속을 오간다. 숲에 게들이 산다. 보통의 숲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다. 절 입구까지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적석탑이 늘어서 있다. 중마산 정상에 깃들어 있는 작은 암자 남은사. 절의 내력이다. 오래 전 이곳 정자리에 사는 갑부의 처가 소생이 없어 절을 짓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여생을 보냈다. 처음 이름은 북암사였다. 그 이름은 절의 동쪽에 북 모양의 큰 바위에서 유래했다. 그 북바위가 울리면 바다 건너 맞바래기 섬에서 상피(相避)가 났었다. 수치스럽게 생각한 그곳 주민들이 밤에 몰래 배를 저어와 북바위의 제일 윗돌을 굴려 버렸다. 그 뒤로는 북바위가 울리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굴려버린 바위는 알아볼 길이 없었지만 푸른 이끼 둘러친 큰 바위들 위에 앉으면 눈앞에 푸른 바다와 섬들이 다가온다.

완도 신흥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68-1

신흥사는 남망산(南望山)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1932년 김성렬 스님이 불로사(不老寺)로 창건했다. 前 백양사 방장 수산 지종 큰스님 과 박영희 스님이 주석했다.

신흥사 가람은 북향이며, 아름다운 완도의 전망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당우로는 대웅전과 약사천불전, 하심당(교육관), 삼성각이 있다. 장점은 남망산(南望山)의 중턱에 있기 때문에 완도읍의 전망과 야경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저 멀리 신지, 대둔산의 경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진도 쌍계사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299-30

진도 쌍계사는 진도읍에서 동남방으로 왕무덤재를 넘어 7km 쯤 지나면 사방으로 첨철산의 산맥이 에워싸고 있는 운림산방로에 자리잡고 있다.

857년(신라 문성왕19) 도선국사가 창건했다. 절 양편으로 계곡이 흐른다 하여 쌍계사라 불렀다. 1648년(인조 26) 의웅 스님이 중건했다. 대웅전 좌우로 시왕전과 원통전이 자리하고, 시왕전 뒤편에 산신각이 있다. 진산이라 불리며 천연기념물 107호 쌍계사천년상록수림대가 있는 첨찰산 자락 중심부에 자리한 쌍계사는 인근에 소치 허련 선생의 운림산방과기념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의 섬 속 현존 最古 도량

강화도 전등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강화도는 섬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이다. 선사 시대의 고인돌 유적부터 단군 왕검의 얼이 담긴 마니산, 고려 때의 대몽항쟁과 팔만대장경 조성, 서양 세력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던 '병인양요'에 이르기까지 강화도의 역사는 곧 한민족의 역사나 마찬가지다. 역사와 문화의 섬이다.

전등사는 현존하는 한국 사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도량으로 역사와 자긍심을 간직한 사찰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삼랑성은 단군이 세 아들(三郎)을 시켜 쌓았던 고대의 토성이었고, 삼국시대에는 토성 자리에 석성을 쌓아 올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삼랑성 안에 자리잡은 전등사는 세 발 달린 솥을 거꾸로 엎어놓은 모양을 가진 정족산(鼎足山)과 더불어 강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유적이다.

전등사는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이 서기 372년이므로 지금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성문사, 이불란사(375년 창건)에 이어 전등사는 한국 불교 전래 초기에 세워진 이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도량이다. 당시 아도 화상은 강화도를 거쳐 신라 땅에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도 화상이 강화도에 머물고 있을 때 지금의 전등사 자리에 절을 지었으니 그때의 이름은 '진종사(眞宗寺)'였다. 그 후 고려 제27, 28, 30대의 충숙왕(忠肅王)·충혜왕(忠惠王)·충정왕(忠定王) 때에 수축하였고, 1625년(인조 3)과 1906년에도 중수하였으며, 또 일제강점기에도 두 차례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전등사라는 이름은 충렬왕(忠烈王:재위 1274~1308)의 비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이 절에 옥등(玉燈)을 시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때 정화궁주는 승려 인기(印奇)에게 〈대장경〉을 인간(印刊), 이 절에 봉안하도록 했다. 이 절에는 보물 제178호인 전등사 대웅전(大雄殿), 보물 제179호인 전등사 약사전(藥師殿), 보물 제393호인 전등사 범종(梵鐘)이 있다. 또 대웅전에는 1544년(중종 39) 정수사(淨水寺)에서 개판(改版)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목판 104장이 보관되어 있다.



현존 한국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등사

석모도 보문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인 635년에 회정대사가 열었다. 여러 창건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창건설이다. 금강산 보덕굴에서 수행하고 있던 회정 스님이 이곳으로 옮겨와 절을 세우고 보니 산세가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서천 사자국의 보타락가산과 흡사했다. 산 이름을 낙가산이라 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 없이 나투시는 관세음보살 원력의 광대무변함을 의미하는 '보문'을 도량의 이름으로 썼다.

보문사는 관세음보살이 늘 중생을 기다리며 열어놓은 '문'이다. 문을 지나 가파른 길을 오르면 33관음보살사리탑과 오백나한이 힘들었던 여정을 위로한다. 숨을 돌리고 눈을 고쳐 뜨면 와불을 모신 와불전, 나한전 석실,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 넉넉한 마당이 낙가산 기슭을 장엄하고 있다.

보문사의 백미는 눈썹바위 아래 모신 마애관음좌상이다. 서쪽 바다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마애관음좌상을 보기 위해선 1km 정도 가파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계단이 재미있다. 처음 12계단을 올라가면 좌우에 석등이 하나씩 있고, 여기에서 다시 108계단을 올라간 곳에 '관음성전계단불사공덕비'가 있다. 다시 108계단을 오르면 한 쌍의 석등이 있고, 다시 118계단을 계단을 올라가면 반야용선이 있다. 거기서 48계단을 더 올라가면 마애관음좌상을 만날 수 있다.



보문사 전경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100% 순수 자연그대로 백련사 국내산 산삼

장長 뇌腦 삼蔘



건강이 최고!

평생 최고의 선물을 불자님들께 공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 백련사'에서 직접 재배한 국내산
장뇌산삼을 최저가격으로 현불샵에서 공급해 드립니다.
한뿌리 한뿌리에 사찰의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각종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에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백련사에 직접 방문 하시어 산삼을 채취 할 수도 있습니다.

7~8년근 3뿌리 15만원 → 특가 12만원 / 7~8년근 5뿌리 25만원 → 특가 19만원

장뇌삼의 효능

◇항암효과
장뇌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회복
장뇌삼에 함유된 말톨 성분은 간기능이나 심기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면역력 증강
만성피로나 체력저하 등의 허약체질을 개선해 주고 면역력 증강의 효능이 있습니다.
◇노화방지
항상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으며, 피부노화 뿐만아니라 몸 속의 세포의 노화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예방
장뇌삼에는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장뇌삼 먹는방법

◇생으로 장뇌삼을 먹는방법
장뇌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뇌두를 제거한 후 아침 공복이나 취침하기 전에 30분이상 오래씹어서 복용하세요.
장뇌삼을 먹기 전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지어 먹는방법
장뇌삼과 함께 밥을 지어서 먹으면 기력이 없는 분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소화흡수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뚝배기를 이용해서 밥을 짓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약으로 먹는방법
장뇌삼 1주당 1리터의 물을 붓고서 쎈불로 달이다가 끓기시작하면 중불로 반으로 졸인다음 아침저녁으로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술로 먹는방법
유리병에 장뇌삼과 술을 부어 밀봉시킨 다음 숙성시켜서 소주잔에 한잔씩 마시면 됩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산속의 절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고찰들은 대부분 산 속에 자리하고 있다. 굳이 제목에 '산 속' 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공간적인 깊이가 아닌 도량이 간직한 깊이를 말하는 것으로, 잊기 위해 나선 길 위에서 좀 더 깊숙한 길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도량이 간직한 이야기와 흔적들로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도량들을 묶었다. 문장 하나로 한 시대를 가르치고 이끌었던 지성의 흔적, '무애' 의 이름으로 남은 선지식의 작은 방, 한국불교의 큰 이름들이 서성거렸던 마당, 피안으로 가고 싶은 중생의 마지막 거처, 명작이 잉태된 작가의 서재.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동안이 잊지 못할 '피서' 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반야용선을 기다리는 용선대에서 바라본 관룡사 전경

한 시대의 지성이 걸었던 길을 따라

조계산 불일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43

암자를 찾아가는 오솔길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우선 한 시대의 지성으로 불린 선지식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암자는 '무소유' 의 법정 스님이 육신으로 머물렀고, 생사를 놓은 후에도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이 오랜 세월 걸었던 길은 2km 남짓으로 편백나무와 대나무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다. 다른 녹색과는 또 다른 녹색의 대나무숲이 뜨거운 태양과 무거운 바람을 막아준다.

순천 송광사(옛 이름 수선사)의 산내암자로, 송광사의 제7세 국사인 고려시대 승려 자정국사(慈靜國師, 법명 일인)가 창건하였다. 본래 이름은 자정암(慈靜庵)이었으나 1975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법정(法頂) 스님이 중건하면서 불일암(佛日庵)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1708년(숙종 34) 시습·이징 스님이 중수하였고, 1765년 탁명 스님이 공루를 건립하였으나 공루는 1929년 해체되었다. 1866년(고종 3) 승허 스님이 칠성각을 건립하고, 1891년 월화·계암·용선 스님이 정문을 중수하였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중수를 거듭하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퇴락하였고, 1975년 법정 스님이 중건하였다. 경내에는 법정 스님이 기거한 요사 2동과 찾아오는 이들에게 대접한 감로수의 수각이 있으며, 경내 북동쪽에 자정국사 부도가 있다.

불일암에 들어서면 작은 텃밭이 보이고, 돌계단 위로 법당이 산을 짚고 있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손수 심었던 후박나무 한 그루가 법당 앞에 서있는데, 법정 스님은 다비 후 그 나무 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법당 모서리에는 스님이 쓰시던 의자가 놓여 있다. 작지만 큰 암자다.



'무소유' 의 법정 스님이 머물렀던 불일암

'경허' 의 흔적 간직한…

연암산 천장암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1

연등 몇 개 걸린 인법당 하나. 작은 선방 하나. 몇 걸음 안 되는 마당 하나. 허리 굽은 석탑 하나. 산신각 하나. 연암산 천장암이다. 633년(백제 무왕 3)에 담화 선사가 세웠다. 천장암은 '경허' 의 도량이고, '경허' 가 천장암의 역사다. 천장암은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량이지만 그 천년을 채워줄 만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다. '경허' 의 흔적만이 그 천장암의 역사를 채우고 있다.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견성한 후 보림처로 삼은 곳이 천장암이다. 당시 스님이 1년 3개월 동안 장좌불와를 했던 방이 살아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방이다. 문을 닫고 앉으면 시간도 닫힌다. 아니 시간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스님이 왜 이토록 작은 방을 택했는지 알 것도 같았다. '나' 외엔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다. 벽에는 스님의 진영이 걸려 있다. 익숙한 스님의 진영이었지만 스님의 방에서 보는 진영은 멈춘 시계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스님은 이 작은 방에서 모든 시비(是非)를 끊었고, 염정(染淨)을 끊었고, 생사(生死)를 끊었고, 승속(僧俗)을 끊었다. 결코 작은 방이 아니다. 경허 스님 이후 수월·혜월·만공으로 이어진 계보는 한국불교를 풍성하게 했다. 그토록 의미 있는 불사와 역사가 이 작은방에서 시작됐다. 더위를 잊기에 또한 그만인 도량이 아닐 수 없다.



경허 스님의 보림처 천장암

633년(백제 무왕 34) 담화대사가 제자와 함께 수도하기 위해 창건했다. 그 뒤 조선시대 말기에 선종을 중흥한 경허가 수도하면서 수많은 일화를 남겼고, 후학들을 지도했다. 당대의 고승 만공 스님이 출가 후 경허선사의 제자가 되어 스승을 모신 곳이다. 경허와 만공의 수도처라는 점에서 많은 수도승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화왕산 관룡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숲 속에 폭 파묻혀 있는 관룡사는 일주문 대신 서있는 작은 석문(石門)이 도량을 열어준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용선대(龍船臺)가 있다. 용선대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이 출발하는 곳이다. 반야용선은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중생들을 건네주는 반야바라밀의 배(船)를 말한다. 용선대에는 보물 제295호인 석조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다. 용선대에 올라 반야용선을 기다리면 더위는 한 순간에 잊힐 것이다.

철쭉과 억새로 유명한 화왕산 병풍바위 아래에 위치한 관룡사는 신라 8대 사찰의 하나로 내물왕 39년(394년)에 창건되었다. 원효대사가 중국 승려 1,000여 명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설법한 곳으로 유명하다. 창건 당시 화왕산에 자리하는 연못에서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에서 사찰의 이름을 가져왔다. 석문을 지나 천왕문과 원음각이 산세를 따라 부드럽게 이어진다. 보물인 대웅전과 약사전을 비롯하여 석조석가여래좌상 등 5점의 지정 유물이 있어 사찰의 가치가 더욱 높다. 특히 산 중턱 용선대 위에 올라앉아 있는 석조석가여래좌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불상이 아닐까 싶다.

팔공산 운부암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55

소나무 숲을 지나 오르막길을 오르면 연못 속에서 도량이 드러난다. 바람에 이는 물결 속에 법당이 있고, 파란 하늘을 품은 연못 위에는 따뜻하고 오래된 눈동자의 달마상이 서 있다. 머리 숙여 보화루 돌계단을 오르면 운부암이다.

은해사의 산내 암자 중 하나로, 유서 깊은 참선도량이다. 711년(신라 성덕왕 10)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절을 세울 때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운부암(雲浮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다. 고려시대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이후 중건하여 관음기도 도량으로 전승되어 왔다. 1860년(철종 11) 다시 화재로 소실되자 옹허 스님과 침운 스님이 중건했고, 1900년에 보화루(寶華樓)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법당 원통전(圓通殿)을 중심으로 그 왼쪽에 선방인 운부난야(雲浮蘭若), 오른쪽에 요사채 우의당(禹義堂)이 있고, 그 앞으로 보화루가 배치되어 있다. 산령각은 원통전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1862년(철종 13)에 지은 '운부암중건기' 의 기록을 통해 관음전인 원통전은 1862년 중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중수하였다.

마당에 들어서면 오래인 편액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운부난야(雲浮蘭若)', 문자로는 읽어낼 수 없는 공간이다. 운부암 선방의 당호다. 난야는 아란야(阿蘭若)의 준말로 적정처(寂靜處), 무쟁처(無諍處)를 뜻하며, 수행하기 적합한 곳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이곳 운부암은 많은 선지식이 거쳐 갔다. 경허, 만공 스님으로부터 용산, 운봉, 경봉, 향곡, 한암, 팔봉, 청담, 성철 스님 등 많은 선지식들이 이곳에서 정진했다.

평생 도반이 되는 성철(性徹·1912~1993) 스님과 향곡(香谷·1912~1978) 스님도 이곳에서 만났다.

이명산 다솔사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503년에 연기 스님이 세운 절이다. 전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길에 들어서면 어느새 깊은 숲의 호흡이 다가오고 간간히 들려오는 산새 소리는 숲의 깊이를 전해온다. 숲길의 끝에 서면 적멸보궁을 둘러싼 돌담들이 자연스럽게 도량으로 들어서게 한다. 일제강점기 때 만해 스님을 비롯한 효당 최범술, 변영태, 변영만, 김범부 등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의 '터' 로 썼던 대양루가 도량 맨 앞줄에 서있다. 적멸보궁에는 와불상이 모셔져 있고 와불 너머로 사리탑이 있다. 한국 근대문학을 이끌었던 〈무녀도〉, 〈등신불〉의 김동리(1913~1995)가 20대와 30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며 그의 대표작 〈등신불〉을 구상하고 집필한 곳이기도 하다. 김동리가 '등신불' 을 썼던 안심료는 만해 스님이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곳이기도 하다. 고찰들이 대부분 그렇듯 다솔사도 자장율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나옹선사 등 여러 선지식들이 머물다 갔다.

511년(지증왕 12)에 연기 스님이 영악사(靈嶽寺)로 창건했다. 636년(선덕여왕 5)에 중수를 하고 다솔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삼장(천장 · 지지 · 인장) 지장보살이 상주하는 지장기도성지

도솔산 선운사



도솔산 선운사 전경

전북 고창 도솔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사(주지 법만)는 김제의 금산사(金山寺)와 함께 전라북도의 2대 본사로서 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경관, 많은 성보문화재들을 지니고 있어 사시사철 참배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이다.

선운사를 둘러싼 도솔산 봉우리마다 모두 선(禪)을 닦는 형상이니 선자(禪者)들이 기거할 곳이다. 아침이면 상서로운 구름이 산 봉우리를 감싸고 저녁놀 상서로운 구름은 항상 산허리를 휘감으므로 선운산이요 선운사라 했다.

삼장지장보살을 봉안한 기도성지

선운사는 예로부터 삼장지장보살 신앙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장지장보살을 봉안한 지장신앙의 성지로 일컬어져 왔다.

선운사 (금동 지장보살) · 도솔암 도솔천내원궁 (천장지장보살) · 참당암 (인장 지장보살)에 각각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어 본사와 산내암자에 지장 삼장(三藏)을 불상으로 모시고 있는 특별한 도량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중창불사가 왕실의 원찰(願刹)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왕(先王)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선운사에 지지 지장보살을 모시고 이어 두 산내암자에 각각 지장보살을 모심으로서 이곳을 지장신앙의 중심지로 삼아 49재나 우란분절인 음력 7월 15일 백중을 기해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삼장지장도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양민들에게 소금굽는 법을 일러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데서 유래한 '은혜갚은 소금(보은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창건과 함께 지역민과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이타행의 실천도량인 선운사가 지장성지로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제불보살중에서도 가장 원력이 큰 보살이 대원본존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위신력과 자비, 지혜와 변재가 불가사의하고 모든 악업에서 해탈하게 하며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는 보살로서 전생에 지어놓은 악업이 많아 과보를 받게 될 처지라도 지장보살의 구제원력에 귀의하여 해탈을 구하면 악도를 벗어날 수 있다. 또 모든 죄고(罪苦)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전에는 자신의 성불을 미루겠다는 대원을 세우고,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는 육도(六道)의 중생을 낱낱이 교화시켜 성불하도록 인도하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보살이다.

지장보살을 육도중생을 성불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육지장보살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육도전체를 삼계라 보고 그 삼계를 총괄하는 천장(天藏), 지지(持地), 인장(人藏)의 삼장지장신앙이 전개되어 왔다.

지장신앙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성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반구사 고사편람(斑鳩寺 古事便覽)에 "반구사 동어전에 삼수승지장존립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 상은 백제에서 보내온 존상이다"는 기록과 신라의 경우 지장보살을 설주로 하는 『점찰선악업보경』이 확산된 예를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 건국과 함께 창건된 10개의 사찰에도 지장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지장신앙이 발달해 있었다.

조선조에는 불교가 핍박받는 분위기 속에서도 시왕재의 설행 및 시왕도 조성의 예로 볼 때 민간에까지 널리 퍼져나갔다. 오히려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 산문중심으로 진행된 지장신앙은 의식집 출간으로 체계화되기에 이른다. 1827년 간행된 선운사 중흥조 백파긍선스님의 '작법귀감' 중 지장청 헌공의와 약예왕공문에는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명부시왕 및 권속들에 대한 엄정한 형식의 의식문이 만들어 지게 된다.



선운사 금동(지지)지장보살

지지 지장보살

(선운사 금동 지장보살 보물 279호)

선운사 지장보궁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초기의 금동지장보살좌상으로 삼장지장보살 중 지지(持地) 지장보살에 해당한다. 지지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다.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에 들어가 죄지은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는 것 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자비를 비장(秘藏)한 보살이라는 뜻도 있다.

선운사 지장보살은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어느 여름에 일본인 2명과 우리나라 사람 1명이 공모하여 보살상을 훔쳐간 뒤, 거금을 받고 매매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소장자의 꿈에 지장보살이 '나를 원래 있던 도솔산으로 보내달라' 고 해 2년만인 1938년 11월 다시 도솔산 선운사로 돌아오게 된 이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잃어버린 보살상을 다시 모시고 온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에도 사건에 대한 개요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주지는 '이우운(李雨雲)'으로 기재되어 있다.

천장지장보살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지장보살 보물 280호)



내원궁(천장) 지장보살

도솔암은 선운사 산내 암자 가운데 가장 높은곳에 자리잡고 있다. 선운사와 함께 백제 때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도솔암 서편의 마애불좌상(보물1200호)와 함께 세계 유일의 미륵 · 지장성지로 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솔암 도솔천내원궁에 봉안된 지장보살은 천장 지장보살로 상계교주(上界敎主)로서 천상의 교주로 신앙되어 왔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장보살과 달리 지장전이 아닌 도솔천 내원궁에 봉안되어 있다.

도솔천 내원궁의 천장지장보살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영험담을 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996년에는 대구의 한 여성불자가 여방암에 걸쳐 생사를 헤매다 기도정진중 완치되는 믿기 힘든 이적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불자는 도솔암에서의 기도정진을 통해 영험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 도솔회라는 신행조직을 만들었고 도솔회는 지금도 열심히 기도 정진에 매진하고 있다.

인장 지장보살

(참당암 지장보살 전북유형문화재 33호)

선운사 참당암은 산내 암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래 참당사 또는 대참사로 불렸던 지장참회도량의 거찰로 도솔암의 천장지장보살과 선운사의 금동지장보살 모두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곱돌로 제작된 참당암 지장보살은 인계의 중생을 제도하는 인장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을 설주로 하는 『점찰선악업보경』을 토대로 대규모 점찰법회가 성행하기도 했었다.



참당암 (인장)지장보살

참당암의 지장보살은 한때 약사여래불로 오해받기도 했다. 참당암의 우물물은 신령스런 기운이 흐르고 있어 예전에는 문둥병도 고쳤다는 속설도 전해지고 기도 후 아픈 무릎을 고쳤다는 중언도 있어 이같은 오해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듯 선운사의 삼장 지장보살은 수많은 영험담과 이적을 보여주고 있다.

지장보살의 본원력으로 가피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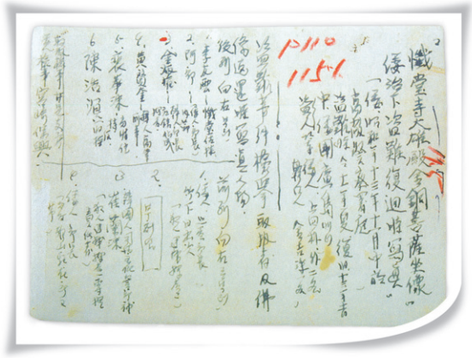
선운사는 국내유일의 삼장기도도량으로 일구어 놓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불상봉안 정신과 지장보살님의 지옥중생 구제 원력을 구현하여 이 시대가 우리 불교계에 요구하는 기대와 부름 즉,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서원을 다지고 있다.

선운사 사부대중들은 이러한 뜻들이 모여져 지장기도 성지의 사격에 맞는 지장보살선양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지난 7월 지장보궁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금년 가을 제6회 선운문화제 기간에 지장신앙 세미나와, 지장신앙 특별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장보살 반환 사진



지장보살 반환 설명문

도솔암 선운사 찾아가는 길▶





선운사 지장보궁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참당암 전경